
십자가인가 형주인가

신세계역 연구회 나카자와 케에스케

본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의 사형에 사용된 형구는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였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반론이다. 학문적·성서적으로도 격조가 높고, 설득력이 풍부한 본격적인 논문이다. (편집자 주 - 해석에 약간 결고려운 부분이 있어도 양해 바란다.)

모토하라 원고의 완성판은 1권의 서적으로서 희망자는 950엔으로 「신세계역 연구회」(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사가미오노 6-9-13 Tel 042-743-5674)에 신청해 구입할 수가 있다.

< 목 차 >

- 편지를 받고
- 서적을 집필한 이유

제 1 장 협회의 주장

1. 러셀 시대, 십자가는 심볼 마크였다
2. 러더포드가 형주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3. 교리 변경의 역사적 배경
4. 진리와 허위가 섞여 탄생하는 교리

제2장 협회의 악인용

1. 스타우로스에 대해
2. 「신성서 사전」의 악인용
3.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의 악인용
4. 「임페리얼 성서 사전」의 악인용

5. 크실론에 대해
6. 라틴어의 크룩스
7. 십자가는 이교의 심볼인가?
8. 담무스의 신
9.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
10.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에 들어 온 배경
11. 바인의 사전에 대해
12. 십자가를 지니는 것에 대해

제3장 초대 교회 교부의 문헌으로부터

1. 이그나티우스(서기30-107년)
2. 바나바(서기100-150년)
3. 순교자 유스티누스(서기110-165년)
4. 시뷰라의 신탁
5. 베드로행전
6. 바울행전
7. 토마스행전
8. 터툴리안(서기200-250년)
9. 미누시우스·헤리크스(서기210-250)

제4장 고고학의 증거

1. 이백년제의 집
2. 예루살렘 근교의 납골당
3. 페허의 벽화
4. 가족의 무덤
5. 못이 박힌 뼈

제 5 장 성서의 증언

비판자에 대한 대응

1. 못의 수
2. 죄목의 위치
3. 손을 뺀다
4. 십자가를 진다
5. 예수의 십자가

제6장십자가에 대한 고찰

1. 로마 이전의 상황
2. 로마 세계의 상황
3. 사형 방법
4. 유대 세계에 있어
5. 십자가형의 폐지
6. 예수의 죽음
7. 스타우로스에 대해

결 론

편지를 받고

본서의 타이틀은 「십자가인가, 말뚝인가 (이하 말뚝을 형주라 한다.)」이다. 왜 이러한 타이틀의 서적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개월 전 다음과 같은 한 통의 전자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호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증인과 반론자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 십자가에 대한 얘기 말입니까? 고전(여기가 중요) 그리스어에서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은 곧은 형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2개의 형주를 십자로 한 것)의 기원은 서기 3 세기의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바인저, 「신약 성서 용어 해설 사전」 참조).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책에서는 십자가는 나오지 않습니다(「고통의 기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론자 : 신세계역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용 할 수 있습니다. Liddel & Scott의 그리스어의 사전에는 분명히 「cros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 아마 그 사전은 3 세기 이후의 스타우로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즉 예수가 계신 당시입니다. 말은 시대와 함께 바뀝니다. 그리스어도 고대의 단어를 현대의 의미로 읽는 것은 어떨까요?

만일 「스타우로스」에 16 세기경 「성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다고 합시다. 어딘가의 번역자가 1 세기에도 「성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착각해 사도 5장 30절을 「여러분이 성형에 달아 죽이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라고 번역하면 믿습니까? 이 의미가 3 세기 이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한 것이라면 어떨습니까?

신세계역은 가능한 한 엄밀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라고 해도 플라톤(Platon)시대의 고전 그리스어와 예수시대의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의미, 스펠, 발음이 말에 따라서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발음은 전혀 다른 완전히 별개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크로스)」와 「곧은 형주(스타우로스)」의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일까요? 보통 성서의 번역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기다겠습니다.

편지를 받고 조속히 답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간단한 대답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증인의 반론은 위치타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협회의 주장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반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협회의 주장은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전개한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고대(역자주-선사시대) 그리스어에도, 중간단계의 그리스어(역자주-역사시대 그리스어)에도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없고 「꿈은 기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4 세기가 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교의 심볼인 십자가를 그리스도교에 가져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게 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논하고 있는 여호와와 증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은 그리스어를 고전, 예수당시의 시대, 현대의 그리스어 3가지로 분류해 「그리스어라고 해도, Platon의 시대의 고전 그리스어와 예수시대의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의미, 스펠, 발음이 말에 따라서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발음은 전혀 다른, 완전히 별개의 언어에 생각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필자는, 고전 그리스어의 문헌을 10년 이상에 걸쳐서 읽어 온 사람이다. 따라서 이 발언에는 많은 코멘트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주제로부터 어긋나므로 지금은 삼가고 싶다.

이 글에서 증인은 여기 스타우로스의 현대 그리스어의 의미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기의 발언은 고전의 스타우로스와 예수당시의 그리스어 스타우로스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하려고 한 듯싶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고전은 「형주」라는 의미이고 예수 시대의 그리스어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결론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말하고 싶은 것이 없다. 이것으로는 화자는 부정하고 싶은 것을 증명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의 발언의 의미는 직접 대화를 해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

혹은, 혹시, 이 증인은 3 세기 중반 이후의 그리스어를 현대 그리스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스타우로스에 대해서는 고전과 중세의 차이가 아니고, 고전 및 중세와 현대 그리스어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아 논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야기의 앞뒤는 일단 맞는다. 그러나 3 세기의 그리스어를 현대 그리스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의미는 협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된다.

아무리 어떻게 해석을 해 보더라도 화자는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증인은 바인의 「신약 성서 용어 해설 사전」을 기본으로 해 「십자가(2개의 형주를 십자로 한 것)의 기원은 서기 3 세기의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바인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을 리가 없다. 실제, 바인은 십자가는 고대 카르디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기원전 7 세기의 일로 화자가 주장하고 있을 때보다 대략 천년 전이 된다.

오히려, 바인의 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3 세기 중반 무렵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의 심볼이 그리스도교국의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바인의 서적의 이곳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협회는 이 바인의 견해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 백년 늦은 4 세기의 반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교의 심볼인 십자가를 그리스도교에 가져와 심었다는 것이 협회의 견해이다. 이러한 진기한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서적은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책 중에는 없다. 있다면 연락 바란다.

증인들은 통상 협회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통채로 삼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이 인터넷의 화자는 협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 협회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화자에게 반론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필자는 이 화자를 절대로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지, 필자가 이 편지에서 당황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유인즉 이런 종류의 학문적인 논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논점을 명확하게 한 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증인분들의 대부분은 그리스어의 전문가가 아니다. 또, 협회의 출판물 이외의 자료에 접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협회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서적을 읽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고, 하물며 반대되는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조직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협회가 말하는 성서의 교리 체계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필자는 어떠한 증인의 분들을 비난 할 생각도 가질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증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협회의 **출판물속에서만**의 사고에 한 정되어 협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 이유는 황당하고 불편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협회의 주장은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많고, 역사적 자료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회 출판물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성실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서를 끝까지 읽어 주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적을 집필한 이유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메일을 주신 분에게 협회의 가르침에 반론하는 자료를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취급한 자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다. 「십자가인가 형주인가」 등이라고 하는 문구들은 그리스도교국 (여호와의 증인이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하는 말)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자신도 만약 증인 분들과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러한 물음이 존재하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게다가, 가령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리스도교국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도, 형주라도 그런 일은 어디라도 상관없지 않은가?」라고, 일소에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자신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왜냐하면 예수는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져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 자리가 십자가상이어도 혹은 형주 위에서라도 **그 속죄의 의미나 효과는 변함없다.** 십자가는 속죄의 단순한 심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형주에서도 십자가라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것이 평균적인 그리스도교국의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다.

즉, 「십자가인가 형주인가?」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넌센스이며,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음을 취급한 자료는 전무인 것이다.

그럼, 왜 필자는 「십자가인가 형주인가?」 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논할 마음이 생겼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파수대」 지의 문장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교국의 교인이라면, 교회에서는 당신에게 십자가가 이교의 상징물이라고 말해 준 적이 있는가? 만약 말해주지 않았다면 교회는 당신에게 진리를 감춘 것이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이 명백한 이교의 상징물을 숭배하도록 권하여 왔다. (한국어 파수대 1968년5월15일호234면)

필자는 30년 이상 그리스도교회의 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 동안 단순한 한번도 「십자가가 이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다. 이 「파수대」지에 의하면, 필자는 「진실을 감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그런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아무튼 협회의 이런 이야기는 조금 비약된 논리이며 트집이라는 느낌마저도 든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이교의 상징」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전 인류의 속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등의 말은 참 의외인 것이다.

십자가는 속죄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죄가 사해졌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게 된 근거의 상징으로 본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멀리던 그런 간격이 예수의 죽음으로 즉,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로 제거되었던 것이다. 죄와 죽음은 거기에 따라 멀해졌다. 사탄(satan)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거기에서 선언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의 함축적인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나, 증인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십자가 이해는 배교 한 그리스도교국의 교회의 생각이며 성서의 가르침은 아니다,* 라고....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이해야말로 성서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이며 가르침이다. 그것을 증인의 분들이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이 본서를 집필한 이유이다.

이 집필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증인으로부터 정면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십자가는 이교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배교의 표시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게 됩니다.」

필자는 그 때는 그 증인이 그리스도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은 들은 체 만 체 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보고 떨고 있는 몇 사람의 증인들을 만났다. 그 경험으로부터 그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보다 조직의 가르침이며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satan이 십자가 안에 머물고 있다」든지, 「십자가를 통해 악령이 일 한다」 등라는 말도 증인으로부터 들었다. 게다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의 회당 즉, 교회는 이슬람교의 사원이나 불교의 절 이상으로 이교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우연히 들었다.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미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린도전서 1 장 18절)¹⁾. 그러나 만약 이런 형식적인 어떻게 죽었는지만을 살피고 왜 죽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십자가는 여호와의 증인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미려한 것이 된다. 또, 십자가에 적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빌립보서 3장 18절²⁾).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십자가에 적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스도교국의 사람들이 형

-
- 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2)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임은 개개의 여호와와 증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협회가 십자가에 관한 기발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 증인들에게 가르친 결과**다. 협회의 리더야말로 증인들을 속여 진실을 숨기고 있다. 협회의 통치체에 대한 익은 절의 부역 돌아가는 것 같은 분노(편집자 주-속담인 듯함)를 누르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 더 속삭임이 들려 왔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만으로 좋은 것인지. 당신은 진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노력을 했는지?** 라고.

그러한 소리에 강한 자극을 받아 펜을 쥐기 시작했다. 사실은 워드프로세서를 치기 시작했다. (편집자 주저리-재미있는 표현이군요...^^)

마지막으로 본서를 집필하고 있을 때, 언제라도 명심해 온 말이 있다. 그 말을 독자의 여러분이 알아 주셔서 본서를 마음으로 읽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한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제 1 장 협회의 주장

어느 문제를 논하려면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인가, 형주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워치타워협회의 주장을 정확하고 충분히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협회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잠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니 양해 바란다.

1. 러셀 시대, 십자가는 심볼 마크였다

오늘날 협회는 「예수는 십자가가 아니라 형주에 달렸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증인분도 아시다시피 협회는 그 역사의 처음부터 것처럼 가르쳐 온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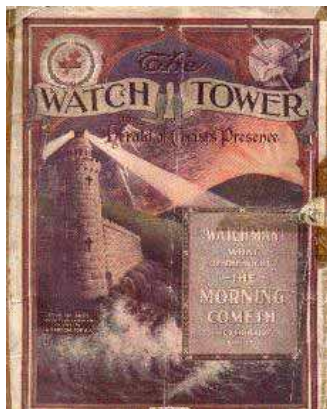
러셀은 독자적인 성서 해석에 근거해 몇 개의 독특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878년 경 그가 26세 때 워치타워성서 책자 협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물론, 당시는 「시온의 워치타워책자 협회」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었다)를 조직 했다.

그러나 러셀은 예수가 사형된 도구(이하, 형구라고 생략한다)가 「십자가」였던 일을 의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많은 설교, 논문, 성서의 주석서를 남기고 있다. 지금은 그러한 자료를 CD-ROM로 검증할 수가 있다. 그러한 어떤 것 하나라도 취해 봐도 예수를 형주에 매달았다, 라고 가르친 곳은 나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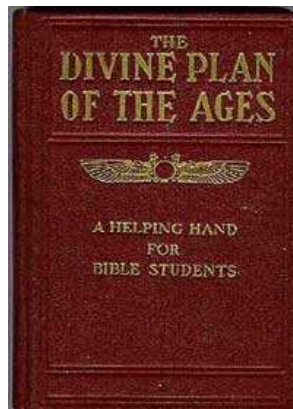
그 CD-ROM에 대해 러셀의 시대에 발행된 「파수대」지를 볼 수가 있다. 놀랄 만한 일로 그러한 표지에 관에 둘러싸인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매호³⁾(매모양의 그림)이다. 그것은, 그 표시가 러셀 시대의 협회의 심볼 마크였다. 많은 연구자는 그 심볼 마크가 프리메이슨(Freemason)의 표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본서의 논제로부터 빗나가므로 지금은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러셀 시대에는 형주는 아니고 십자가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을 확인해 두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사형된 도구가 형주였다고 하는 생각은 러셀 시대에는 없었으니까, 협회가 십자가를 심볼에 사용한 것을 꾸짖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협회가 예수의 형구는 형주이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서적의 상당수는 전세기의 말에서부터 금세기의 초에 걸쳐 이미 출판되고 있었다. 「companion·바이블」이나 바인의 서적도(이러한 서적에 대해서는 후에 접한다) 물론 그들

3)



좌측상단



중앙

의 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말이다...

먼저 이것은 협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중의 하나에 비추어 보면 큰 모순을 드러낸다. 사실 협회는 1914년에 하늘에 임재 된 예수는 1918년경 지상의 모든 종교 단체를 조사하여 워치타워협회만을 맑고, 유일한 하나님의 조직으로 인정되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만약, 그 가르침이 진실하다면 예수는 이교에 기원을 가지는 십자가를 심볼 마크에 사용하고 있던 워치타워성서 책자 협회를 시인 한 것이 된다. 물론, 당시는 십자가만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실시해 수혈도 하고 있던 그룹이다.

만약, 당신이 여호와와의 증인이라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러셀 시대의 여호와와의 증인은 십자가를 우상 숭배 하고 있던 사람들을 단죄할까? 아마,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령 당시의 「파수대」지의 표지에 「십자가」가 심볼 마크로서 그려져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당시의 여호와와의 증인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례는 아닐까?

만약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의 그리스도교국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에 한해서 말하면, 러셀 시대의 여호와와의 증인과 현재의 그리스도교국의 그리스도인의 사이에는 무엇 하나 다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편만을 우상 숭배자 부르는 것은 불공평한 모습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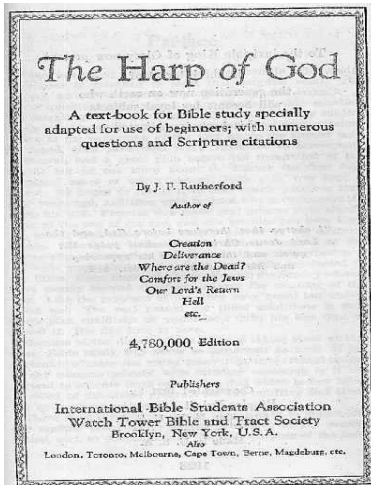
2. 러더포드가 형주라고 말하기 시작하다

러셀이 사망하고 러더포드가 2대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회장이 되고 나서도 그 최초의 10년간은 십자가에 대해 어떤 의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러더포드는 1920년에 「하나님의 거문고」⁴⁾라고 하는 서적을 출판했다. 그 제6장은 「속죄」라고 하는 테마를 취급하고 있다. 그 장의 처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의 그림이 게재되고 있다. 그것은 실로 훌륭한 그림으로 본서의 표지에 소개한 것이다. 표지의 그림을 한번 더 차분히 봐 주셨으면 한다. 당신은 그것이 협회의 출판물에 게재된 그림이라고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이 그림을 증인에게 보이면, 초신자 증인은 필자가 다른 서적으로부터 뽑아 와 삽입한 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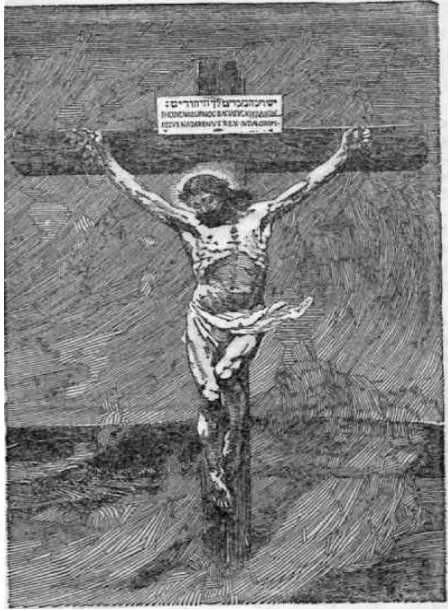
"The Harp of God" written in 1921 and published in 1928. The plate on the right is a scan of the inside cover.

"And Pilate, more righteous than the clerics, posted over his cross the sign: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page 136)

"When Jesus died upon the cross of Calvary....." (page 140)

"The ransom price was provided at the cross. The cross of Christ is the great pivotal truth of the divine arrangement, from which radiates the hopes of men." (page 142)

"In the cross of Christ I glory, Tow'ring o'er the wrecks of time; All the light of sacred story Gathers round its head sublime." (poem quoted on page 143)



짜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오늘의 여호와와 증인에게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그림이다.

그럼, 협회는 언제쯤부터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라고 말하기 시작했는가? **193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이다.** 1975년의 연감(148페이지)은 다음의 3개를 기술하고 있다.

- 1) 1928년의 디트로이트의 대회에서 「십자가와 관의 표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 1931년의 10월 15일호의 「파수대」지의 표지로부터 십자가와 관의 상징 표시가 떼어졌다.
- 3) 1936년에 출판된 「부」라고 하는 서적에서 처음 예수를 형주에 매달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3)에 대해서는 「파수대」지 1995년 5월 15일호(20 페이지)⁵⁾도 확인하고 있다.

「협회가 1936년에 발행한 「부」라고 제목을 붙이는 책은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는 아니고 1개의 곧은 형주 혹은 형주에 매달려 사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필자의 수중에 일본어로 번역된 「부」라고 하는 서적이 있다. 그 26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왜 예수는 나무에 못 박혔는가? 예수는 2 개의 재목의 교차한 소위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고안한 우상이며 회화에 나타난 것 같은 십자형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신체는 나무 위에 못 박힌 것이다.」

협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십자가를 심볼 마크에 사용해 왔다. 따라서, 그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여기서 주의 깊게 진행된다. 우선, 그 심볼 마크 캔버스에서 구 없는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심볼 마크를 제외한다. 그리고, 그리고 5년 후에, 형주이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편집자주-아래 3번째 그림, 이후의 오늘날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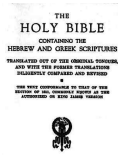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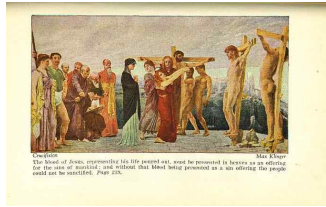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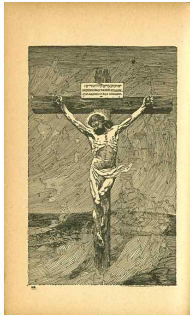
5) *** 파95 5/15 20면 크고 작은, 빛의 번쩍임(제1부) ***

십자가—그리스도교의 상징물이 아니다

19 여러 해 동안 성경 연구생들은 십자가를 그리스도교의 상징물로서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면류관형” 핀을 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임스 왕역」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 16:24; 27:32) 수십 년 동안 이 상징물은 또한 「파수대」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20 협회가 1936년에 발행한 「부」(Riches)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곧은 말뚝 혹은 기둥에서 처형당하셨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권위 있는 문헌은 「제임스 왕역」에서 “십자가”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스타우로스)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것은 “주로 곧은 말뚝 혹은 기둥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 개의 가로대가 엇갈려 있는 교회식 십자 형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후자의 모양은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한 것이며, ...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못박히신 도구는 우상화해서는 안 되며 혐오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21 빛의 큰 번쩍임과 작게 여겨질지 모르는 빛의 번쩍임 모두에 대한 예들이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어지는 기사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2-1 편집자의 궁금증

최근 협회의 출판물(피 팜플렛) 중에 피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 뭇 6면 피-생명에 필수적인 것 ***

로마 시대에도 피가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는가?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사도들과 동시대인)와 2세기의 의사인 아레타이우스는 사람의 피가 간질 치료약이었다고 말한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나중에 “원형 경기장의 놀이판에서 사악한 범죄자들의 생피를 게걸스럽게 취하여 ... 자기들의 간질을 고치려고 가져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기술하였다. 그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의 피조차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에 그대들은 피가 가득 들어 있는 소시지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물론 그대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감수하였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은 피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 까지 했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다음에서는 피를 먹는 것과 수혈을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논리의 비약이 뒤따른다. 이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서라도 다음의 그림을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멀리하는 대신에 죽음을 각오했고, 심지어 범죄자의 생피를 게걸스럽게 먹는 그러한 혐오스런 여러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약2세기 정도의 로마의 사형의 장면이 협회가 인식도 하지 못한 사이에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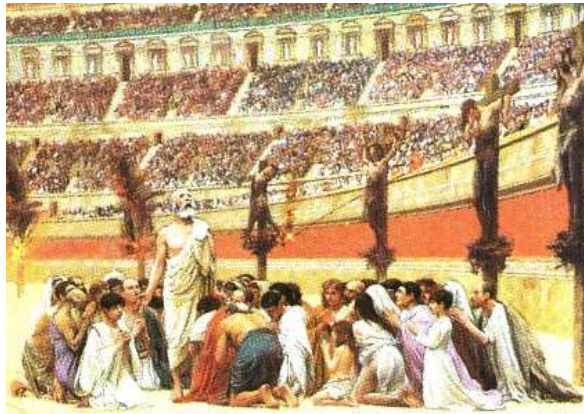
장면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7면 삽화]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범하려 하지 않았다



위의 그림과 오른쪽 설명을 아래 그림으로 정확히 살펴보자



로마의 노예나 범죄자의 처형에서는 십자가형이 일반화 되었고 당연히 여기서의 언어는 스타우로스에서 죽은 것이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아마도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피에 관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멀리했다는 근거를 터틀리안의 이야기

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터틀리안은 삼위일체의 신학용어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한걸음 준비를 한 분이다.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하여튼, 이 그림은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초기 그리스도인 당시 즉, 예수님의 당시에 스타우로스에서의 사형은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작아서 보통의 증인분은 잘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협회의 자충수로서 피를 언급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드러낸 것이다.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는 스타우로스에서 사형을 한다는 말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진실로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이 그림에 대해 혹시라도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본인도,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황당하지만 말이다.)

림에 대해 혹시라도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본인도,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황당하지만 말이다.)

3. 변경한 역사적 배경

생각해 보면, 예수의 형구가 형주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대단히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1870년대의 후반부터 시작된 위치타워성서 책자 협회라고 하는 그룹은 오늘로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반의 기간**은 형주는 아니고 십자가를 믿어 온 것이 된다. 오늘의 협회의 판단에 의하면 1930년경까지의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이교에 기원을 가지는 숭배물을 심볼로 내걸고 십계의 3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룹이 되는 결론도 나게 된다.

협회의 논리에 의해 생각해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영적인 음행이라 볼 수 있는 우상숭배의 금지로서의 신앙의 근간에 관련되는 중요한 일을 여호와께서 대단히 오랫동안 방치해 두신 것이다. 만약, 여호와께서 러셀들의 성서 연구자 그룹을 선택되어 자신의 유일한 전달 경로로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에 대해 그리 엄격하신 그분은 최초로 십자가의 문제를 언급하셔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빛」을 주어(교리를 변경할 때, 증인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증인들을 이교로부터 떼어내게 하는데 왜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는가? 황당하고 이상한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일까?

협회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companion·바이블(Companion Bible)」은 그 부록안에, *예수의 형구는 십자가는 아니고 형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서적은 **1885년** 런던에 있어 출판되었다. **협회에 새로운 빛이 비치던 그 때보다 40년 이상이나 오래된 것이다**. 즉,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협회의 새로운 빛은 런던에서 먼저 밝혀진 것이 될지도 모른다. 또, 협회가 자설을 변증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바인의 서적도 금세기의 초두, 즉 새로운 빛이 밝혀지기 전 **약 20년 전부터 5권으로 나눌 수 있어 차례차례 출판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러한 서적은 모두 성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의 독자의 성서 연구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한 참고서적으로서의 대중매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서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중에서 찬성하는 전문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거의라고 말했지만, 필자가 아는 한 한사람도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물론 그것은 전통적인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현대의 그리스어 학자는 역사적 자료를 정확하게 검증해 결론을 내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에 대한 판단과 고찰은 사실상 엄두를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그 열정은 끝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서적은 누구라도 손에 넣을 수가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러셀이나 러더포드가 몰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러셀이 다독가였던 것은 유명하다. 그가 남기고 있는 많은 저술은 상기의 서적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시킨다. 필자는 러셀은 십자가에 관한 이러한 서적의 주장을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로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편집자-물론 그 당시에는 천년크룩스로서의 예수재림이 가장 큰 이슈였고, 이런 이슈의 불발로 인한 조직의 재정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재를 남긴 것일 것이다.)

러더포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십자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나타난 해를 **1928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전에 나온 형주에 대한 이야기의 서적에 접하고도 그 주장을 무시해 왔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무렵 상기와 같은 서적에 접해 십자가설을 폐지해 항설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러셀의 경우도 러더포드의 경우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러셀이나 러더포드가 십자가를 신앙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교국의 성서 연구자 중에는 예수의 형구가 형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람

들은 소수파이며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평가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은 **어째서 러더포드는 1930년대 전후가 되어 십자가로부터 형주로 변경했는지**, 라고 하는 것이다.

수중에 있는 자료로부터 필자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보았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말했던 것에 관한 참조 자료를 보내 드린다. 자신으로 필자의 추측을 검증해 주시길 바란다.

1916년에 러셀이 죽으면서 협회 내부는 1914년의 눈으로 확인되는 예수재림과 함께 아마케돈의 큰 절정의 해라는 것의 불발로 내부에서는 신도들의 실망과 낙담은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한 신도수의 감소와 피해에 대한 해명 등 그리고, 성서연구생들 간의 견해의 대립등과 아울러 조직에 대한 주도권 분쟁이 표면화 되었다. 이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개념이 한 개인에게 머물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많은 그 조직의 성원들은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런 조직의 리더로서의 책임을 지고 나갈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러셀은 생전 유서를 통해 다섯 명의 멤버에 의한 위원회제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 격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 경찰까지 투입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도중, 유서 안에서는 서열의 제7번째에 위치하고 있던 러더포드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러더포드는 그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이용하여 종전까지의 러셀의 서적과 논문, 강연록등을 정리하면서 1914년과 관련된 내용의 낙담과 현 조직의 내부의 강화(내부속의 성서연구생들의 견해대립과 다원화의 움직임)를 위해 20년대 초반에 천년기 새벽파나 성서학도와 같은 개념을 더욱 일반화 하는 그들 조직의 신도의 통일성의 일환으로 “여호와와 증인”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내부적인 규합을 하게 되고, 협회의 간부급으로서의 성서연구생들의 견해대립은 결과적인 추방의 모습으로 협회 전체를 정확한 피라미드형의 조직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는 변호사의 지식과 지금까지의 씩씩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철의 조직을 만들기엔 전념했다. 조직을 간축시키면서도 하나의 규율적인 행동지침의 효과의 방안으로서도 새로운 서적을 출판하게 되고 그런 내용으로서는 중도 금지(예방접종금지)등의 조금 비이성적인 내용까지도 다루기도 한다. 물론 이런 예는 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그 규율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인식을 하는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통일화를 이루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런 방법이 조직강화의 수단으로써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쉽게 알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런 정비와 아울러 새로운 희망을 전해야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러셀의 예언의 망각화와 새로운 빛으로서 **1925년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예언** 했다.

러더포드에게 있어 이 1925년이라고 하는 해는 극히 중요한 해였다. 조금전에 잠시 언급 하였지만, 이유인즉 러셀은 1874년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어 1914년에 최후의 대결전이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1914년에 최후의 대결전이 일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예언은 성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의 협회 안에는 큰 혼란이 생겼다. 그러나, 협회는 1874년의 그리스도림 재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0년 후의 1925년을 요벨의 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해에 아브라함, 이삭, 다윗 등이 부활해 온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협회는 그러한 구약 성서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비해 그들의 주거로서 「벧사림의 집」이라고 말해지는 저택까지 준비했다. 그 집은, 현재는 타인의 손에 넘어갔고 지금도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 존재한다.

1925년이 도래했다. 그리고,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해가 지나가 버렸다. 물론, 증인들의 기대는 허무한 것이었고, 당시 아무도 부활해 오지 않는 현실에 실망했다. 여기에 이르러 러더포드는 교리를 정비할 필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직면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

러더포드는, 1874년의 그리스도림 재설을 파기해 러셀이 최후의 대결전이라고 믿은 1914년을 그리스도의 임재 한 해로 변경했다.

러더포드는 증인들의 실망과 낙담의 비난을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지금의 정치계에서나 조직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 진실의 배경이 감추인 채 그 효과는 어느정도 맞볼 수 있다는 것은 정치학에서나 군중심리학에서도 나타난다. 정치적 입장의 관심의 분산으로서의 스포츠의 활성화와 여러 국제적 행사의 유치, 그리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으로서의 전달로 그 현재의 정치적 부패나 비리의 비난과 비판의 희석화 그런 것 말이다.

그 타겟으로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 협회가 말하는 그리스도교국이다. 실은 러더포드는 그 당시 몇해전 1917년부터 18년에 걸쳐 투옥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교국의 종말론의 비판과 경고 등으로 인한 대응과 그런 승직자 계급의 가르침의 권위의 반사적 효과로서의 입증의 모습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때 이래 그리스도교국에 대해 종전과는 달리 격렬한 비난의 어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거기서 그리스도교국의 일반 신도들이 증인신도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대변하듯이 그리스도교국의 비난을 표출함으로서 증인신도들을 보호하고 대신 증인내부의 실망과 낙담을 완전히 추스르게 된다. 진실한 내용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조직운영의 모습이다.

협회의 공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국을 배교를 한 사람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교에 유래하는 십자가를 그리스도교국의 교회가 심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밖에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제시한다. 즉, 이런 이유에서 그들이 참으로 진실한 종교이므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으니 강하게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 러더포드는 그리스도교의 배교성을 지적해 협회를 통한 그 조직이 「유일한 하나님의 맑은 조직」인 것을 인식 시키려고 했다. 그 시도는 적어도 조직의 내부에 있어서는 성공했다. 결국 조직의 컬트화라고 하는 큰 희생을 지불하면서였지만 말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이 협회가 「예수는 십자가는 아니고 형주에 매달렸다」라고 주장하게 된 조직역사의 흐름을 통한 분석이다. 물론 그것은 **필자의 역사 해석**이다. 하지만, 그것을 배교자의 해석이라는 길러진 사고를 이용하여 즉석 결단해서 거부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한다. 필자로서는 「십자가인가 형주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시초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조직의 역사를 통해 더듬어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 싶은 바람에서 살펴본 것이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통상의 학문적 센스를 가지고 읽어 준다면, 검증되어야 할 **가설로서는 의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은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가르치고 싶은 역사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그래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직이 가르치는 내부의 역사는 대체로 불리한 입장은 불식 되고 있고 이것은 또 당연해 보인다. 유감스럽지만 협회도 같다. 협회는 몇년전 「여호와의 증인 - 하느님의 왕국선포자」이라고 하는 협회의 역사를 정리한 서적을 출판했다. 증인들은 두꺼운 그 훌륭한 장정을 한 그 서적을 보면 조직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술되고 있다, 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부정적이다. 그 서적은 조직에 있어 수치스런 내용에 대해서 또는 무례한 것은 거의 접하지 않았다. 완전한 내부 전용의 조직의 역사를 변호한 서적이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자세하게 논한 서적을 저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십자인지 형주인지를 살펴보는 시점에서, 문제의 소재로서의 협회의 논리를 살펴보자.

4. 협회가 전개하는 논리

1930년대 후반부터 예수는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에 매달렸다. 라고 협회는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출판물은 본서의 표지의 하나로서의 그림이 같이 바뀌어 갔다. 그러한 그림에 의해 호소하려고 한 최대의 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물론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 귀착하여 「파수대」 지 1987년 8월 15일호(29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24면의 그림과 같이 본 출판물에 나오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단지 그 장면을 묘사하는 타당성 있는 삽화에 지나지 않으며, 해부학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와 같은 묘사는 수시로 변하며 상호 모순되는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러한 그림은 고대 이교 신앙에서 기원한 종교적 상징물을 명백히 피한다

형주에 매달린 예수의 그림은 「고대 이교 신앙에서 기원한 종교적 상징물」을 명백히 피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술되고 있다. 그것이 러더포드 이래 협회가 문제 삼아 온 것이다. 러더포드는 단지 역사적 흥미로부터 예수가 매달린 형구가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이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심볼로서 보급되어 있는 십자가가 이교에 유래하는 것을 공언해 그리스도교국을 배교자의 그룹, 우상을 비는 사람들이라고 규탄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주에서의 처형의 내용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은 그가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기 전 약 30-40년 전부터 로마의 사형제도에 비추어 논해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보통 사람이 보통으로 성서를 읽을 때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생각으로 성서를 읽어들어 간다. 예를 들면 큰무리와 작은 무리로 나뉘는 지상낙원과 그 작은 무리군으로 불리는 144,000명만이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숫자의 상정과 기름부음 받은자의 만찬의 과정, 지혜롭고 충성스런 종이라는 통치체의 존재, 신약 성서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237회나 나온다는 것, 전 인류는 수혈 금지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등등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성서만 읽을 경우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조직이 성서 안으로 읽어들이는 독특한 교리이다. 그것은, 몇 개의 특정의 성구에 독특한 해석을 적용하여 그 적용의 내용을 차례로 늘어놓고 바꾸어 독특한 논리로 붙여 만들어 낸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하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이교에 유래하는 심볼로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라고 하는 협회의 주장도 같다. 십자가를 우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필자의 주위에는 한사람도 없다. 그것은 증인이 그리스도교국의 사람들을 관찰한다면 곧 알 것이다. 실제, 조직을 나오고 나서 협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조사해 보면 협회의 가르침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회의 가르침이 자신의 뇌리에 깊게 새겨지고 있을 때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럼, 협회는 어떠한 논리를 거듭해서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교국을 이교의 우상 숭배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인가? 그 논리를 소개하자.

1) 유명한 사전에 의하면 「십자가」라고 번역되고 있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

는 원래 한 개의 형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

2) 그것을 기초로 해 예수는 한 개의 형주에 매달렸다.

3) 예수를 매단 형구를 가리키고 있는 또 하나 말로서 신약 성서가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4) 그 「크실론」은 「나무」를 의미하므로 「스타우로스」가 한 개의 형주이었던 것은 확증된다.

5) 한편 십자가는 고대부터 여러가지 지방에서 이교의 신앙에 대해 그 신앙을 나타내는 심볼로서 이용되어 왔다.

6) 4 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태양 숭배자였지만 이교의 심볼이었던 십자가를 그리스도교안에 반입했다.

7) 그 결과 그리스도교국은 십자가를 숭배하는 배교적인 그룹에 빠져 버렸다.

8)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교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믿게 되어 버렸다.

5. 진리와 허위가 섞여 탄생하는 교리

이상과 같은 협회의 논리 전개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예비지식도 없는 사람에게겐 지당한 것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해 만들어 낸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비유적 픽션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만으로는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 협회가 예수는 형주에서 사형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실수이지만 그 논리를 조립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협회의 내용중 사실인 것을 먼저 다음에서 지적해 두자.

- 1) 예외적이지만 그리스도교국의 출판물 안에도 그리스도를 형주에 매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적은 몇 개가 존재한다.
- 2)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 개의 봉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 3) 예수의 형구에 대해 신약 성서의 5개소에 있어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통상 「나무」를 의미하고 있다.
- 4)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도안은 고대부터 여러 지방에서 이교의 신앙의 심볼로서 이용된 가능성이 있다.
- 5) 1, 2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던 적이 있어 우상으로 오해 받는 것 같은 상을 만드는 것은 피하려고 했다.
- 6) 4 세기 이후 그리스도교의 사이에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심볼로서 채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협회의 주장에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에서 살펴보자.

1) 우선, companion·바이블이든 바인의 사전이든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설명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견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협회가 인용하는 서적의 견해는 다른 서적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소수의견이다. 물론,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중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2) 권위 있는 사전은 모두(내가 조사한 모든 것으로 문자대로 모두), 「스타우로스」는 원래는 한 개의 봉으로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예수 시대의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라고 하는 형구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편집자-즉 처음 부분만 인용한다.)

3) 히브리어에는 십자가에 해당되는 말은 없고 십자가는 「에이트(목)」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에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서가 「크실론」이라고 하는 역어로 사용되었기에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는 십자가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4) 그리스어 「크실론」은 원래 「나무」를 의미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다양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어 십자가를 가리키는 일이 있었다.**

5) **1 세기부터 3 세기에 걸친 교부들의 문서는** 예수의 형구는 한 개의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많이 등장한다. (편집자주-십자가가 4세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의 허구.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본다.)

6) **고고학적인 발견은** 예수의 형구가 한 개의 형주가 아니라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7)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그리스도교의 심볼로서 도입된 것은** 이교의 신앙에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요시한 결과**이다.

8)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십자가형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부터 보건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십자가에 의한 사형을 폐지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기 위해서는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결코 자설에 적당한 정보 중에서도 그 일부만을 모아 구성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어떠한 자료이더라도 그 자료적인 가치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나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 자료는 역사 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대로 통채로 삼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각의 자료는 각각에 적격이고, 전체 안에서 자리매김해져 재구축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협회의 출판물은 이러한 기초적인 룰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

제 2 장 협회의 악인용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협회는 「십자가가 아니라 형주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스토리에 맞는 정보만을 취사선택 하고 있다. 그 스토리에 맞지 않는 자료는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협회는 자주 우리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말하고 있는 문헌을 여러가지 궁리를 해 그들 주장의 입장에서 좋게 인용해 버리기도 한다. 증인은 협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은 자들로 절대로 그러한 일은 하지 않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다. 과연 실체는 어떤가? 이 장을 읽어 자신으로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한다. (편집자 주- 이와 같은 현상은 본인도 곳곳에서 발견한다.)

독자는 처음부터 필자와 같은 결론에서 이하의 논술을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자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혐의를 갖고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반론하면서 읽어 진행되어 주셨으면 한다. 그 결과 본서의 저자가 적당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면 꼭 연락 해주셨으면 싶다.

1. 스타우로스(*stau@ros*) 에 대해

협회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고전 그리스어에 대해 한 개의 형주를 의미하고 있던 것을 소개한다. 그리고 성서의 저자들의 용례도 같은 것이었다, 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통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복수 기사 ***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쓰인 것과 같은 형구. (마 27:32-40; 막 5:21-30; 누 23:26; 요 19:17-19, 25) 「신세계역」에서 “고통의 기둥”으로 번역된 단어(스타우로스)는 고전 그리스어에서 주로 곧은 기둥 즉 장대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의 필자들이 그 단어를 십자 형태의 기둥을 의미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기둥에 못 박음 *Int*, 1149-1151면 참조.

이 문장의 「고전 그리스어에서 주로 곧은 기둥 즉 장대를 의미하며」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도 좋다(이 점은 후에 확인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의 필자들이 그 단어를 십자 형태의 기둥을 의미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예수가 로마의 총독 본디오·빌라도의 아래에서 사형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로마의 사형법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 시대의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스타우로스」가 고전 시대의 스타우로스라 같다는 전제에 서면 「통찰」의 주장은 옳바르다. 그러나, 권위 있는 사전은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고전 그리스어의 언어적인 용례로부터 예수의 형구의 형태를 추측하는 것은 역사 문헌의 옳바른 읽는 법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에 상술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은 「파수대」지 1992년 11월 15일호(7페이지)의 기사에서도 말해지고 있다.

성서는 예수께서 결코 전통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한 기둥 즉 스타우로스에서 사형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 희랍어는 마태 복음 27:40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건물 골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순하고 곧은 들보 또는 기둥을 의미한다. 따라서 십자가는 결코 참 그리스도교를 대표한 적이 없다.

스타우로스는 확실히 고전 희랍어에 대해 「건물의 토대에 사용되는 것 같은 곧은 보통의 들보 혹은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예가 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⁶⁾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고전 희랍어의 용례를 예수 시대에 일반적인 것 같은 전제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따라서 십자가는 결코 참 그리스도교를 대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의 부분은 논리에 비약이 있다. 「따라서」라고 하는 말은 이종의 의미에 대해 올바른 용법은 아니다.

우선 그리스어의 언어적인 의미에서 스타우로스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십자가가 참 그리스도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역사적배경으로의 귀착의 논리전개에서 「따라서」라고 하는 점속사는 부정확한 것이다.

게다가 이 논술은 「십자가는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나타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의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 필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이 40년간에 실로 많은 그리스도교국의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그러나 「십자가가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던 적은 없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은 혐회의 출판물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논해 그것을 부정했더니 결국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자 그렇다면 위의 혐회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함께 이하에서는 스타우로스에 대한 인용문과 기타 인용문에 대한 악인용을 검증한다.

2. 「신성서 사전」의 악인용

혐회는 스타우로스의 언어적 의미가 형주인 것을 반복해 강조한다. 예를 들면, 「깨어라!」 1984년 9월 22일호(14 페이지)(한국 85년 6월 1일)는 권위 있는 사전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신성서 사전」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깨85 6/1 16면 십자가는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가? *****

「신 성서 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스타우로스’, 동사 ‘스타우로오’)에 해당하는 희랍어 단어는 일차적으로 곧은 기둥 혹은 들보를 의미하며, 이차적으로

6) Bauer, Arndt, and Gingrich'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의 진술

: "...a stake sunk into the earth in an upright position; a cross-piece was often attached to its upper part, so that it was shaped like a T or thus +. Let's look at a few more Lexicon entries for "cross" (Stauros):

Friberg AGNT Lexicon:

"Stauros" lit. cross, an instrument of capital punishment, an upright pointed stake, oft. w. a crossbeam above it, or intersected by a crossbeam³.

Louw-Nida Lexicon:

["Stauros"] a pole stuck into the ground in an upright position with a crosspiece attached to its upper part so that it was shaped like a 'cross.'.....reference is probably to the crosspiece of the cross, which normally would have been carried by a man condemned to die.

Barclay Newman Greek Dictionary and Thayer's Lexicon both read simply: "Stauros" Cross

처벌과 사형 도구로 사용된 기둥을 의미한다.”

「통찰」도 같다.(제일권, 783페이지).

***** 통-1 255면 기둥에 못 박음 *****

하지만 성서 필자들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그들은 그리스어 명사 *스타우로스*를 27회, 동사들인 *스타우로스*를 46회, *신스타우로스*(접두사 신은 “함께”를 의미함)를 5회, *아나스타우로스*(아나는 “다시”를 의미함)를 1회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못 박히신 형구를 가리키는 데 “나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크실론도* 5회 사용하였다.

고전 그리스어와 코이네 모두에서 *스타우로스*는 두 개의 목재로 되어 있는 “십자가”라는 사상을 결코 전달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울타리나 방책, 울짱에 사용될 만한 곧은 기둥, 나무 기둥 혹은 말뚝이나 장대만을 의미한다. 더글러스의 「새 성서 사전」(*New Bible Dictionary*), 1985년판, 253면에서는 “십자가” 표제 아래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스타우로스* 동사 *스타우로스* …)는 일차적으로 곧은 기둥 혹은 들보를 의미하며, 이차적으로 처벌과 사형 도구로 사용된 기둥을 의미한다.”

이상의 「깨어라」 및 「통찰」의 문장을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읽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글을 읽고 「신성서 사전」은 예수가 형주에 매달려 죽었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과연 무엇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물어 주셨으면 한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아마, 이 내용만으로 당신이 물은 사람들은 「그 사전은 예수가 죽은 형구로서의 스타우로스 형주이다, 즉, 예수는 형주에서 죽은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과연 그 협회가 인용하는 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떨까? 과연 예수의 죽음은 형주에서였다고 주장할까? 터무니 없다. 「신성서 사전」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완전히 반대를 가르치고 있다.

사실은 이 성서 사전은 「깨어라」 및 「통찰」이 인용하고 있는 문장의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잘 읽어 주셨으면 한다.

「십자가의 사형은 페니키아인이나 카르타고 사람에게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이후에 로마 사람에게 의해 광범위하게 실시되게 되었다. 로마 시민에게는 드물었고 노예, 지방이나 하층계급의 범죄인이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와 같이 십자가형에 의해 사형 되었지만, 바울은 참형으로 되었다고 하는 전승은 고대의 방법에 일치하고 있다.**」

즉, 이 「신 성서 사전」은 로마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은 하층계급의 범죄인에 대해서 이용되어 **예수도 베드로도 그 중에 포함되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신 성서 사전」은 계속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범죄자는 한 개의 곧바로 성장한 기둥에 얽매인 채 못 박혀지는 경우 외에, 3개의 형태의 십자가가 있었다. 우선, 대문자 T의 형태를 한 crux commissa(성안토니오의 십자가)라고 해서 어느 사람들은 담무스의 신의 상징(타우라고 하는 문자)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은 crux decussata(성안데레의 십자가)로 X의 문자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crux immissa라고 해서 2 개의 봉이 십자에 짜 합쳐지고 있어서 우리의 주님은 이 형태의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 (에이레나이오스, Haer. 2. 24. 4). 이것은, 4개의 복음서에 대해(마태27:37, 마가 15:26, 누가23:38, 요한19:19-22), 죄목이 예수의 머리 위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설득력을 갖고 있다.» (New Bible Dictionary, Tyndale House Publishing, 1982 p. 253)

참으로 놀랍고 기발한 인용이다. 「깨어라」와 「통찰」은 「신 성서 사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인상을 주는 방법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느 서적의 처음 부분을 인용해서 그 서적이 본래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결론과는 정반대인 자신의 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다면 어떨까? 이것은 사기 행위와 동일하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물론 일반 사회의 룰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행위이다.

증인들은 이런 종류의 자료를 제시하면 「협회 출판물은 비유의 경우처럼 「신 성서 사전」이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한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비유에 의해 이야기해 보자. 지금, 학교의 교사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고 물은 그 사람은 「나는 학교의 교사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대답은 올바른 것일까? 그는 학교의 교사니까, 확실히 사실을 대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질문자가 물었던 것에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질문을 잘 듣지 않고 무심코 엉뚱한 대답을 해 버렸다는 것이면 그래도 대답한 그 대답에는 숨기려는 태도는 없다. 그러나 질문 받은 내용을 잘 안 다음 게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 두고 싶다고 하는 의도로부터 것처럼 대답한 것이면 그것은 거짓의 대답을 한 것이 된다.

협회 출판물의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무심코 미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대답을 조작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웬지 협회의 이런 종류의 악인용은 한 번이나 두 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논술을 봐 주시면 알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악인용은 십자가인가 형주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해서도 여호와의 어명에 관해서도, 삼위일체에 관해서도, 그 외 여러가지 분야의 진술 안에서 협회 출판물은 악인용을 반복하고 있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소개해 왔다.

「신 성서 사전」의 악인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돌아오자.

혹은 협회 출판물은 「인용하고 있는 사전이 예수는 형주에 매달렸다고 평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고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다. 그러나, 그 변명도 또 궤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 보면 좋다.

우선, 위치타워의 신앙에도 그리스도교의 신앙에도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몇 사람을 선택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앞의 협회 출판물을 읽어 준다. 그 후, 「협회 출판물로 인용되고 있는 사전은 예수의 형구가 십자가였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형주였는지?」라고 물어 주셨으면 한다. 만약, 그 쪽으로부터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형주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게 된다면 협회 출판물은 지적 사기 행위를 행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용되고 있는 사전은 인용 이외의 다른 곳에서 십자가라고 명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상한가? 내가 비정상적이고 비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 그래서, 필자 자신도 이 곳을 보면서, 수 십명의 친구들에게 상기의 테스트를 반복해 보았다. 워치타워의 조직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교국에 속하는 사람에게도 그 어느 것에도 무관계한 사람에게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 테스트를 받은 사람 전원이 「인용되고 있는 「신 성서 사전」은 예수의 형구는 형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회답했던 것이다.

이상의 테스트로부터 협회는 출처에서 진실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의 내용을 그들의 교리와 조립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권위 있는 「신성서 사전」조차 협회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주는 사기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독자중에는 필자의 단정은 지나친 언동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꼭 본인이 상기의 테스트를 시험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필자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면 연락해 주셨으면 한다. 함께 생각하고 싶다.

증인들이 자주 하는 말, 그리고 특성을 이루는 성향이 있다. 「어떠한 동기로부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고,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의 이 장에서의 동기는 명료하다. 협회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서적을 정직하게 인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만약, 협회가 진실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애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 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양식의 내용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조직이 해야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협회로부터 멀어지면 좋다. 그 뿐이다.

그 밖에도 증인들이 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배교자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 문제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협회가 악인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한 결과 그 확인을 한 후에 악인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필자의 견해가 배교자의 생각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악인용을 하고 있으면 협회는 부정직하다고 판단해 다음의 행동을 취하면 좋은 것이다.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 조직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되고 있다고 한다. 웃기게 들리겠지만 증인들은 협회가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일은 워치타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도 그랬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여기서, 상기의 실험을 해서 마인드·컨트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그 실험을 자신의 의사로 완성된다면 조직은 마인드·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된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마인드·컨트롤에 걸리지 않았다는 제 일차적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것만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기에는 미약하다고 사료되나 당신이 증인으로 게다가 본서를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사실 배교적 서적이란 먼저 결론을 지어 실질은 조직이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어도 당신 자신은 마인드·컨트롤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조직은 본서와 같은 서적을 배교자의 서적으로서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증인은 그 쪽 지침에 근거해 본서를 읽기 시작하는 것조차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또는 읽더라도 논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려 하지 않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신성서 사전」에 대해 말해 왔다. 그럼, 지금부터 몇개의 악인용의 예를 더 소개한다. 이런 내용을 살피는 과정 중에 이것이 악인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이용하고 인용하는 방법의 보통 인용인가?를 자신의 눈으로, 머리, 양심으로 검증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필자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면가 **오버라고 생각되었다면 사양 말고 연락해 주셨으면 한다.** 재차,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약속 한다.

3.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의 악인용

우선, 「파수대」지 1987년 8월 15일호(22 페이지)를 열어 주셨으면 한다. 거기에는,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이 인용되어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 파87 8/15 22-23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인가? *****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1979)은 “십자가”라는 제하에 이렇게 말한다. “원래의 희랍어 *스타우로스*는 땅에 고정시켜 놓은 뾰족한 수직 나무 기둥을 가리킨다. ... 그것은 나란히 한 줄로 세워서 거주지 주변의 울타리나 방책을 만들거나 혹은 하나를 따로 세워 심각한 범법자를 공개적으로 매달아 죽이는 (혹 이미 죽었다면, 그 시체에 철저하게 모독을 돌리기 위한) 형구(刑具)로 사용되었다.”

필자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은 글 전체를 읽으면서 이 사전은 스타우로스(수직나무 기둥)이고 예수는 이 스타우로스(수직나무 기둥)에 매달렸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지라 진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만약을 위해 이 사전을 살펴 보았다. 이 사전을 찾아서 이 문장을 확인한 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수직의 봉이라고 하는 가장 초기의 형태에 더해 4개의 변형된 형태가 유명했다. (1) 보통 그림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크로스·이미사(라틴어의 CROSS)로 불린다. 그것은 약간 짧은 듯한 횡단목 위에 곧은 봉이 위에 돌출하고 있다.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쓰기에 적합하고 그 머리 위에 못 박았다는 진술로부터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죽은 바로 그 십자가의 형태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원시의 십자가의 형태의 초기의 변형은 횡단목을 더하는 것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 발전은 적어도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유죄라고 선고된 노예가 옮긴 가로목(그림과 같이 목에 묶을 수 있었던 도구)과 관계하고 있다. 제국 시대까지는 십자가의 사형은 노예의 형벌이 되어 죄가 있다고 여겨진 사람이 사형의 장소까지 가로목을 운반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신약 성서 신학 사전」, VII, 572-3페이지)」

상기의 사전에서 저자는 또 다른 3개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테마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이상의 인용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잘 읽어 주셨으면 한다.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은 예수의 형구는 예수의 머리 위의 죄목판으로부터 「보통 그림(십자모양)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십자가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국 시대까지는 십자가의 책형(磔刑)은 노예의 형벌이 되어, 유죄로 정죄된 사람이 사형의 장소까지 횡단목을 운반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파수대」지가 인용하고 있는 문장은 확실히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중에 나온다. 그 결론으로는 부정한 인용은 아니다. 그러나 「파수대」지가 논하고 있는 테마는, 예수의 스타우로스(수직나무 기둥)이니까, 이 사전이 예수의 스타우로스(수직나무 기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파수대」지는 그 부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자설에 적당한 무관계한 부분을 인용해 자설을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혐회는 악인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비판은 단지 트집 잡으려는데 지나지 않다, 라고 잘라 버릴까? 보통의 증인분은 후자의 태도를 취한다.

덧붙여 이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이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서 신학 사전」의 견해를 여기서 소개해 본다. 이 사전이 그리스어의 사전으로 권위 있는 사전인 것은, Protestant, 카톨릭, 유대교를 불문하고 성서 연구자 모두에게 인정되고 있다. 워치타워협회의 출판물도 또 자주 인용하고 있는 사전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이 참조하듯이 이를 지적하고 있는 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스타우로스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이다. 그 형태에 관해서는 3개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십자가는 수직을 세울 수 있었던 봉 또는 세로의 끝은 선 위에 횡단목을 놓힌 T자 형태의 것 또는(cruce commissa), 같은 길이의 봉이 교차해 완성된 것들(cruce immissa, 이다.)」

상기의 문장에는 또한 주석이 붙여져 있다. 그것은, 성서학자 핫토티의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스타우로스에 관한 「신약 성서 신학 사전」의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소개해 둔다.

「원래는 나무, 혹은 사형을 위해서 지면에 돌진해진 기둥은 사형을 위해 사용되었다. ...어쨌든, 십자가는 언제라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에게 사랑받아 교부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형태인 것은 아니다. 이 형태의 발전, 즉 수평의 횡단목이 더해지는 것은 노예의 경우에 된 patibulum의 벌(편집자주- patibulum은 횡단목의 라틴어이며, 횡단목을 가지고 군중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과 관계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받아 교부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형태」란 전통적인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patibulum의 벌」이란, 범죄인이 십자가의 일부가 되는 가로목을 지고 사람들로 부터 수치를 받으면서 사형장까지 발길을 옮긴 것을 가리킨다. 핫토티는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의 기원을 「patibulum의 벌」일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 제국 시대의 초기로 기원전 2세기 정도가 된다.

「파수대」지의 인용의 문제에 돌아오자. 독자는 권위 있는 사전의 처음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입장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인용하고, 중요한 부분은 자설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이런 「협회 출판물의 악인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서의 서론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에 대해 논하고 있는 한사람의 여호와와의 증인을 접했다. 필자는 이 증인은 머리가 좋은 논리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증인이 본서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악인용을 협회 출판물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 있다. 물론, 이 점에서 필자는 이 증인을 닮았을 생각은 없다. 협회의 출판물이든 그 외의 출판물이든 보통 이러한 악인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쪽은 여호와와의 증인이다. 협회 출판물의 저자들은 기쁨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부정할 일등 할 리가 없다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악인용을 실시하고 있는 워치타워협회의 출판물의 집필자들이다. 그러한 집필자들의 개인명은 조직의 방침으로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부정직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출판물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통치체이다.

4. 「임페리얼 성서 사전」의 악인용

같은 예는 아직도 많다. (편집자주-물론 이 십자가인가 형주인가라는 논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 1914년 관련 백과사전과 신학사전의 인용 등등) 「추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임페리얼 성서 사전」(P·파베안편, 런던, 1874년판, 제1권, 영문 376 페이지)에 대해서도 채택해 보자.

*** 추 217면 십자가 ***

십자가

정의: 대부분의 그리스도교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에 사용된 형구를 십자가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라틴어 크룩스에서 나온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출판물에는 예수께서 전통적인 십자가 대신에, 머리 위에 손을 모으고 기둥에 달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현대 성서 번역판에서 “십자가”로 번역된 그리스어(「신세계역」에서는 “고통의 기둥”으로 번역함)는 스타우로스이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곧은 기둥 혹은 말뚝을 의미했다. 후에 이 단어는 또한 가로대가 있는 처형 기둥에도 사용되게 되었다. 「임페리얼 성서사전」은 그 점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스타우로스]는 그 위에 물건을 매달거나 울타리로 쓸 수 있는 기둥 혹은 곧은 장대를 의미하였다. … 심지어 로마 시대에도 크룩스(이 단어에서 크로스[십자가]라는 단어가 유래하였음)는 원래 곧은 장대를 의미하였던 것 같다.”-P. 페어베언, (런던 1874년판), 1 권, 376면.

우선, 독자인 당신은 상기의 문장을 자기 자신으로 한번 더 다시 읽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가족에게(여호와의 증인이어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좋다.) 읽어 주면 좋겠다.

그 위에 「임페리얼 성서 사전」은 예수가 「형주, 곧은 기둥, 혹은 1개의 형주」에 매달렸는지를 가르치고 있는지 물어 주셨으면 한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틀림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물론, 「임페리얼 성서 사전」이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면 무엇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전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 완전한 역전이다.

그럼 「추리」는 어째서 정반대의 결론을 꺼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상기의 인용문의 「…」라고 하는 생략 된 부분에 있다.

어느 문장을 그대로 모든 것을 인용하면 길어지므로 보통의 학문에서 「…」라고 써 그 일부를 생략 하는 것은 자주 있다. 통상 생략 되는 부분은 논해지고 있는 테마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말소적인 부분이다. 만약, 그것을 생략 하는 것에 의해 의미를 모르게 되어 버리거나 의미가 바뀌어 버리거나 한다면 그것은 결코 생략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물론 생략 하는 것에 의해 저자의 주장을 오해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학문의 세계에서 는 그만큼 실례인 것은 없다. 이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의이며, 상식이다.

그런데 협회 출판물은 그러한 상식 조차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결과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자주 인용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오해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그 정도만으로 용서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서, 「추리」에서 인용한 것은 좀더 좀더 심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인용하고 있는 문헌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란

180번 다른 결론을 도출시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무슨 일인가? 이하, 설명한다.

사실은 이 「…」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다.

But a modification was introduced and usages of Rome extended themselves through Greek-speaking countries.

번역하면 「그러나, 변형된 형태가 도입되었고 로마에서 이러한 사용은 그리스어 사용하는 나라들로 확대되었다」이다. 이 문장을 넣어, 「추리」를 한번 더, 다시 읽어 주셨으면 한다. 다음은 위의 내용을 넣어서 완성시킨 문장이다.

많은 현대 성서 번역판에서 “십자가”로 번역된 그리스어(「신세계역」에서는 “고통의 기둥”으로 번역함)는 스타우로스이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곧은 기둥 혹은 말뚝을 의미했다. 후에 이 단어는 또한 가로대가 있는 처형 기둥에도 사용되게 되었다. 「임페리얼 성서사전」은 그 점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스타우로스]는 그 위에 물건을 매달거나 울타리로 쓸 수 있는 기둥 혹은 곧은 장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변형된 형태가 도입되었고 로마에서 이러한 사용은 그리스어 사용하는 나라들로 확대되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도 크룩스(이 단어에서 크로스[십자가]라는 단어가 유래하였음)는 원래 곧은 장대를 의미하였던 것 같다.”-P. 페어베언, (런던 1874년판), 1권, 376면.

여기서, 「변형된 것」이란 위치타워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형주」를 변형한 것 즉,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십자가」이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사형에 사용한 것은 형주는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이다. 이 문장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서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즉 협회가 인용하는 그 다음 문장들을 아래에서 더 기술하여 살펴볼 것이다. 지금의 이 문장은 그 스타우로스의 원어의 의미는 그런 말뚝을 의미했을 지라도 로마에서는 이런 의미의 변화와 십자가형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반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을 「임페리얼 성서 사전」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추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실로 놀랄 만한 생략이다. 나는 40년 이상 성서에 관한 서적을 읽어 왔지만, 이 정도 질이 나쁜 생략법은 본 적이 없다. 무심코 미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으로는 결코 없다. 차근차근 깊이 생각해 간 책략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것만이 아니다. 「추리」의 인용의 마지막 문장은 원문의 문장의 도중까지이다. 문장의 도중의 침표까지 밖에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은 아니나, 중요한 내용의 변동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보통 생략을 해서는 안된다.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리」의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 「임페리얼 성서 사전」의 원문을 소개해 두므로 독자 자신이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추리」의 인용문의 뒤 덧붙여 다음과 같은 문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nd always remained the more prominent part. But from the time that it began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punishment, a traverse piece of wood was commonly add ... about the period of the Gospel Age crucifixion was usually accomplished by suspending the criminal on a cross piece of wood.

번역하면 「그리고 항상 보다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형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로부터는 통상 가로목의 나무가 더해지게 되었다. ...복음서의 시대의 무렵에는 십자가형 통상, 범죄인을 나무를 교차한 십자의 나무 위에 매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한번 더 영어의 원문에서도 한국어의 번역문이라도 편한 것을 읽어 주셨으면 한다. 「임페리얼 성서 사전」은 협회가 주장하듯이, 예수가 형주에 매달렸다 등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형구였던 세로의 곧은 선에는 이득고 가로대가 더해진 것 그리고, 예수의 시대에는 십자로 짜여진 십자가가 형구로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증언 하고 있는 것이다.

「추리」의 저자들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문장을 모를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백번 감안하고, 중요한 곳을 생략 하거나 도중에서 인용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의 주장은 권위 있는 「임페리얼 성서 사전」에 의해 지지를 받아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우연히 잘못해 버렸다? 만약 그런 것이면 인간 누구라도 하는 것이다. 허락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협회의 악인용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만 범해 버린 미스로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처럼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직하다.

인용되고 있는 사전은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인 「형주」의 부분을 선택해 전체를 그 처럼 읽히도록 가공하여 제시 한다는 것은 지적 사기 행위이다. 학문의 세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허락해선 안 되는 행위이다. 더더욱, 종교단체에서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절대자의 존엄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심지어 그런 단체가 절대자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욕을 듣는 문제를 떠나 절대자를 우습게 만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필자는 증인의 분들에게 이 내용을 찾아 확인하시면서 읽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본서를 집필하고 있다. 증인분에게 있어서 필자의 언명이 너무 비방적이고 트집잡기 식이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 자신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말해야 할 일을 당연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상대가 워치타워협회여도 동료의 그리스도교인이나 그 지도자여도 변함없다. 반대로, 동료이면 좀더 좀더 직설적이고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몇개의 학회에 소속해 있다. 그 어느 학회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예외는 없다.

학회는 이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하는 학회조차 협회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실로 정직하다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분들은(필자가 만난 증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한 사람들임) **협회의 부정직함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부정이나 악을 알면서 그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당신이 야외봉사나 호별방문시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나 1914년이나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해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명백히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저명한 책들을 왜곡시켜서 **그대로 읽어주도록** 만든 그 추리책등과 **제본잡지등을 전하고 다닐 때** 당신은 결국 그 속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악을 지적할 경우에는 TPO(때와 장소와 기회)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든지 지적하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권력이나 보복을 무서워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필자는 증인들에게 협회의 악인용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일본 지부의 책임자들에게 9통의 계속 편지를 보내 왔다. 유감스럽지만 한 통의 대답도 주지 않았다.

마침내는 여호와께서 바로잡아진다. 그 때까지는 먼저 앞서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협회의 리더는 것처럼 대답해 올 것이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에 있어 무례한 것으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조직의 리더에게 우리들의 부정이나 위만성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다면 그 조직은 건전하다. 만약, 그것을 덮어 가리려고 한다면 그 조직은 바람에 나는 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5. 크실론(xy'lon)에 대해

협회가 예수의 형구는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예수의 형구에 대해 신약 성서가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추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추 217면 3항 십자가 ***

그 경우가 하느님의 아들의 처형과 관련이 있는가? 성서 역시 사용된 형구를 가리키는 데 크실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리델과 스콧 공편 「희영 사전」에 의하면 그 단어는 이와 같은 뜻으로 정의된다. “잘라서 쓸 수 있게 준비된 목재, 장작, 재목 등 … 나무 토막, 통 나무, 들보, 지주 … 몽둥이, 곤봉, … 범죄자를 처형하는 데 쓰인 … 수목 기둥, 나무.” 또한 동 사전은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에 관해” 말하면서 예로서 사도행전 5:30과 10:39을 언급한다. (옥스퍼드, 1968년판, 1191, 1192면) 그러나 「개역」, 「새」, 「개표」, 「예루살렘」, 「두에」 등은 그 구절에서 크실론을 “나무”로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을 갈라디아 3:13; 신명 21:22, 23과 비교하라.)

「추리」를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신약 성서는 예수를 매단 형구에 대해서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리델과 스콧의 그리스어 사전에 의하면 「크실론」은 한 개의 나무이다.
- 3) 그 사전에 의하면 「크실론」은 신약 성서에 있어서는 「십자가」로 번역된다.
- 4) 그러나, 그 「크실론」은 몇 개의 성서에서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예수의 형구는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이다.

이러한 기술 중에서, 다음의 점은 올바르다.

- 1) 사도 5장 30절, 10장 39절은, 사도 1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첫째 2 장 24절의 5개소에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다.
- 2) 크실론의 원래 의미는 「나무」이다.
- 3) 「추리」가 소개하고 있는 번역 성서는 크실론을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약한 논의의 전개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한 개의 봉**이라고 하는 의미 **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물론 협회 출판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게 된다. 그런데 「크실론」은 단순한 한 개의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추리」는 「크실론」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용례를, 「…」라고 하는 생략형으로 삭제하고 있다.**

상기 인용의 「추리」는 **리델과 스콧의 사전 중에서** 불로 태우기 위해 잘게 잘린 장작, 건축 자재로서의 재목(고린도 첫째 3:12에 이 용례를 볼 수 있다) 경찰이 사용하는 곤봉, 범죄인의 목을 묶어 처형되는 등 한 개의 나무로부터 만들어진 것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환전인이 사용하고 있던 책상이나 아테네의 극장의 의자 등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델과 스콧의 사전」에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추리」는 이러한 용례를 주의 깊게 제외하고 있다.** 필자에게는 의도적으로 정련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독자는 어떻게 생각될까?

어쨌든 「크실론」은 다만 단지 한 개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크실론」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리델과 스콧의 사전은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신약 성서에 있어서의 「크실론」은 십자가를 가리킨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추리」가 소개하고 있는 성서는 모두 「크실론」을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번역자들이 예수를 매단 형구를 한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원어에 가까운 의미를 번역하기 위해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중미는 「십자가」를 상정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NIV도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표상적 언급(figurative reference to the cros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왜 예수의 형구에 대해서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되었는가? 이것은 극히 흥미 있는 신약 성서의 연구테마이다. 이 「크실론」은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메시지로써 말해지는 패턴화 된 문장(이것을 현대의 성서학에서는 「케리그마」라고 부르고 있다)중에 나온다. 케리그마라고 해지는 것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최초 때로부터 중심적인 메시지로써 말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주로 유대인의 배경 안에서 유대인을 의식해서 말해진 메시지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크실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사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그처럼 되었는가?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서의 번역자가 신명기 21:22-23에 나오는 「에이트」에 대해 「크실론」이라고 하는 역어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은 없고 사형을 위한 형구는 모두 「나무」를 의미하는 「에이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형구가 형주이어도 십자가여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이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 「에이트」는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서의 역어로부터 그리스어로 나타낼 때는 「크실론」이 사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크실론」은 형주의 의미로도 십자가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형도구의 의미를 나타냈던 것이다.

유대인이 「크실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형구의 형태를 문제 삼을 일은 없었다. 오히려 신명기21:22-23로부터 사형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인 것을 강하게 의식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 출신의 초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용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선포했고 그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맡아 전인류의 속죄의 죽음인 것을 강조했다. 초대의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말하기에 즈음해(사도 5, 10, 13장의 모든 것이 유대인에게 말해진 문장 중에 나오는 것에 주의), 유대인에게 친밀감있는 「크실론」을 사용했던 것에는 이상과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스타우로스」는 일반적으로(따라서, 유대인의 사이에서도) 로마 정부에의 반역죄를 상징시키는 말이다. 그에 반해 「크실론」은 신의 저주를 몸에 받는 것을 상징시키므로 초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케리그마에 대해서는 이 말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해설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다. 또, 베드로 첫째 2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충만히 받는 겸손함을 의식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크실론」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된 것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스타우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갖지 않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크실론」이 「나무」를 의미하므로 예수의 형구는 한 개의 형주이었다, 라고 협회가 결론 짓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 「크실론」이라고 하는 말이 형구의 형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협회와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면 환전인의 책상도, 한 개의 형주가 아니면 안되게 된다. 극장의 의자까지도 한 개의 형주가 되어 버린다. 아무리 협회여도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상의 논술은 예수의 형구가 형주라고 단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에 대한 검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술에서는 예수의 형구가 전통적인 십자가인 것을 아직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회 출판물에 대한 대답은 우선 이것으로 접는다. 신약 성서가 예수의 형구에 대해 「크실론」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예수는 형주에 매달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협회 출판물의 단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한다.

6. 라틴어의 크룩스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에 해당되는 라틴어는 「크룩스」이다. 협회에 의하면 이 말도 형주를 의미해 십자가가 되는 것은 후대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

1966년 12월 15일호(758-59페이지)의 「파수대」지는 1950년에 협회와 침례파 교회의 목사들과 이루어진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그 기사에 대해서도 예수가 형주에 붙여진 것의 최종적 근거로서 「크실론」을 들 수 있고 있지만 그 외에 라틴어 「크룩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는 아직 확인 못했음)

「1950년 11월 15일호 「파수대지」(영문)은 5 페이지의 회답을 실어 그 중에 기쁨 부음을 받은 증인은 「침례파·레코드」가 공격한 점 모두에 임해서 「신세계역」의 올바른 결정을 변호했습니다. 오른쪽의 비난에 대한 기쁨 부음을 받는 증인의 회답의 일부를 다음에 표시.」

「귀지의 표제는 「십자가는 형주가 아니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절은 「십자가」 인지에 대해 비교적 「형주」를 사용하는 것은 기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경솔한 말을 쓰기 전에, 「신세계역」 부록의 768-771 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고통의 기둥」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 좀 더 신중한 논설을 쓸 수가 있었겠지요. 거기를 읽으면 이해대로 그리스인이 스타우로스, 라틴인이 크룩스라고 부른 형구는 당초 가로대가 없는 한 개의 형주이었습니다. ...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단지 「나무」라고 불러(사도 5:30. 10:39. 베드로 첫째 2:24),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9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나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귀지는 이러한 성구의 의미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매달려 죽은 형구는 단순한 형주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용이합니다만, 귀지의 기사는 이 점에 관해서 「신세계역」을 기묘하고 부정확한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논거를 1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자주-확인안된 내용을 번역만 했음)

「 「침례파·레코드」 지에 대해서는 「파수대」의 회답을 게재해 「신세계역」에 관한 잘못된 선전을 정정해 성서의 진리에 대한 방해를 없애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응답은 요브와 같은 증인들에 대한 목사의 적의 여호와에 대한 비방이 그 정도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필자는 1950년의 「파수대」지 및 침례파의 기관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입수할 못해서 정확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 언급하고 있는 「신세계역」의 768-771 페이지의 부록은 1950년에 출판된 영역의 「신세계역」 수중에 있으므로, 협회측이 쟁점으로 하고 있는 근거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상기의 기사 자체가 협회측의 근거는 그 곳에서 충분히 진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사에서 예수의 형구가 형주라고 하는 근거는 우선, 「그리스인이 스타우로스, 라틴인이 크룩스라고 부른 형구는 당초 가로대가 없는 한 개의 형주」이며 예수의 형구에 대해 「크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우로스나 크실론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라틴어의 크룩스가 「가로대가 없는 한 개의 형주」이었던지 아닌지를 검증하자.

상기의 「파수대」지의 기사는 「신세계역」의 부록을 참조토록 설명하고 있다. 그 라틴어 크룩스의 부분은 1985년판의 참조 자료 첨부 성서의 설명(1769페이지)과 거의 같다 것으로 후자를 인용해 두자.

「루이스와 쇼트의 라틴어 사전은 크룩스의 기본적 의미로서 「죄인이 매달리거나 그 죄인을 달아 묶는 나무, 화목, 또는 목제의 다른 사형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기원전 1 세기의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의 저작 안에서는 크룩스는 보통 형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룩스의 후대에 지닌 의미입니다. 범죄자를 매달기 위한 1개의 형주는 라틴어로 크룩스·신프레스크(*crux simplex*)로 불렸습니다. 그러한 고문용의 형구의 1개가 유스트스·리프시우스(1547-1606년)에 의해 그 저서, 「데이·크루케·리프리·트레이스」(*De cruce libri tres*, 안트·워프, 1629년, 19 페이지)의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1770 페이지의 크룩스·신프레스크의 사진은 그 책으로부터 가지고 온 실제의 복사본입니다.」

1950년판의 부록의 최초의 부분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The fact that *stauros* is translated *crux* in the Latin versions furnishes no argument against [the "torture stake" doctrine]..... a cross is only a later meaning of *crux*. Even in the writings of Livy, a Roman historian of the first

century B.C.E., crux means a mere stake.

라틴어역에 대해 스타우로스가 크룩스(crux)로 번역된 사실은 그것(예수의 형구가 형주인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권위 있는 라틴어의 사전은 모두 연구자에게 쿠락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범죄자가 매달렸거나 매다는 그런 「나무, 화목, 또는 목제의 다른 사형도구」(루이스와 쇼트)」

1950년판의 설명의 논점이 명확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가 라틴어의 크룩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상 스타우로스도 십자가를 의미할 것이다.
- 2) 왜냐하면 라틴어의 크룩스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동의어이다.
- 3)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라틴어의 크룩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무, 화목, 또는 목제의 다른 사형도구」였기 때문이다.
- 4) 라틴어의 크룩스가 십자가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후대의 일이다.

이 논의에도 몇 개의 속임이 있다.

우선 루이스와 쇼트의 라틴어의 사전을 올바르게 인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 사전은 「크룩스」의 한 단어의 뜻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용법과 특수한 용법이 있는 것을 해설하고 있다. 협회 출판물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자 뿐이며 후자를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용례는 아니고 특수한 용례인 것이다.

「파수대」지는 크룩스는 「당초」형주를 의미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느 말의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어원, 혹은, 최초로 사용된 의미를 탐색해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생각한다. (혹은 순수한 의미인것 같이) 그러나, 말의 의미는 시대와 함께 변해가고 있으며 최초의 의미가 완전하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영어의 「nice」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영어에서는 「foolish(어리석은)」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고 wonderful라든지, pleasant라고 하는 의미이다.

라틴어의 크룩스에 대한 언어적 고찰에서도 같다. 최초 사형의 도구로서 한 개의 형주를 가리키는 일도 있었지만 점차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키게 되어 십자가가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과연 「후대」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가 큰 주안점이다.

참조 자료 첨부는 「「십자가」는 크룩스의 후대에 있어서의 의미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협회의 다른 출판물로부터 일반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4 세기 이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4세기 이후의 이 교도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길들여진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인가? 참조 자료 첨부 성서의 설명에서는 기원전 일세기의 로마의 역사가의 리비우스의 문헌을 주고 있다. 결국 후대라는 것은 4세기 이후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유도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 시대보다 전의 이야기이며 결국은 그 후대라는 것이 4세기 이후라는 것이 아니다.

앞의 루이스와 쇼트의 사전에 의하면 "Cicero의 문헌은 크룩스가 「십자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간접적 접근으로서의 신도 길들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Cicero는 기원전 1 세기에 활약한 로마의 시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세계역」의 부록은 유스투스 립시우스(1547-1606)(Justus Lipsius' book, De Cruce Liber Primus, page 19)의 서적으로부터 한 개의 형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에게 다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든지 가족에게, 이 그림을 보여 주면서 그 전의 페이지의 해설을 읽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립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형주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매달렸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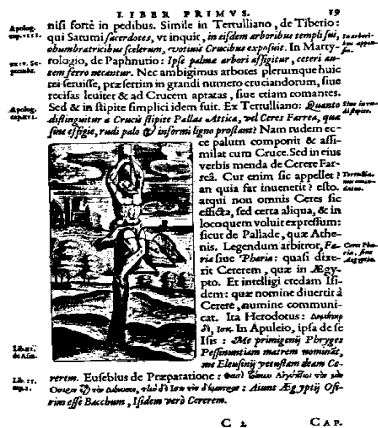
내가 시험해 본 바로 전원이 「물론, 형주라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이었다. 당신이 해 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일이 있다. 실은 1985년판의 「신세계역」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50년판의 것에는 이 그림(7)에 관계되어 「이것은 예수를 매단 방법이였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붙여져 있었다. 이 코멘트는 언제부터 삭제되게 되었는가?

필자의 수중에는 1969년판의 「그리스어 성서 크룩스 행간 삼입역」이 있다. 거기에는 그 코멘트는 기록되고 있다. (편집자주 - page 1155, Kingdom Interlinear Bible.: "We present herewith a photographic copy of his (Justus Lipsius') illustration on page 647, column 2, of his book De Cruce, Liber Primus. **This is the manner in which Jesus was impaled.**")

그런데 그리고 16년 후의 1985년판의 「그리스어 성서 크룩스 행간 삼입역」에는 없다.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필자의 수중에 「위치타워의 형주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라고 하는 1권의 서적이 있다. 그 12 페이지에 남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리·트그 교수에 의해 립시우스의 문장이 영어 번역되고 있다. **76년 10월 3일**에 된 것이다. 그것은 「신세계역」의 위만성이 폭로해진 기사이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립시우스(Lipsius)는 그의 서적의 647페이지에 「신세계역」에 게재하고 있는 그림(좌측상단의 그림)을 사실 싣고 있다.(좌측상단)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립시우스는 그의 서적에 대해 이 그림을 포함해 16 종류의 사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그 대부분은 십자가상에서의 괴로움을 그린 것이다). 「신세계역」가 소개하고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 개의 형주에 사형된 범죄자의 그림이었던 것이다. 즉, 16 종류의 1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우는 전통적인 십자가였던 그 그림으로부터 14 페이지 후의 661페이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좌측 하단)** 그 일단을 소개해 두자.

「이것은 잘못된 처형방법 중의 하나라고 단언해도 좋을지 나는 모른다. 이것은 「주의 십자가는 세로의 곧은 선, 횡단목, 아래에 놓여진 대좌, 위에 놓여진 타이틀의 판인 4개의 나무가 있었다.」 다음의 기록은 에이레나이오스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 「십자가의 구조 자체는 5개의 끝(터툴리안은 그것을 「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을 갖고 있다.

상기 page 19의 영어번역 :
 "Nor do we doubt that trees served very often for this purpose, particularly in a great number of crucifixions, either pruned lightly and adapted to a cross, or even leafy."

47
 finis tabella est, in qua corpus requiescit. Facit uerbo hinc
 ire, nec temerè contendit de aliòd mètre. Tamen Iulianus
 martyr, è quo sumpta hæc uidentur, sic de isto fine: *Kal. prid. sep.*
 ubi dicitur: *ubi dicitur: quod in medio defixum lignum, cui corpus ipsum
 etiam conuenit, in quo scripturæ sunt quæsi inscribuntur, qui crucifixi
 quæsi. Cornu id appellat, & uocare uult: quomodo apud in
 planâ hac tabellâ? Videndum ne uerque ille scriptor aliud
 intellegat à iam dicto sensu. Diuidunt crucem in quinque
 fines (scilicet Terullianus sicè appellat;) quatuor illos, qui
 notati sunt & monstrati: quoin-
 tum, quem in mediâ cruce
 collocant, ubi lignum tranf-
 uertim scindit transieq; (si-
 pitem) defixum. Hac confi-
 deratione, quinque sunt fi-
 nes: & unus ille siipax sed fo-
 cetus) facit terminus. Quod au-
 tem aiunt *in mehi & requiesce-
 re*: uerum est. corpus aceli-
 natur ei & quasi immittit à
 tergo. Augustinus hoc sensu
 scripsit. *Longitudinem crucis à 1440. latus
 cerpsi iugentem, cui corpus erat
 infixum. An totum corpus?*
 ius pedes tantum quod li-
 quet: sed adfixum in iugum
 que intellegit, nec scio an im-
 mium scripsit. Tamen in pi-
 cturis sculpturisque etiam
 præfata uestigium tabellæ huius exlate audivi: non ergo te-
 moret sperare. non certe à Christi cruce: de aliis, auda-
 cius. Quod enim uestigium in scriptoribus antiquis?*

Justus Lipsius' book De Cruce Liber Primus, page 47 says:
 "In the Lord's cross there were four peices of wood, the upright beam, the crossbar, a tree trunk (piece of wood) placed below, and the title (inscription) placed above." 주의 십자가는 세로의 곧은 선, 횡단목, 아래에 놓여진 대좌, 위에 놓여진 타이틀의 판인 4개의 나무가 있었다.

이종결은 수직으로 있고 또 이종결은 수평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하나는 한가운데에 있고 거기에 사람이 박히게 되는 것이다.」...그렇지만, 낡은 그림이나 조각물에 이판(몸을 매단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일어난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부터 좀 더 대담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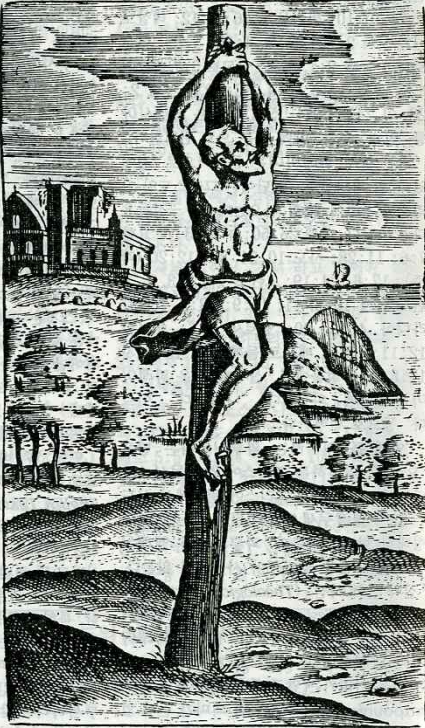
편집자 - 아래에 원서의 그림을 좀 크게 해서 제시한다.



(편집자 주 - zhang 님의 도움을 받아 아래 스캔을 덧붙인다. 이 그림은 85년판 신세계역에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은 그대로 크룩스행간삽입역에도 있다고 확인해 주셨다.)

부록 544

고전 그리스어에서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단 순히 곧은 기둥, 나무 기둥 혹은 기초 공사용과 같은 말뚝을 의미하였다. 동사 스타우로오는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다, 방책 혹은 울장을 치다를 의미하였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의 영감받은 필자들은 일반(코이네) 그리스어를 썼는데,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고전 그리스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동일한 것, 즉 어떤 각도로든 엇갈리는, 어떤 종류의 가로대도 없는 단순한 기둥 혹은 말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께서 못박히신, 고통을 주는 도구를 가리키는 데 크실론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였는데, 이 점은 크실론이 가로대가 없는 곧은 기둥이었음을 알려 준다. 그것이 이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크실론이 뜻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사도 5:30; 10:39; 13:29; 갈라디아 3:13; 베드로 첫째 2:24) LXX에는 에스라 6:11(에스드라스 둘째 6:11)에 크실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것은 울범을 범한 사람이 매어 달리게 되어 있는 들보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사도 5:30; 10:39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타우로스의 의미에 관하여 W. E. 바인은 그의 저서 「신약 단어 해설 사전」(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1966년 재인쇄) 제1권 256면에서 이렇게 말한다. "스타우로스(σταυρός)는 주로 곧은 말뚝 혹은 기둥을 의미한다. 그런 것에 범죄자들을 못박아 처형하였다. 그 명사 그리고 기둥이나 말뚝에 고정시킨다는 뜻의 동사 [스타우로오]는 둘 다, 두 개의 막

그림으로 묘사된 크룩스 심플렉스

립시우스는 그리스도의 형구는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인 것을 초대교부들의 증언으로부터 실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폭로되어도 「신세계역」은 「이것은 예수를 매단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코멘트만 삭제하고 형주에 매달린 사람의 그림 그 자체는 계속 게재하고 있다. 그 위만성이 지적되어도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코멘트만은 삭제해 그림 그 자체는 없애지 않는다. 이것이 정직함을 증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협회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7. 십자가는 이교의 심볼인가

워치타워협회는 그리스도교국의 십자가는 이교의 심볼에 유래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계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말로 올바른 것일까? 함께 검증해 보자.

협회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에 기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교에 기원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추리」는 Britannica 백과사전(1946년판) 제6권, 753 페이지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 추 218면 - 219면 십자가 ***

그리스도교국의 십자가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시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로, 여러 형태의 십자가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는 각가지 상징물들이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인도, 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 그리스도교 시대 이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종교적 상징물로 사용한 예는 거의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얼마의 자연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946년판), 6권, 753면.

필자는 몇개의 도서관을 찾아 1946년판의 Britannica를 체크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 판을 볼 수 없었다. 거기서 수중에 있는 1988년판의 Britannica(753페이지)로부터 「추리」가 인용하고 있는 곳을 살펴본다. 8)

8) 아래는 편집자가 가지고 있는 2004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에서 제공하는 내용임 (영문은 원본, 한글은 한글판 브리태니커 2002년)

十字架 cross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상징.

the principal symbol of the Christian religion, recalling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and the redeeming benefits of his Passion and death. The cross is thus a sign both of Christ himself and of the faith of Christians. In ceremonial usage, making a sign of the cross may be, according to the context, an act of profession of faith, a prayer, a dedication, or a benediction.

십자가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일과 그의 수난과 죽음이 가져다준 구원의 은총을 상기시킨다 (→ 색인 : 십자가형).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교도의 신앙을 동시에 나타내는 상징이다. 의식을 집행할 때 십자가 상징을 갖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신앙고백·기도·봉헌·축복 등을 뜻한다 (→ 색인 : 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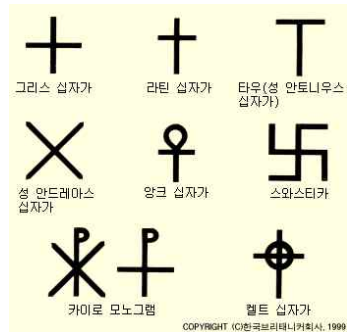
There are four basic types of iconographic representations of the cross: the crux quadrata, or Greek cross, with four equal arms; the crux immissa, or Latin cross, whose base stem is longer than the other three arms; the crux commissa, in the form of the Greek letter tau, sometimes called St. Anthony's cross; and crux decussata, named from the Roman decussis, or symbol of the numeral 10, also known as St. Andrew's cross. Tradition favours the crux immissa as that on which Christ died, but some believe that it was a crux commissa. The many variations and ornamentations of processional, altar, and heraldic crosses, of carved and painted crosses in churches, graveyards, and elsewhere, are developments of these four types.

십자가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도안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① '크룩스 쿠아드라타'(crux quadrata): 그리스 십자가라고도 하며, 네 팔의 길이가 똑같다. ② '크룩스 이미사'(crux immissa): 라틴 십자가라고도 하며, 기본 줄기가 나머지 세 팔보다 길다. ③ '크룩스 코미사'(crux commissa): 그리스 문자 '타우' 모양이며, 때로 성 안토니우스의 십자가라고도 부른다. ④ '크룩스 데쿠사타'(crux decussata): 로마의 '테쿠시스' 또는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라고 한다. 여러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크룩스 이미사'라고 하지만, '크룩스 코미사'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4가지 십자가 모양에서 행렬·제단·문장(紋章) 등에 쓰이는 십자가, 교회·묘지 등에서 무너를 넣고 색을 칠해 쓰는 십자가 등 많은 변형과 장식이 발견됐다.

Cross forms were used as symbols, religious or otherwise, long before the Christian Era, but it is not always clear whether they were simply marks of identification or possession or were significant for belief and worship. Two

pre-Christian cross forms have had some vogue in Christian usage. The ancient Egyptian hieroglyphic symbol of life—the ankh, a tau cross surmounted by a loop and known as crux ansata—was adopted and extensively used on Coptic Christian monuments. The swastika (q.v.), called crux gammata, composed of four Greek capitals of the letter gamma, is marked on many early Christian tombs as a veiled symbol of the cross.

십자가 상(像)들은 그리스도교 시대보다 훨씬 전에 종교나 그외의 상징들로 사용되었지만, 이 십자가 상들이 단지 신분이나 소유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는지, 아니면 신앙이나 숭배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그 이전에 쓰이던 2가지 십자가 형상들이 널리 유행했다. 콥트 그리스도교도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ankh[지팡이를 얹은 '타우' 십자가로 '크룩스 안사타'로 불렀음])를 받아들여 신앙 기념물에 널리 썼다. '크룩스 감마타'(crux gammata)라고도 하는 만(卍 swastika)자형 십자가는 그리스 문자 감마의 대문자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도들의 무덤에 십자가의 은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시대 이전의 그리스도교도들은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조롱을 받거나 위협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개종(改宗)한 뒤에 죽음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없애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키로



「십자가 상(像)들은 그리스도교 시대보다 훨씬 전에 종교나 그외의 상징들로 사용되었지만, 이 십자가 상들이 단지 신분이나 소유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던지, 아니면 신앙이나 숭배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46년부터 88년의 40년간에 십자가에 관해서 얼마만큼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 성과가 Britannica의 사전에 반영되고 있는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같은 계열의 사전인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이교의 관계에 대해서 88년판은 매우 상반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일반론이지만, 고대 중근동의 종교적 사정은 연구하면 할수록 단정적인 결론을 내는 것에 주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떠한 책이든 새로운 판에 대해 정정되고 있으면, 낡은 판의 견해는 파기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리」가 낡은 판의 Britannica 사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는 지금은 그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크나큰 오류에 젖어 있다.

협회는 「아메리카나 백과 사전」을 또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 십자가의 항목은 십자가가 낡은 시대부터 심볼로서 이용되어 온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교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한 표현에 종지 하고 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오래된 보편적인 심볼로서 알려져 있다. 깊은 종교적인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부여해 왔다.」

십자가, 혹은 거기에 관계가 있는 어떤 종류의 디자인이 고래부터 종교적인 혹은 그 외의 심볼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할 필요는 없다.

(chi-rho) 도안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물로 권장했다. 이 상징물은 350년경부터 그리스도교 예술에 소개가 되었으며 표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Before the time of the emperor Constantine in the 4th century, Christians were extremely reticent about portraying the cross because too open a display of it might expose them to ridicule or danger. After Constantine converted to Christianity, he abolished crucifixion as a death penalty and promoted, as symbols of the Christian faith, both the cross and the chi-rho monogram of the name of Christ. The symbols became immensely popular in Christian art and funerary monuments from c. 350.

For several centuries after Constantine, Christian devotion to the cross centred on the victory of Christ over the powers of evil and death, and realistic portrayal of his suffering was avoided. The earliest crucifixes (crosses containing a representation of Christ) depict Christ alive, with eyes open and arms extended, his Godhead manifest, even though he is pierced and dead in his manhood. By the 9th century, however, artists began to stress the realistic aspects of Christ's suffering and death. Subsequently, Western portrayals of the Crucifixion, whether painted or carved, exhibited an increasing finesse in the suggestion of pain and agony. Romanesque crucifixes often show a royal crown upon Christ's head, but later Gothic types replaced it with a crown of thorns. In the 20th century a new emphasis emerged in Roman Catholicism, especially for crucifixes in liturgical settings. Christ on the cross is crowned and vested as a king and priest, and the marks of his suffering are much less prominent.

After the 16th-century Protestant Reformation, the Lutherans generally retained the ornamental and ceremonial use of the cross. The Reformed churches, however, resisted such use of the cross until the 20th century, when ornamental crosses on church buildings and on communion tables began to appear. The Church of England retained the ceremonial signing with the cross in the rite of Baptism. Since the mid-19th century, Anglican churches have witnessed a revival of the use of the cross. The crucifix, however, is almost entirely confined to private devotional use. See also True Cross; crucifixion.

콘스탄티누스 이후 수세기 동안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교도들의 열정은 그리스도가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묘사하는 것을 피했다. 십자가에 달린 초기의 그리스도 상들(그리스도의 모습을 포함한 십자가들)은 그리스도가 장에 찔려 인성(人性)으로는 죽은 것으로 묘사했지만, 여전히 눈을 뜨고 팔을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신성(神性)으로는 살아 있음을 나타냈다. 9세기에 들어와 예술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실제적인 면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서양에서는 그림이든 조각이든 십자가 상의 고통과 고뇌를 더욱 정교하게 표현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십자가 상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후기 고딕 양식은 그것을 가시 면류관으로 바꿔놓았다. 20세기에 들어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히 의식과 관련된 십자가 상을 새로이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왕관을 쓰고 왕과 제사장의 옷을 입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고난의 표식들은 훨씬 덜 두드러진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장식용과 의식(儀式)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했다. 개혁신교도들은 20세기만 해도 십자가를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후 교회 건물과 성찬식 탁자에 십자가 장식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국국교회에서는 세계적 때에 십자가 성호를 긋는 관습을 계속 유지했다. 19세기 중반 이래 성공회는 십자가를 다시 사용했으나 거의 개인의 신앙 용도로만 활용했다.

문제는 그러한 그리스도교 이전의 십자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심볼과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와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라는 것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양자 사이에 유도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생각이다. 협회의 논의는 이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추리」는, G·S·타이악이 저술한 「종교 의식·건축·미술에 있어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서적(런던, 1900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소개하고 있다(1 페이지, 영문).

***** 추 219면 2항 십자가 *****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은 나라에서 십자가가 거룩한 상징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이상스럽지만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 그리스의 바커스, 티레의 담무스, 칼데아의 벨, 노르웨이의 오딘, 이 모든 신들을 상징하기 위하여 숭배자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였다.”—G. S. 타이악 저, 「의식과 건축 및 예술상의 십자가」 (*The Cross in Ritual, Architecture, and Art*)(런던, 1900년판), 1면.

논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기 소개되고 있는 십자형의 상징의 진위성은 묻지 않기로 한다. 오히려 이 인용 부분은 타이악의 서적의 1페이지에 나오지만 **그 같은 서적의 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In all this the Cristians of the first age would have rejoiced, claiming it as a world-wide prophesy of the Cross of the Redeemer. (이 모든 일에 대해 최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구세주의 십자가의 세계적으로 퍼진 예언으로 선포하면서 많이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 타이악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십자의 형태는 이교의 세계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알려져 이용되어 왔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구세주의 십자가」로서 선언했다**라는 것을 명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의 시대」(the first age)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에 주의해 주셨으면 한다. 그것은 일세기의 초대 교회의 시대를 가리킨다. 결코 워치타워협회가 주장하듯이 4 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자 여러분 부디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왜 협회는 타이악의 서적의 3페이지는 소개하지 않고 1페이지만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교의 십자가가 고대의 이교의 심볼에 유래한다는 것, 즉 자신들의 교리의 논지를 펼침에 있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저자 타이악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 반대의 것,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 반대의 내용을 협회는 타이악의 서적의 일부를 인용해 논술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정반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언설 중에서 그 사람의 주장에 맞는 곳 일부만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한 사람은 선한 양심상 결코 좋은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협회가 이 문제를 취급할 때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이 사용되고 있다.

- 1) 십자가는 이교의 심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 2) 배교 한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를 주장하고 있다.

3) 십자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교는 이교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의의 속임이 있다. 우선 이교의 심볼로 여겨지는 십자가는 결코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와 동일하지 않다.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라 하더라도 바빌론의 담무스라 하더라도 (편집자주-이하의 내용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와의 연결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비정상적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그리스도교가 십자가를 심볼로 한 배경에는 이교와는 완전히 무관계한 사건이 존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심볼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전에서도 밝히듯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심볼을 이교의 심볼과 관련짓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여러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가령 이교에 이용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즉,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이교성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소중히 된 결과 심볼화 된 것이며, 그 심볼간에 얼마인가의 형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역사적 관련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7-1. 담무스의 신

워치타워의 출판물은 담무스의 코우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바빌론의 담무스 신은 십자가에 의해 상징되었다. 그리스도교가 심볼로 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 담무스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는 이교에 유래해 우상 숭배가 된다.

과연, 이 주장은 정당한가? 검증해 보자.

협회 출판물은 담무스 신과 십자가의 관계를 당연한가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수대」 지 1964년 10월 1일호(58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십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세기 전부터 인도, 중국,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원래 바빌론의 이교도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립의 십자는 바빌론의 신 담무스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신 솔의 심볼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십자는 담무스 신의 머리 글자 「T」의 원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담무스신이 T라고 하는 십자에 상징되었다, 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주지 않는다.

1965년 2월 1일호의 「파수대」 지(89 페이지)는, 에스겔 8장 14절에 나오는 담무스신과 십자가를 묶고 있다.

「여호와와 그의 전 앞에 앉아 바빌론의 남신 담무스 신을 위해서 온 배교의 유대인의 여자에게 있어 십자가는 신성한 상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여자들은 실제로는 바빌론을 건설한 강력한 사냥꾼 님로데를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어확인못했음)

여기에서는 담무스 신 때문에 온 여자에게 있어, 「십자가는 신성한 상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에스겔 8장 14절에 십자가를 등장시

켜 이와 같은 담무스 숭배를 십자가의 숭배와 묶어 설명하고 있는 주석서는 1권도 없고 성서 그 자체에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담무스 신이 십자가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협회 출판물의 사전 「통찰」이나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Aid to Bible Understanding)」조차 「담무스」의 항에 대해 십자가와의 관계는 한마디도 진술되지 않았다.

협회가 것처럼 말하는 근거를 주고 있는 것은 「깨어라」 1989년 1월 22일호(22 페이지)의 「십자가는 바빌론에 유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칼럼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 개89 2/1 22면 제 2부: 기원전 2369-1943년 사냥꾼, 탑 그리고 우리! ***

「신약 단어 해설 사전」(*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은 더욱 자세하게, 십자가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한 것이며, ...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담무스의 첫 글자인 신비한 글자 타우의 모양이므로)”라고 알려 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지적되고 있는 「신약 성서 용어 해설 사전」은 물론 바인의 사전이다. 그 사전이 십자가와 담무스 신과 관계 짓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바인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바인의 사전은 일반의 독자를 위해서 해설한 파풀러인 서적이다. 따라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설로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적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담무스 신과 십자가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어떠한지는, 유감스럽지만 필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협회가 주장하듯이, 담무스 신은 T라고 하는 심볼에 의해 나타내져 그 형상은 어떠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가정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자. 만약, 담무스 신이 T라고 하는 심볼에 의해 나타내져 그 심볼이 숭배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더라도, 협회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교의 심볼과 담무스 신의 심볼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교의 십자가가 담무스신과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고 T의 글자의 형태가 아니면 안 된다. **혹은 왜 T의 형태로 부터 십자의 형태에 변화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십자에 의해 담무스의 신을 상징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도교에 십자가가 받아들여져 가는 과정에서, 담무스 신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협회 출판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의 숭배자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담무스 신의 숭상과의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여도 그 이외의 누구여도 괜찮다. 협회가 그리스도교와 담무스 신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이상은 양자의 접점이 되는 역사적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심볼을 담무스신의 T자형의 심볼과 묶자고 하는 것은 상상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7-2.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

다음에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에 대해 생각하자. 크룩스·안사타란, T자 위에 엔이 오르고 있는 도형으로 이집트에서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협회 출판물은 *이 크룩스·안사타는 성 숭배의 상징이었다*, 라고 반복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제일권, 1239페이지).

*** 통-1 1249면 신들과 여신들 ***

이집트의 조각과 그림에는 신성한 상징물인 크룩스 안사타가 자주 등장한다. 이른바 생명의 상징이라는 이것은 “T”자 모양 위에 타원형 고리가 달린 형태로서 아마도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합쳐 놓은 것을 상징하였을 것이다. 이집트의 신들은 흔히 크룩스 안사타를 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2권, 530면 사진.

이 기사는 크룩스·안사타가 「남녀의 생식기의 결합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이집트에 한정하지 않고 고대의 다양한 사회에 있어 여러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심볼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남녀의 생식기와 묶어 해석하고 있는 학자를 필자 자신은 찾아낼 수 없었다.

이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에 대해서도 위의 원형을 영원을 나타내 아래의 T자는 생명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 관계되어 2개의 사전의 견해를 소개해 두자. 우선, 협회 출판물도 잘 인용하는 「아메리카나 백과 사전(1988년판)」이다.

「고대 이집트인은 T자형의 십자가를 그 위에 와야 할 생명의 표시로서의 엔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이 형태는 크룩스·안사타로서 알려져 있지만 생명의 심볼(타우)과 영원의 심볼(엔)을 묶은 것이다. 타우가 어떻게 해 생명의 심볼이 되었는가는 모른다. 페니키아인이나 앗티카인에 있어서는 그 같은 심볼이 성스러운 지혜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십자아래에 엔이 놓여졌을 경우에는 「정통적인」의 의미에 대한 「선」을 의미했다. 이러한 엔의 사용법은 최종적으로는 마음을 대표하게 되었다. 엔이나 달 모양과 얽히게 할 수 있어 그려져 있는 십자가는 고대의 사람들에게 의해 천문학적인 심볼로서 이용되고 있다.」

하나 더 이것도 또 협회 출판물이 자주 인용하는 「국제 표준 성서 사전」의 견해를 소개해 두자(827페이지).

「인도, 시리아, 페르시아, 유럽, 특히 이집트에 있어, 후기 석기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의 다양한 표본이 나온다. 이집트의 상징에 대해서는, T의 십자가가 일반적이며, 그 형태는 이집트의 십자가라고조차 말해지고 있다. 이집트인의 사이에서는, 십자가는 신적인 것과 영원의 생명의 심볼이었다. 스페인인의 정복자는 잉카인이나 아즈텍 사람에게 따라서 심볼로 여겨진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마, 4개의 계절, 혹은, 4개의 방위를 나타낼지도 모른다.」

이 해설에 의하면 「이집트인 사이에서는 십자가는 신적인 것과 영원의 생명의 심볼」이었던 것이다. 「아메리카나 백과 사전」도 「국제 표준 성서 사전」도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를 남녀의 생식기와 연관짓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증인들은 「추리」를 꺼내, H·캣트나저 「성 숭배의 역사 개설」(런던, 1940년)의 16, 17 페이지를 인용하여 반론할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 추 219면 4항 십자가 *****

“이집트의 기념비와 무덤에서는 반드시 각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발견되는데 수많은 권위자들은 그것을 남근(남성 성기의 상징) 혹은 성교의 상징이라고 본다. ... 이집트의 무덤에는 크룩스 안사타[윗 부분에 원 혹은 손잡이가 달린 십자가]가 남근과 나란히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H. 커트너 저, 「성 숭배의 역사」(*A Short History of Sex-Worship*), (런던, 1940년판), 16, 17면; 또한 「비그리스도교 십자가」, 183면 참조

그러나, 증인의 분들에게 알아 주셨으면 한다. 이 인용도 또 오해를 주는 부정확한 것이다. **사실은 생략 된...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다.**

Baring-Gould is of the contrary opinion and refuses to identify the cross with the phallus. (Baring-Gould 는 반대의 의견이며, 십자가를 남근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생략 된 부분은 「추리」가 소개하고 있는 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리면, **저자 커트너가 논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게 된다.** 커트너는 어느 쪽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자가 조립하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은 것이고 「추리」가 생략 한 부분은 결코 생략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날려 읽으면, 저자의 논술이 완전하게 오해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필자에게는 커트너는 「추리」에서 생략 한 사람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 근거는 아래에 얘길하겠고, 만약 그렇다면, 이 「추리」의 인용편도 또 사기적 행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커트너의 서적은 「추리」가 인용하고 있는 문장의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말하고 있다. 이 곳도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용해 두자.

The question of their connection is still hotly disputed. That the cross was a sacred sign long before Christ is supposed to have died upon one is conceded by Baring-Gould, for he believes that the cross 'formed a portion of that primeval religion, traces of which exist before the whole world among every people'.

번역하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되기 전, 그 때부터 아득한 이전부터 성스러운 표시였던 것은 Baring 과 Gould 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가 「원시 종교의 한 부분을 형성했고, 그러한 흔적은 온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민족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추리」가 단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성과 십자가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의 다름이 있어, 그것은 현재도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추리」의 저자는 이 부분도 인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추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한 반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 인용하고 있지 않는 「추리」의 저자

는 자설을 변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부분만큼을 소개하고 있게 되기 때문이다.

「추리」는 왜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물론, 크룩스·안사타를 성적 결합과 묶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거기에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추리」가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서적의 저자 커트너가 예수의 형구는 십자가였다고 명언하고 있는 것은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커트너의 서적은 50년 이상이나 전의 것이다. 현대의 종교학자나 고고학자의 사이에는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통찰」이나 「추리」와 같이 크룩스·안사타를 남녀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필자가 간과했을 수도 있다. 최근의 학자 중에서 협회가 말하고 있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서적이거나 논문을 아시고 계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 다음의 판으로부터는 정정하는 것을 약속 한다.

그럼, 협회는 왜 이 정도까지 크룩스·안사타를 성 숭배와 관계 짓는 것에 구애되는 것인가? 「파수대」지 1964년 10월 1일호(587페이지)에 회답이 있다.

「게다가 백과사전은, 고대 이집트에 있어 십자가 음란한 성 숭배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인이 이용한 십자는 ANK(크룩스·안사타, 받는 사람이 있는 십자)로 불려 이것은 T자형의 정상에 타원형의 받는 사람을 붙인 것이어서 남녀의 생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은 이교의 상징인 이 음경 십자를 집 안에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교의 이집트에 있어서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 등에 있어도 음경형의 사용은 변창합니다. 「T」의 글자를 본떠 세운 교회당도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성베드로 사원 중앙 회당의 문에는 십자와 타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거둔 분묘에는 다수의 십자가 사용되었습니다만 오늘의 묘지는 십자나 타원포함의 십자마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성 숭배를 상징하는 십자를 교회당이나 묘지의 십자가와 관련지을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원래 십자에는 성적인 더러움이 항상 따라다니는 심볼이므로, 그러한 십자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도 또한 더러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같은 논리가 1968년 5월 15일호의 「파수대」지(318-19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크룩스·안사타로 불리는 이집트의 십자가는 상부에 고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편성은 남녀의 생식기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여성의 상징 즉, 힌두교로 음부(여)로 불리는 고리에 대해, O·A·월저 「성의 성 숭배」의 359페이지에 이렇게 표시해지고 있습니다. 「크룩스·안사타((무늬)격이 붙은 십자가)는, 인도, 압사 리어, 바빌론, 이집트에서 스웨덴, 덴마크(고대 북유럽) 및 서구 대륙에 이를 때까지 온 세상에서 이용되었다...그것은 이집트인의 T형 십자장 즉 생명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여성의 음부(여)와 남성의 T자형 십자가의 결합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물에 십자가를 붙여 종교적 예배에 십자가를 이용하는 교회는 이교의 숭배를 행하고 있게 됩니다. 이교화 된 숭배가 진정한 신의 시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두 이러한 바빌론적 숭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진리를 가지고 창조자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시18:4.」

여기에서도 역시 크룩스·안사타가 성 숭배와 관련있다는 것을 강조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라고 이론을 진행시키고 있다. 즉, **크룩스·안사타가 남녀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건물에 십자가를 붙여 종교적 예배에 십자가를 이용하는 교회는 이교의 숭배를 행하고 있다」** 근거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냐는 교회당에 십자가가 심볼로서 달리고 있는 것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크룩스·안사타의 이교성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십자가가 가지는 더러움을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겨 그 십자가를 심볼로 하는 그리스도교국은 이교적이어서 더러워진 조직이다, 라고 설득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추리」가, J·가니어 대령의 「사망자의 숭배」(런던, 1904년, 226 페이지, 영문) 말하는 서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하기도 한다.

*** 추 219면 3항 십자가 ***

“크룩스 안사타’형 십자가는 … 이집트의 사제 및 최고 승원장 겸 왕이 태양신 사제인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다. 또한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라 불리었다.”- 「죽은 자의 숭배」(The Worship of the Dead)(런던, 1904년판), 커널 J. 가니어 저, 226면.

이 인용에는 문제가 있다. 사실 가니어 대령은 같은 책의 225페이지에서

「십자가에 붙여진 죄는 구제이다. 그 처럼 할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의 십자가에 의한다.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즉, 저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교로 보여지는 다양한 십자가와는 완전히 이질적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상기의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놀랐다. 가니어 대령의 견해를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추리」는 가니어 대령의 서적의 일부를 예수의 십자가는 이교에 유래한다고 하는 협회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니어 대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협회는 이 저서를 이용해 정 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추리」가 취급하고 있는 테마에 관한 대령의 견해는 필자가 소개한 상기의(225페이지의) 문장에 있다. 따라서 「추리」는 그 문장을 소개해야 한다.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장을 인용하는 것에 의해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말 부정직하기 짝이 없다. 통상 그러한 논술은 용서되지 않는다. 여호와와의 증인의 세계에서는 상관없는 것일까? 일반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단번에 신용을 잃어 버린다.

8.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에 들어 온 배경

협회는 초대 그리스도교는 배교 해 4 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교에서 유래하는 십자가가 교회에 들어 왔다, 라고 가르친다. 십자가를 이교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무렵에 십자가의 심볼이 그리스도교안에 퍼져 갔다는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국제 표준 성서 사전」이 말하고 있는 것(827페이지)를 소개해 두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었던 것으로 이(십자가의) 그림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의 제일의 심볼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예술에 있어 여러 가지 교안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공의 심볼로서 제한없이 사용되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이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협회 출판물의 기술은 표현의 섬세한 점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진술이다. 예를 들면 「깨어라」 1984년 9월 22일호(12 페이지)의, 다음과 같은 기술이다.

***** 깨85 6/1 14면 십자가는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가? *****

이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이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그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명성, 인기 및 권력에 있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동시에, 십자가는 교회의 공식 상징물이 되었으며, 점차 종교 건물들을 장식하였고, 언덕 위나 산꼭대기에 그리고 교차로와 광장에 세워졌다. 그것은 집의 벽에 걸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에 걸었다

혹은, 「파수대」지 1987년 8월 15일호(21 페이지)의 진술도 같다.

***** 파87 8/15 21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인가? *****

기원 312년에, 지금의 프랑스와 영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처남인 이탈리아의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 도중에 콘스탄티누스는 환상—“이것으로 승리하라”를 의미하는 “호크 빈케 (*Hoc vince*),”라는 글자가 새겨진 십자가를 보았다고 한다. 승전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를 군기(軍旗)로 삼았다. 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

그 3페이지 후의 24 페이지의 「*** 복수 기사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 고난 사건에 대한 예술적인 의미로서의 십자가의 사용은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전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그레이던 F. 스나이더 교수 저, 「안티파켄-콘스탄티누스 이전 교회 생활의 고고학적 증거」(*Ante Pacem-Archaeological Evidence of Church Life Before Constantine*) (1985), 27면.] 라고 하는 말도 언급한다.

그러나, 「파수대」지 1988년 8월 1일호(4페이지)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면서 꽤 지나침을 나타낸다.

***** 파88 8/1 4면 형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 *****

이교의 여러 관습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소위 개종한 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소개되었다. 종교 역사가 에드윈 베번은 그의 저서 「거룩한 형상」(*Holy Images*)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일은 콘스탄틴 시대부터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얼마 안 있어 그것에 여러 형태의 경의를 표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형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필시 그림과 형상에 경의를 표하는 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 상징물에 경의를 표하는 관습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십자가 자체는 … 콘스탄틴이 군기[십자가 모양이 섞여 있는 군기]에 본보기를 남기기 이전엔, 그리스도교 기념물이나 종교적 예술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다양한 십자가의 상징이 이용되게 되었던 것은 확실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교의 여러 습관」이라고 묶거나 「형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과언이다. 게다가 「십자가 상징물에 경의를 표하는 관습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십자가 자체는 … 콘스탄틴이 군기[십자가 모양이 섞여 있는 군기]에 본보기를 남기기 이전엔, 그리스도교 기념물이나 종교적 예술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도 또 부정확하다. **1~3 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묘지안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편집자주-이하에서 자세히 살핀다.)

상기의 문장에서는 명언되어 있지 않지만 협회의 주장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도입된 **십자가의 심볼을 태양 예배와 묶어 해석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깨어라」 1984년 9월 22일호(13 페이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십자가를 태양 예배에 관련 짓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 개85 6/1 15면 십자가는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가? *****

흥미롭게도,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보고 그의 군기로 사용했다고 하는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태양 숭배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콘스탄틴’ 자신은 태양 숭배자였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희랍어 첫 두 글자인 ‘카이’와 ‘로우’가 결합된 합일 문자와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그림-그리스어 문자]** 표시였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많은 비열한 만행을 “십자군 병사들”이 저질렀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비그리스도교적 군사 활동에 의의 냄새를 풍기게 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태양 예배에 관련짓는 사람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는 말하지 않았다. 필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 십자가를 태양예배와 묶어 해석하고 있는 것을 협회 출판물 이외 발견할 수가 없다. 물론 필자가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정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도입된 십자가와 태양숭배를 묶을 수가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파수대」지 1987년 8월 15일호(22 페이지)도 또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십자가가 태양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던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 파87 8/15 22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인가? *****

또한 콘스탄티누스가 “보았다”는 유형의 십자가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사형하는데 사용되었던 도구라고 단언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발행한 많은 주화에는 X 자 모양에 “P”자를 포개어 놓은 십자가가 찍혀 있다. (삼화 참조.) W. E. 바인 저, 「신약 단어 해설 사전」(*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은 이렇게 말한다.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에서 보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옹호하게 되었다고 단언하는 문자인 카이 (Chi) 즉 X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희랍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이며,” 사형 도구로서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사실상, 그러한 양식의 십자가는 태양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상징물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본 환상의 십자가는 「그런 양식의 십자가는 태양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상징물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리는 극히 이상한 것이다. 「신약 성서 용어 해설 사전」의 저자 바인은 **콘스탄티누스가 본 십자가의 환상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매단 십자가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리스어의 머리 글**

자 X(카이)에 관계하고 있다, 라고 언명 하고 있다. 따라서 바인의 사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 환상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라고 결론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파수대」 지는, 「"P"를 그 위에 겹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어의 「로」라고 하는 문자로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표기의 두번째의 문자를 가리킨다. 그 말은, 코인에 새겨진 십자표는 그리스도의 최초의 문자와 두번째의 문자를 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수대」지의 기사는 돌연 「사실상, 그러한 양식의 십자가는 태양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상징물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지금까지의 논술과는 완전히 무관한 반대 내지 부정적인 결론을 내 버리고 있다. 독자는 이 논리의 비약을 눈치챘는가?

이러한 이상한 논술은 보통 서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다. 증인이 아닌 보통 독자가 협회 출판물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른다, 라고 흘리는 것은 일견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게 보이는 기사가 실제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기의 인용 부분도 그 전형적인 것이다.

기술의 방법, 부정확한 논리라고 했던 것은 제쳐 두자.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십자형이 태양숭배와 관계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라고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협회 출판물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것처럼 주장만하고 학자나 서적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다만 「관계가 있었다」라고 단언하는 것만으로 있다. 이것은 동료의 사이에만 통하는 혼자만의 야단맞을 생각이다.

협회는 십자가가 담무스 신이나 크룩스·안사타등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담무스 신이나 이집트의 성 숭배와 콘스탄티누스 황제와의 접점이 없으면 안 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담무스의 신을 믿고 있었다든가, 크룩스·안사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협회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협회의 주장은 단순한 착상이다. 협회는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가 담무스신, 이집트의 성 숭배, 혹은 어떠한 태양숭배와 관계가 있던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 증거는 무엇하나 없다. 협회 출판물도 그 증거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는 형주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때에 이교의 신앙의 영향에 의해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어 그리스도교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협회의 주장은 협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창작(스토리) 인 것이다.

9. 바인의 사전에 대해

사전이나 사전류를 참조할 때, 그 방면의 권위자에 의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협회 출판물은 우리들의 주장에 맞는 것 같은 문헌을 찾아 그것을 인용한다. 그 문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신용되고 있던 것일까?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인지, 등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 좋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편집자 - 즉, 예를들어 혈액의 문제를 다룰 때, 그 혈액성분의 분석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과 확률이 있는 전문적인 의학서적을 참조하는 것 보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내용이 일반 중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언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협회 출판물은 자주 바인의 「신약 성서 용어 해설 사전」을 인용해 예수를 매단 형구는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이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사전은 얼마나 신뢰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처음 바인의 사전에 대해 한마디 말해 두고 싶다.

바인의 사전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의 독자전용으로 쓰여진 대중적인 사전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성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술적인 정확성을 기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해석론쟁에 대해 바인의 사전을 근거로 논하여 지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어 문헌학자, 역사가가 찬성해 주실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바인의 사전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어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성서를 원어로 배우려고 할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의견의 대립을 검증하기 위해 학술적인 논쟁에 이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유감스럽지만 바인의 사전에 대한 보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바인의 사전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이 일(십자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되어 있다」(Robert M. Bowman, Understanding Jehovah's Witnesses,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91 p. 144).

바인이 협회의 해석대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보맨의 평가는 옳바르다. 그러나, 필자 자신은 바인의 문장을 반복해 읽으면서,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바인 자신은 예수는 형주에 매달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바인의 주장을 재차 「참조 주 성경」에 의해 소개해 두자(1769페이지).

「스타우로스는 주로 곧은 형주를 가리킨다. 거기에 범죄인은 사형을 위해 못을 박아 고정 되었다. 이 명사도 형주에 매다는 의미의 동사 스타우로도 원래는 교회가 이용하고 있는 2개의 목재를 십자에 조합한 형태와는 구별되고 있었다. 후자의 형태는 고대 갈데아에 그 기원을 가져 동국 및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한 나라들에 있어 담무스신의 상징(그 이름의 최초의 문자로, 신비적 의미의 첨부 된 타우의 형태)으로서 이용되었다. 서기 3 세기의 반까지 제교회는 그리스도교의 몇개의 교리로부터 일탈하는지 그것을 골계인 것으로 해 버렸다. 배교 한 교회 제도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이교도가 신앙에 의한 재생없이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교의 표나 상징을 계속해 이용하는 것이 큰 폭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 타우 즉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이용되게 되어 많은 경우에 횡단목을 아래에 비켜 놓은 형태가 사용되었다.」

상기의 문장을 협회와 같이 예수의 형구는 형주이었지만 담무스신의 신앙으로부터 십자가가 되어 버렸다, 라고 읽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바인이 분명히 것처럼 말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인은 십자가형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을 명언하고 있다.** 그것은 기원전 7 세기의 일이다. 게다가 상기의 인용의 뒤로 계속되는 「스타우로스」의 단어의 뜻 설명에 대해 마태27:32를 주어 「**십자가 혹은 형주 자체**」라고 해설하고 있다. 게다가 바인은 같은 사전의 「나무(tree)」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 「크실론」을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나무, 로마인이 사형되는 인물을 못 외상으로 한 세울 수 있었던 기둥 또는 형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권, 153페이지).

이러한 단어의 설명 중에서 십자가(cross)를 최초로 소개함에 있어서 바인 자신은 형주는 아니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즉, 바인은 다양한 십자가 모양이 그리스도교에 대해 심볼에 채용되어 가는 상황을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예수를 매단 형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참조 주 성경」가 인용하고 있는 앞의 문장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오늘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십자가 모양이 그리스도교의 심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3 세기 중반 이후의 일로이다. 그 무렵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는 신조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하는 배교적인 움직임이 있어 일찌기 이교의 신의 심볼로 되어 있던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심볼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의 바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필자의 해석이다. 영문에서도 애매한 곳이 있으므로, 혐회의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단정적인 말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본다.

물론, 바인의 사전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일은 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자료에 부합 할지 어떨지 인것이다. 즉 1900년도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의 현대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수 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의 분석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바인의 주장이 어떠한 것이든 십자가를 둘러싸고 말해지고 있는 혐회의 가르침은 역사적 자료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0. 십자가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추리」는, 「송배하지 않고, 십자가를 소중히 가지고 있어 관찰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220페이지).

「만약, 친한 친구가 거짓의 호소에 근거해 사형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니까. 사형된 형구의 복제를 만듭니까. 그것을 소중히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물건에는 접할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파수대」지 1989년 5월 1일호(25 페이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파89 5/1 25-26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

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사형에 사용된 형구를 신성시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저지른 악행 곧 예수를 살해한 일을 영광스럽게 함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26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 파89 5/1 26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

13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벗이 거짓 혐의로 사형당했다면, 우리는 사형에 사용된 형구(이를테면 교수형 올라미나 전기 의자 혹은 총살 집행대의 총)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모조품에 입맞추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거나 신성한 장식물인 양 목에 걸고 다니겠읍니까? 그런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이교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나쁜 일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 파수대」 지 1995년 5월 15일호(20 페이지)를 소개해 두자.

***** 파95 5/15 20면 크고 작은, 빛의 번쩍임(제1부) *****

예수께서 못박히신 도구는 이상화해서는 안 되며 혐오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만약,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사형된 형구로서만 파악한다면 상기의 논술은 지당하다. 누구라도 「그러한 물건에는 점할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사형도구를 경배하는 것은 그것으로 저지른 악행 곧 예수를 살해한 일을 영광스럽게 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것이다. 혹은, 「사형에 사용된 형구(이를테면 교수형 올라미나 전기 의자 혹은 총살 집행대의 총)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모조품에 입맞추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거나 신성한 장식물인 양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옳다. 오히려 「혐오의 정을 가지고 봐야 함」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신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신약 성서에 있어서는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말로서 스타우로스, 아나스타우로오, 스타우로오, 시스타우로오등의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말의 쓰여지는 방법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 예수의 사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속죄와 관계가 있는 신학적인 의미이다. 만약, 전자만의 의미 밖에 없다면, 「추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목표를 얻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를 고려하면, 「추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상식밖의 얘기가 된다. 게다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는 어디서 죽었는지가 아니라 왜 죽었는지의 그 후자야말로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바울에 예를 들어 보자. 그는 십자가에 관계가 있는 말로서 스타우로스를 7회, 스타우로오를 8회, 시스타우로오를 2회, 합계 17회 사용하고 있다. 그 모두가 실제의 예수의 사형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신학적인 의미와의 관계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고린도전서 1 장 23절)라고 선언하고 있다. 혹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음이라」(고린도 전서 2장 2절)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해 십자가로부터 눈을 떼어버리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헤매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게다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 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우안게리온)이란 「십자가의 선포」이며(고린도전서 1 장17-18절), 그 메시지가말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린도전서 1 장 21절). 십자가는 전 인류의 죄를 사하며(골로새서 2장 14절), 모든 권세와 정사를 이겼다.(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와(에베소서 2장14-16절) 만물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다(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는 예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 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도 죽은 바 되었고 (로마 6장3-6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골로새서 3장 3절). 거기에 율법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있었다(갈라디아 2장 19절).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린도전서 1 장 23절, 갈라디아 5 장 11절). 많은 사람에게 적대심을 가져오는 경우조차 있었다(빌립보서 3장 8절).

이상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의미이다. 그런데 협회는 예수의 형주를 사형의 도구로서 밖에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형구의 심볼인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면 단죄한다. 십자가를 것처럼 궁핍하게 파악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은 신약 성서의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다. 증인이 교리를 바꾸기 전 역사의 반 약 60년 동안 협회가 말하는 진리생활을 해 온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이성적이라 보여진다.

십자가(그것은, 협회가 주장하듯이 형주이어도 전혀 상관없지만)는 전인류의 속죄의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다. 신의 사랑, 신의 지혜, 신의 힘, 신의 용서, 하나님의 베품, 죄의 처벌, 죄의 힘으로부터의 해방, satan과 죽음에 대한 승리, 민족의 화해, 만물의 화해, 인간의 사명의 회복, 신앙의 근본적 기반, 그리스도인의 세상과의 관계 등을 지시한다. 그러한 일련의 훌륭한 은혜의 표시로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신앙의 심볼에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십자가를 몸에 지니는 사람도 있다. 일상생활 안에서 십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교국의 교회의 회당에는 십자가를 내걸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사형 그 자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는 예수를 매단 십자가의 형태나 그 십자가상에서의 육체의 괴로움을 문제삼지 않았다. 이상한 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고학적인 흥미나 역사적인 탐구에도 무관심하다. 성서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형주라고 해도 상관없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져왔는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 원인과 결과로서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 표상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느 형태를 이루는 물체인 형상인 것이 많다. 그것을 채택해 「어떠한 형상도 새겨서는 안 된다」라는 십계명 중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비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어느 증인으로부터 이처럼 들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옳지 않다. 그것은, 3계명을 지나치게 비약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3계명은 형상을 새겨선 안 된다, 라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조각물은 모두 우상이 되어 버린다. 3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숭배로서의 대상물을 새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 필자가 아는 한 십자가를 신성시하거나 우상시 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게 된다.** 그러나, 단지 장식으로서 붙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어느 모양의 벡크리스(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벡크리스(십자가 목걸이)나 그 모양에게 빌고 있다고 비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방의 장식선반에 어느 도자기를 장식했다고 하자.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도자기에 빌고 있다고 비난 하면 어떻게? 그러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몸에 지니고 있거나, 장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만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의미로 몸에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장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조사하고 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국의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 의심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비난 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러한 심볼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심볼은 심볼이다. 따라서 심볼이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만약, 심볼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위치타워성서 책자 협회가 「탑(타워)」을 심볼 마크에 사용하고 있는 일도 비난해야 한다. 「파수대」 지는 매호, 그 타이틀명의 왼쪽 위쪽에 협회의 심볼 마크인 「탑(타워)」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탑」의 도안을 채택해 증인들은 탑에게 빌고 있다든가, 그러한 심볼 마크는 십계의 3계를 어기는 것이라든가 등등의 비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의 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위치타워의 신앙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

다. 우리에게 있어 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조사하고 나서 비판해 주시길 바라는, 그렇게 말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교국가 십자가를 심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협회가 탐을 심볼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

필자는 어느 증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그리스어 성서(신약 성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탐」을 협회가 심볼 마크로서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라고 질문받았던 적이 있다. 확실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협회가 심볼에 사용하고 있는 「탐」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신약 성서에는 그러한 「탐」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무엇을 심볼 마크로서 사용하는지 그것은 자유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자원봉사의 그룹에서도 심볼 마크를 갖고 있다. 그 마크에 무엇인가의 의미를 담아 심볼 마크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회가 「탐」을 심볼 마크에 사용하려고 또는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래서 자유롭다.

심볼 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이 제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을 표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는 예수의 속죄의 죽음을 그 신앙의 중심으로 두어 십자가를 심볼 마크로서 채용했다. 협회는 때를 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탐을 심볼 마크에 앉혔다. 어느 쪽이 신약 성서의 신앙을 보다 좋게 나타내고 있는지는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

우리는 십자가와 관계되는 다양한 심볼 마크가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이교의 신앙에 대해 이용되어 온 것을 봐 왔다. 그러나 바빌론의 담무스의 신은 T의 십자이며, 이집트의 크룩스·안사타는 T자 위에 엔을 덧붙인 것이다.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X에 로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더한 것이다. 그 모두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국의 교회가 채용해 온 형태의 십자가는 아니다. 게다가 그것들이 그리스도교국의 교회의 심볼 마크가 되어 간 역사적 관련도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고 협회 출판물도 그 증거를 주지 않았다.

그리스도교국의 교회가 십자가를 그 심볼 마크에 채용해 가는 배경으로서 그러한 복잡한 상황을 잔소리할 필요는 없다. 십자가가 심볼이 된 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실수이라고 협회는 주장하기 시작했으므로 역사적으로 확증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가지 늘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입증으로서의 예수의 형구가 형주는 아니고, 십자가였던 사실을 이어지는 장에서 차근차근 4세기 이전의 교부들의 문서로부터 과연 초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십자가(스타우로스)를 나타내고 있었는지 과연 그 스타우로스가 원어의 의미만으로 썼는지 이 원어의 의미와 더불어 실질적인 오늘날의 십자가의 의미로 썼는지를 이어지는 장에서 초대 교부의 문헌으로부터 확인하기로 하자. 그 다음으로는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성서적인 고찰을 계속 이어나간다.

제 3 장 초대 교회 교부의 문헌으로부터

예수가 사형된 도구는 십자가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주이었던가? 이 문제에 관계되어 초대 교부들이 남긴 문헌은 어떠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장에서는 이 문제를 고찰해 보자. 과연 예수는 하나의 곧은 기둥 말뚝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후에 4세기전의 초기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형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갑자기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교의 문명을 받아들여 예수가 형주에 매달렸음에도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바뀐 것일까?

교부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다양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예수의 형구의 **형태에 대해**이다. 따라서, 십자가에 관한 전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교부들의 증언은 제외하고 십자가의 **형태**에 대해 어떠한 시사를 주는 기술로 한정해 조사해 가고 싶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교부들의 증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 즉, 서기 312년 이전의 것이다.** 즉, 협회가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 예수는 형주에서 죽었고,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후에 십자가가 이교에서 들어왔다는 협회의 말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 세기 중반까지의 내용으로 한정하자. 이는 협회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최종적인 책임 바인의 사전을 제시하고 그 바인은 3 세기 중반 정도까지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그나티우스(서기30-107년)

이그나티우스는 1 세기 후반에 활동한 교부이다. 즉 시대적으로는 사도들과 거의 변함없다. 그렇다면 그 증언의 역사적 가치는 당연 신약 성서와 동등하다, 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이그나티우스는 거짓의 형제들에 대해 만약 그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십자가의 가지**로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Epistle of Ignatius to the Trallians, The Ante-Nicene Fathers, vol. 1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1985, p. 71).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다(영어에서는 branches와 복수). 그 말은 십자가가 한 개의 형주는 아니라고 하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바나바(서기100-150년) (Pseudo-Barnabas wrote in A.D 70-79 or c.130)

바나바는 2 세기 초두에 활약한 교부이다. 그는 그 편지 안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노예에게 할례를 베푼 것(창세기 14장 14절 참조)에 대해 다루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최초로 할례를 베푼 아브라함은 영혼에 대해 예수를 예견해 서훈자의 교의를 받아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속하는 18명 및 3백명의 남자에게 할례를 베푼다(창세17:22, 27 및14:14)」에서 살필 수 있다. 그에게 줄 수 있었던 지식은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그가 먼저 18명이라고 말하고 간격을 두어 3백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18(을 구성하는)은 (수치가) 10인 I(이오타)와 (수치가) 8인 H(에이타)이다. 그러므로 이에스스(=예수)가 된다. 또 T(타우)(수치는 3백)로(나타난다) 십자가가 은혜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3백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러므로 2개의 문자로 예수를, **또 한 글자로는 십자가를 나타낸다.**」¹⁾(「사도 교부 문서」 코단샤, 1974년,41-2페이지)

바나바는 이 해설에 대해 십자가가 T에 의해 표현된다, 라고 명언하고 있다. 이 T(타우)에의 언급은 예수의 십자가가 한 개의 형주는 아니고 T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로 통한다.

협회는 십자가가 T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경우 담무스 신과 묶는다. 그런데 바나바의 편지는 같은 T에 묶어도 속죄의 은혜와 관계 짓고 있다. 전자이면 이교와의 관계가 나오지만, 후자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 자신의 축복을 예상시킨다.

게다가 이 바나바의 편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든 기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의 모습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같은책 43 페이지).**²⁾

독자는 출 이집트기 17장11-12절을 살펴보셔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 모세의 모습은 전통적인 십자가에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가 주장하는 한 개의 형주에 부합 하는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1) 7 Learn fully then, children of love, concerning all things, for Abraham, who first circumcised, did so looking forward in the spirit to Jesus, and had received the doctrines of three letters.

8 For it says[Genesis 14:14; 17:23], "And Abraham circumcised from his household eighteen men and three hundred." [in Greek, TIH]What then was the knowledge that was given to him? Notice that he first mentions the eighteen, and after a pause the three hundred. The eighteen is I (=ten) and H (=8) -- you have Jesus -- and because the cross was destined to have grace in the T he says "and three hundred." So he indicates Jesus in the two letters and **the cross in the other.**(Kirsopp Lake 번역 The Apostolic Father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in the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Heinemann,1912-13)

2) CHAPTER 12 The Cross -- Joshua

1 Similarly, again, he describes the cross in another Prophet, who says, "And when shall all these things be accomplished? saith the Lord. When the tree shall fall and rise, and when blood shall flow from the tree." Here again you have a reference to the cross, and to him who should he crucified.

2 And **he says again to Moses**, when Israel was warred upon by strangers, and in order to remind those who were warred upon that they were delivered unto death by reason of their sins -- **the Spirit speaks to the heart of Moses to make a representation of the cross**, and of him who should suffer, because, he says, unless they put their trust in him, they shall suffer war for ever. Moses therefore placed one shield upon another in the midst of the fight, and **standing there raised above them all kept stretching out his hands**, and so Israel again began to be victorious: then, whenever he let them drop they began to perish

3 Why? That they may know that they cannot be saved if they do not hope on him.

4 And again he says in another Prophet, "**I stretched out my hands** the whole day to a disobedient people and one that refuses my righteous way."

3.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 서기110-165년)

유스티누스는 2 세기 전반에 활약한 또 한사람의 교부이다. 그의 발언 중에서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자. 우선 「제일 변명-First Apology」중에서이다.

「한명의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한사람의 젊은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의 정사는 그의 어깨에 드리워졌다. 이것은 그의 어깨가 붙은 십자가의 힘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유스티누스」, 교우분관, 1992년, 50 페이지)³⁾

유스티누스는 예수가 사형으로 되었을 때 예수의 어깨가 십자가에 붙어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협회가 가르치는 한 개의 형주의 경우에는 예수가 어깨를 「형주」에 붙였다고 하는 것이 되어 부자연스럽다. 형주라면 그 어깨는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의 형구가 전통적인 십자가였다고 하는 전제에 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스티누스는 그 「제일 변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Jupiter(또는 Zeus)의 아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없었고, 그들이 십자가형을 모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스타우로스)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십자가(스타우로스)에 관한 모든 말은 이미 분명히 했듯이 심볼에 의해 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예고했듯이 이것이야말로 그 힘과 지배를 나타내는 최대의 상징이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지각하는 곳에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고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만물이 십자(스타우로스)의 형태없이 질서와 연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돛대로 불리는 이 승표가 배 속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혹은 이 형상의 도구에 의하지 않으면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상의 도구에 의하지 않으면 굴착인은 일을 할 수 없고 공인도 같습니다.**」

「한층 더 인간의 형상이 비이성적인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의 경우 **신체의 직립 방향과 직각에 양손이 뻗어져 있고 얼굴의 경우에는 생물의 삶을 위한 숨을 쉬는 코라 불리우는 것이 얼굴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어 이것은 십자의 형태(스타우로스)의 그 이상의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음의 말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앞의 숨결은 주 그리스도이다. 」」

「여러분들 **로마인의 사이에 이용되고 있는 심볼도 이 형상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군기와 승표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도처 여러분들의 진군이 있어 거기에 힘과 지배의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유스티누스」, 교우분관, 1992년, 73 페이지)⁴⁾

3) And how Christ after He was born was to escape the notice of other men until He grew to man's estate, which also came to pass, hear what was foretold regarding this. There are the following predictions:--"Unto us a child is born, and unto us a young ma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s:**" **which is significant of the power of the cross**, for to it, when He was crucified, He applied His shoulders, as shall be more clearly made out in the ensuing discourse.

4) CHAPTER LV -- SYMBOLS OF THE CROSS.

But in no instance, not even in any of those called sons of Jupiter, did they imitate the being crucified; for it was not understood by them, all the things said of it having been put symbolically. And this, as the prophet foretold, is the greatest symbol of His power and role; as is also proved by the things which fall under our observation. For consider all the things in the world,

이상과 같은 내용 중에서, 유스티누스는 예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돛대가 서 있는 배, 흙을 경작하는 도구, 직립 해 양손을 직각에 늘리고 있는 인간, 얼굴표면과 이루는 코, 로마군의 군기, 승표이다.

각각의 비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시길 바란다. 여기에 우리는 매우 쉽게 모든 비유가 예수가 처해진 형구는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이며 협회가 가르치는 한 개의 형주가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물론 원어에서는 십자가를 나타낼 때 "스타우로스"를 쓰고 있고, 이 스타우로스의 형태에 대해 위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덧붙여 여기에 나오는 로마군의 「군기(exillum)」란 T자의 형태를 한 지주에 기가 붙여진 것을 가리킨다. 또, 「승표(tropaion)」란 적으로 부터 승리했을 경우 그 적의 갑주나 무기 등을 묶어 매달기 위한 것이다. 그 형태는, T자였다. 로마군은 그리스 이래 로마 시대에 있어도 승리의 표징으로서 그것을 전장에 세우는 것이 관습이었다.

게다가 유스티누스가 저술한 「트리폰과의 대화」로부터 십자가의 형태를 암시하는 곳을 살펴보자. 그 서적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관계되어 구약 성서를 예형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구워진 양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살피고 있다.

「완전하게 구어지도록 명을 받은 그 양은 그리스도가 겪은 십자가의 고통의 상징이다. 구워진 양은 십자의 형태로 정렬을 시켰다. 왜냐하면 한 개의 쇠꼬챙이는 아래쪽으로부터 머리로 향해 꿰뚫어지고 있고 양의 다리들에 붙여서져서 등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Dialogue With Trypho", Ante-Nicene Fathers, vol. 1 Chapter XL p. 215) ⁵⁾

유스티누스는 구약시대의 양이 세로의 꼬치와 횡단목에 의해 구워졌던 것에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새끼양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시대의 양이 구워지는 그런 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말은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로 의미가 있다. 협회가 말하는 한 개의 형주에서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트리폰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바나바의 편지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말렉와 싸웠을 때를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 17: 8-16)

「백성이 아말렉와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움을 이끌고 모세 자신은 양손을 뻗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풀과 아론은 하루 종일 그 손을 지켰을 때에 내려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십자의 모양(스타우로스)의 신호를 계속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십자의 모양(스타우로스)을 계속 유지할 때에는 반대로 아말렉이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긴 것은 모세가 전투의 앞에서 백성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가 아니

whether without this form they could be administered or have any community. For the sea is not traversed except that trophy which is called a sail abide safe in the ship; and the earth is not ploughed without it: diggers and mechanics do not their work, except with tools which have this shape. And the human form differs from that of the irrational animals in nothing else than in its being erect and having the hands extended, and having on the face extending from the forehead what is called the nose, through which there is respiration for the living creature; and this shows no other form than that of the cross. And so it was said by the prophet, "The breath before our face is the Lord Christ." And the power of this form is shown by your own symbols on what are called "vexilla" [banners] and trophies, with which all your state possessions are made, using these as the insignia of your power and government, even though you do so unwittingly. And with this form you consecrate the images of your emperors when they die, and you name them gods by inscriptions. Since, therefore, we have urged you both by reason and by an evident form, and to the utmost of our ability, we know that now we are blameless even though you disbelieve; for our part is done and finished.

5) and that lamb which was commanded to be wholly roasted was a symbol of the suffering of the cross which Christ would undergo. For the lamb, which is roasted, is roasted and dressed up in **the form of the cross**. For one spit is transfixed right through from the lower parts up to the head, and one across the back, to which are attached the legs of the lamb.

라 그 자신이 십자의 모양(스타우로스)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같은 책, 244페이지)^{6) 7)}

유스티누스는 모세가 손을 뻗어 신에 기도했을 때의 모습을 「십자 모양의 표시」라고 말해 모세의 승리는 십자를 유지한 기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모세가 손을 뻗었다(stretching out both hands)란 어떠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유스티누스가 「홀과 아론은 하루종일 그 손을, 지쳤을 때에 내리지 않게 계속 유지했다」라고 기술했을 때, **특히 성서에서는 12절에 홀은 이편에 아론은 저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한 개의 형주를 상상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를 상상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게다가 유스티누스는 「트리폰과의 대화」 안에서 유니콘의 십자를 살피고 있다.

「유니콘의 뿔의 모양은 십자를 그린 타입 이상의 사실이나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라도 말하는 것이고 또 증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타우로스의 하나의 beam은 수직으로 위를 향하고 있고 이 것은 가장 극적인 큰 뿔을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의 beam은 거기에 붙어있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뿔이 하나의 뿔로 엮어져서 있는 것과 같이 양 사이드에서 나타난다.」(같은 책 245페이지⁸⁾)

여기에 그려져 있는 「유니콘」은 앞이 나뉘고 있는 뿔을 갖고 있는 짐승이다. 그 짐승의 뿔은, 한 개의 형주를 표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6) "When the people," replied I, "waged war with Amalek, and the son of Nave (Nun) by name Jesus (Joshua), led the fight, Moses himself prayed to God, stretching out both hands, and Hur with Aaron supported them during the whole day, so that they might not hang down when he got wearied. For if he gave up any part of this sign, **which was an imitation of the cross**, the people were beaten, as is recorded in the writings of Moses; but if he remained in this form, Amalek was proportionally defeated, and he who prevailed prevailed by the cross. For it was not because Moses so prayed that the people were stronger, but because, while one who bore the name of Jesus (Joshua) was in the forefront of the battle, **he himself made the sign of the cross.**

7) Chapter XCVII.-Other Predictions of the Cross of Christ.

"For it was not without design that the prophet Moses, when Hur and Aaron upheld his hands, remained in this form until evening. For indeed the Lord remained upon **the tree** almost until evening, and they buried Him at eventide; then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This was declared by David thus: `With my voice I cried to the Lord, and He heard me out of His holy hill. I laid me down, and slept; I awaked, for the Lord sustained me.'³⁷³ And Isaiah likewise mentions concerning Him the manner in which He would die, thus: `I have spread out My hands unto a people disobedient, and gainsaying, that walk in a way which is not good.'³⁷⁴ And that He would rise again, Isaiah himself said: `His burial has been taken away from the midst, and I will give the rich for His death.'³⁷⁵ And again, in other words, David in the twenty-first³⁷⁶ **Psalm thus refers to the suffering and to the cross in a parable of mystery: `They pierced my hands and my feet;** they counted all my bones. They considered and gazed on me; they parted my garments among themselves, and cast lots upon my vesture.' For when they crucified Him, driving in the nails, they pierced His hands and feet; and those who crucified Him parted His garments among themselves, each casting lots for what he chose to have, and receiving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lot. And this very Psalm you maintain does not refer to Christ; for you are in all respects blind, and do not understand that no one in your nation **who has been called King or Christ has ever had his hands or feet pierced while alive, or has died in this mysterious fashion-to wit, by the CROSS-SAVE this Jesus alone.**

8) Chapter XCI.-The Cross Was Foretold in the Blessings of Joseph, and in the Serpent that Was Lifted Up

Now, no one could say or prove that the horns of an unicorn represent any other fact or figure than the type which portrays the cross. For **the one beam is placed upright, from which the highest extremity is raised up into a horn, when the other beam is fitted on to it, and the ends appear on both sides as horns joined on to the one horn.**

마지막으로 「트리폰과의 대화」 중에서 청동의 뱀에 대해 접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해 두자.

「그는 청동의 뱀을 만들어 그것을 군기로 내걸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살았다. 하나님이 최초로 저주하셔서 이 사야가 말하고 있듯이 큰 검으로 잘린 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일 될까? 당신 선생의 어리석은 지식처럼 이것들을 표시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인가? 오히려 군기를 수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언급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세는 예수(여호수아)라고 이름 붙여진 분과 함께 손을 뻗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닌가?」 (같은 책 255페이지)⁹⁾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민수기 21장4-9절에 나오는 「청동의 뱀(놉뱀)」이다. 그는 그 뱀이 매달린 곳이 군기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유스티누스가 군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로마군의 군기로 T자형의 깃대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은 예수가 매달린 나무는 한 개의 형주가 아니라 십자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시뮬라의 신탁 (Sibyllin Oracles)

2 세기 중반에 기록되어진 「시뮬라의 신탁」은 바나바의 편지, 유스티누스처럼 모세의 기원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모세는 성스러운 팔을 펴서 믿음에 의해 아말렉인에 이겨 그의 원형이 되었다.」 (「성서 외전위전 6」 교우분관, 1991년, 348페이지)

9) Chapter CXII.-The Jews Expound These Signs Jejunely and Feebly, and Take Up Their Attention Only with Insignificant Matters.

"But you, expounding these things in a low [and earthly] manner, impute much weakness to God, if you thus listen to them merely, and do not investigate the force of the words spoken. Since even Moses would in this way be considered a transgressor: for he enjoined that no likeness of anything in heaven, or on earth, or in the sea, be made; and then **he himself made a brazen serpent and set it on a standard, and bade those who were bitten look at it: and they were saved when they looked at it. Will the serpent, then, which (I have already said) God had in the beginning cursed and cut off by the great sword, as Isaiah says,**⁴²⁴ be understood as having preserved at that time the people? and shall we receive these things in the foolish acception of your teachers, and [regard] them not as signs? And shall we not rather refer the standard to the resemblance of the crucified Jesus, since also Moses by his outstretched hands, together with him who was named Jesus (Joshua), achieved a victory for your people? For in this way we shall cease to be at a loss about the things which the lawgiver did, when he, without forsaking God, persuaded the people to hope in a beast through which transgression and disobedience had their origin. And this was done and said by the blessed prophet with much intelligence and mystery; and there is nothing said or done by any one of the prophets, without exception, which one can justly reprehend, if he possess the knowledge which is in them. But if your teachers only expound to you why female cancels are spoken of in this passage, and are not in that; or why so many measures of fine flour and so many measures of oil [are used] in the offerings; and do so in a low and sordid manner, while they never venture either to speak of or to expound the points which are great and worthy of investigation, or command you to give no audience to us while we expound them, and to come not into conversation with us: will they not deserve to hear what our Lord Jesus Christ said to them: `Whited sepulchres, which appear beautiful outward, and within are full of dead men's bones: which pay tithe of mint, and swallow a camel: ye blind guides!'⁴²⁵ If, then, you will not despise the doctrines of those who exalt themselves and wish to be called Rabbi, Rabbi, and come with such earnestness and intelligence to the words of prophecy as to suffer the same inflictions from your own people which the prophets themselves did, you cannot receive any advantage whatsoever from the prophetic writings.

「그의 원형」이란, 예수가 사형된 것을 가리킨다. 「팔을 펴서」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상 그 형구는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였던 것은 틀림없다.

또, 같은 서적의 2페이지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 그는 그의 손을 벌렸고 온 세상을 감싸셨다. ... 그리고 첫째 주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죽으신 이후의 모습을 명백히 보이셨다. 그분은 나무위에서 박힌 4개의 못자국이 생긴 손들과 발들을 보이셨고, 이것은 동과서 남과북으로 고정되는 하나의 마크이다」 (「성서 외전위전 6」 교우분관, 1991년, 350페이지)

이 기록은, 예수의 손과 다리에는 「4개의 상처」가 있는 것에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예수의 각각의 손발에 한 개씩의 못이 맞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그의 모습에서 세상을 감싸시고 동서남북으로서의 화합을 나타내는 그 모습은 협회가 말하는 그런 하나의 형주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5. 베드로행전

「베드로행전」은 서기180-90년경에 기록된 서적이다. 그 38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또 장래의 사람들도 당신들은 최초의 죄를 돌이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분은 유일 무비하신 말씀이시며, 나의 영혼은 이분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 말씀은 내가 매달린 수직의 나무이며 그 수직의 것은 인간의 본성인 수평과 교차하고 있고, 십자가의 가지인 수평의 나무와 수직의 나무를 연결하는 중앙의 못은 인간의 뉘우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서 외전위전 7」 교우분관, 1993년, 86 페이지)¹⁰⁾

10) XXXVIII. And when they had hanged him up after the manner he desired, he began again to say: Ye men unto whom it belongeth to hear, hearken to that which I shall declare unto you at this especial time as I hang here. Learn ye the mystery of all nature, and the beginning of all things, what it was. For the first man, whose race I bear in mine appearance (or, of the race of whom I bear the likeness), fell (was borne) head downwards, and showed forth a manner of birth such as was not heretofore: for it was dead, having no motion. He, then, being pulled down -who also cast his first state down upon the earth- established this whole disposition of all things, being hanged up an image of the creation (Gk. vocation) wherein he made the things of the right hand into left hand and the left hand into right hand, and changed about all the marks of their nature, so that he thought those things that were not fair to be fair, and those that were in truth evil, to be good. Concerning which the Lord saith in a mystery: Unless ye make the things of the right hand as those of the left, and those of the left as those of the right, and those that are above as those below, and those that are behind as those that are before, ye shall not have knowledge of the kingdom.

This thought, therefore, have I declared unto you: and the figure wherein ye now see me hanging is the representation of that man that first came unto birth. Ye therefore, my beloved, and ye that hear me and that shall hear, ought to cease from your former error and return back again. For it is right to mount upon the cross of Christ, who is the word stretched out, the one and only, of whom the spirit saith: For what else is Christ, but the word, the sound of God? So that the word is the upright beam whereon I am crucified. And the sound is that which crosseth it, the nature of man. And the nail which holdeth the cross-tree unto the upright in the midst thereof is the conversion and repentance of man. From

(“The Apocryphal New Testament” M.R. James—Translation and Notes Oxford: Clarendon Press, 1924)

이 기록은 말씀이 세로의 나무로 뺀 나무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수평목을 이루는 십자가의 형태에서 그 만나는 중심은 인간의 회심을 상징하고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서 돌아킬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중앙 근처에서 가로대를 수직의 나무에 고정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개의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리라.

6. 바울행전

「바울행전」은 200년경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장로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사형을 집행 사람들은 나무들을 넓혀 그것들을 쌓아올린 화장단상에 오르도록 해서 그녀에게 명했다. 그녀는 십자가의 모양을 취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불을 붙였다. 그런데 큰 불길이 붉게 타올랐는데 불은 그녀에게 불지 않았다.」(「신약 성서 외전」 코단샤, 1974년, 167페이지)¹¹⁾

이 기록은 분명하게 십자가가 전통적인 형태인 것을 전제로 해서 적고 있다. 즉, 십자가 형은 그 4세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다.

7. 토마스행전

「토마스행전」은 3세기 중반까지는 시리아어로 완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제5행 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해 빵에 십자가의 표시를 붙여 그것을 찢어 분배하기 시작했다.」(「성서 외전위전 7」 교우분관, 1993년, 275페이지)¹²⁾

11) 22 Now the boys and the maidens brought wood and hay to burn Thecla: and when she was brought in naked, the governor wept and marvelled at the power that was in her. And they laid the wood, and the executioner bade her mount upon the pyre: and she, **making the sign of the cross**, went up upon the wood. And they lighted it, and though a great fire blazed forth, the fire took no hold on her: for God had compassion on her, and caused a sound under the earth, and a cloud overshadowed her above, full of rain and hail, and all the vessel of it was poured out so that many were in peril of death, and the fire was quenched, and Thecla was preserved ("The Apocryphal New Testament" M.R. James-Translation and Notes Oxford: Clarendon Press, 1924)

12) 50 And he began to say: Come, O perfect compassion, Come O communion of the male, Come, she that knoweth the mysteries of him that is chosen, Come, she that hath part in all the combats of the noble champion (athlete), Come, the silence that revealeth the great things of the whole greatness, Come, she that manifesteth the hidden things and maketh the unspeakable things plain, the holy dove that beareth the twin young, Come, the hidden mother, Come, she that is manifest in her deeds and giveth joy and rest unto them that are joined unto her: Come and communicate with us in this eucharist which we celebrate in thy name and in the love-feast wherein we are gathered together at thy calling. (Syr. has other clauses and not few variants.) And having so said **he marked out the cross upon the bread, and brake it, and began to distribute it**. And first he gave unto the

여기서 빵에 굿는 이유는 「죄와 영원의 잘못 때문에」의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십자가가 한 개의 형주이었다면 한 개의 선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십자가가 2 개선이 사귀는 십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표시」라고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또, 「사도 유다·토마스의 행전」에는 「십자가의 표시를 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에게 말한 「너의 마음을 우리들의 주에게 펼치세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표시를 그으며 그에게 말했다.」 (「신약 성서 외전」 코단샤, 1974년, 239페이지)

그런데 「십자가의 표시를 굿는다」란 어떠한 행위인가? 그것은, 오늘날 카톨릭의 경우 그 신도들이 십자를 굿는 것과 같다. 다음의 문장을 읽어 주셨으면 한다.

「그러나 유다는 신을 칭찬한 참아 머릿에 십자가의 표시를 그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기름으로 자신의 비강을 적셔 알마를 자신의 귀안에 넣어 두상에 십자가의 표시를 그었다.」 (「신약 성서 외전」 코단샤, 1974년, 194-5페이지)

독자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해 주시길 바란다. 손가락을 우선 비강에 넣어 다음에 양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상에 닿아 주셨으면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표시」이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 분명하리라 생각된다. 즉, 현재에서도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전승은 4세기 이후에 이교의 유물의 잔재가 아니라, 초가 사도들로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8. 터툴리안(Tertullian 서기200-250년, 기록은 190-220)

터툴리안은 3 세기 전반에 활약한 가장 유명한 교부 였다. 그는 「호교론」의 12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군은 그리스도교인을 십자가(crucibus)나 기둥(stipitibus)에 매달고 있다. 저기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점토로 만들어져 그리고 십자가나 기둥 위에 매단것이 아닌가? 당신의 신의 몸이 처음으로 희생이 된 것이 바로 횡단목(patibulum) 위에서도이다.」 (「터툴리안」 그리스도교 교부 저작집(교우분관, 1987년), 37 페이지)

여기서, 터툴리안은 십자가와 기둥을 병렬하여 언급하고 있다. 터툴리안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도, 기둥에 의해서도 사형되었다는 것이다. 기둥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woman, saying: This shall be unto thee for remission of sins and eternal transgressions (Syr. and for the everlasting resurrection). And after her he gave unto all the others also which had received the seal (Syr. and said to them: Let this eucharist be unto you for life and rest, and not for judgement and vengeance. And they said, Amen. Cf. 29 fin.).

한 개의 형주이다. 그러면, 십자가는 다른 형태였던 것이 된다. 이것은 예수의 형구가 한 개의 형주는 아니었던 것을 증언 하고 있게 된다.

같은 서적의 16장에 대해 터틀리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직에 위치한 목재는 동일하게 십자가의 일부이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그렇다면, 부분적이 아닌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빌고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의 신들의 기원은 조각가들에 의해 십자 위에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한편 여러분도 또 승리의 여신들이 있다. 전승(트로파에움)의 기둥의 경우도 그 내용은 십자의 기둥이 되어 있다. 군대에서는 로마의 종교로서 군단 알고가 있고, 거기를 향해 맹세를 함으로 모든 신들보다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 거기에 너저분하게 붙은 신들의 상은 사형의 기둥(십자가)의 장식이다. 황제기나 장군기 위에 붙이는 형겅도 그 기둥의 옷이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리고 싶다. 십자가가 장식도 없고, 별거벗은 채로의 것을 여러분은 바라고 계시지 않는 것이니까.」(같은책 46 페이지)

이 문장은, 그리스도인은 3 세기의 초기 무렵, 「십자가에게 비는 사람」이라고 오해 받아 비난 되고 있던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여기에는, 「수직에 위치한 나무」는 「십자가의 일부이다」이라고 진술되고 있다. 그 말은 십자가는 한 개의 기둥 이상의 것이었던 것을 시사한다.

또, 여기서 「전승의 기둥」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트로파에움은 유스티누스의 서적으로 「승표」라고 번역된 것으로 그 형태가 십자가였던 것은 이미 말했다.

「군단의 표시」라고 번역되고 있는 「스이그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단에 있어서는 군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는 아니고 각종의 상이나 심볼을 횡단목에 붙인 것이다. 이것도 터틀리안에 의하면 십자가의 형태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장군기와는 로마 장군의 진지 혹은 로마의 선단에 붙인 적기이다. 「형겅」은 범선의 마스트의 끝에 붙이는 돛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기둥의 옷」(크룩스·스트라)이라고 말해지고 있었다. 그것도 십자가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 말은 이 비유도 십자가는 한 개의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인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터틀리안이 「유대인에게로의 대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새겨두자. 그는 신명기 33장 17절의 「들소의 모퉁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하고 있다.

「모퉁이의 2개의 것은 그리스도의 성향을 나타내고, 그 하나는 재판을 하시는 강직 하심과 구세주로서의 상냥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모퉁이는 십자가의 양단이다. 십자가의 부분인 배의 돛에 대해 조차 침단이 것처럼 불리고 있다. 마스트의 중심의 기둥은 유니콘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이 십자가의 힘에 의해 이 모퉁이의 방법에 따라 지금은 세계의 나라들을 신앙에 의해 땅에서 하늘로 밀어 올리고 있다.」(편집자주 -Adversus Marcionem 3,18,3-4)

여기에서는 힘과 상냥함은 「십자가의 양단」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횡단목의 양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십자가를 협회가 주장하는 한 개의 형주로 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한층 더 이 기록은 배와 돛을 십자가에 설명하고 있다. 이 묘사도 십자가는 한 개의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이다.

(편집자 주 - 위의 내용말고도 십자가의 모양으로서의 증명을 그의 저서 중에 Ibid.,3,18,6 그리고 Ibid.,

3.23.6 그리고 De idol atria, 12 를 살펴보면 모세의 이야기,그리스 문자 TAU의 T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들이 지녀야 할 모습으로서의 십자가의 형태 를 이야기하고 있다.)

9. 미누시우스·훼리크스(Minucius Felix 서기210-250)

3 세기 초기의 훼리크스의 서적에 이교도의 카에시리우스와 그리스도인의 오크타비아스라는 논의가 나온다. 로마의 변호사였던 오크타비아스는 십자가의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고 있다.

「늘려진 올에 의해 그리고 닻이 올려져 배가 조용하게 진행될 때, 뚫고 나온 돛에 의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표시를 본다. 그리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손을 뻗어 신을 우러러볼 때 그것은 십자가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자연으런 이유로서 이 십자가의 상징은 지속되고 또는 당신의 신앙은 그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형성된다.」(The Octavius of Minucius Felix, Ch. 29, Ante-Nicene Fathers, vol. 4 p. 191)¹³⁾

훼리크스는, 배와 올의 관계 혹은 배와 돛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다. 이 양쪽 모두의 비유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십자가」란 역시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가 된다.

게다가 이 기록은 사람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안에 십자가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양손을 벌려 신을 우러러보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한 개의 형주는 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가 되어 버린다.

협회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이교의 심볼인 십자가가 그리스도교국의 교회에 도입되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협회의 가설을 논파하기 위해 4 세기 중반까지의 증언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근처에 멈추어 둔다.

13) Chapter XXIX.-Argument: Nor is It More True that a Man Fastened to a Cross on Account of His Crimes is Worshipped by Christians, for They Believe Not Only that He Was Innocent, But with Reason that He Was God. But, on the Other Hand, the Heathens Invoke the Divine Powers of Kings Raised into Gods by Themselves; They Pray to Images, and Beseech Their Genii.

"These, and such as these infamous things, we are not at liberty even to hear; it is even disgraceful with any more words to defend ourselves from such charges. For you pretend that those things are done by chaste and modest persons, which we should not believe to be done at all, unless you proved that they were true concerning yourselves. For in that you attribute to our religion the worship of a criminal and his cross, you wander far from the neighbourhood of the truth, in thinking either that a criminal deserved, or that an earthly being was able, to be believed God. Miserable indeed is that man whose whole hope is dependent on mortal man, for all his help is put an end to with the extinction of the man.⁹⁹ The Egyptians certainly choose out a man for themselves whom they may worship; him alone they propitiate; him they consult about all things; to him they slaughter victims; and he who to others is a god, to himself is certainly a man whether he will or no, for he does not deceive his own consciousness, if he deceives that of others. "Moreover, a false flattery disgracefully caresses princes and kings, not as great and chosen men, as is just, but as gods; whereas honour is more truly rendered to an illustrious man, and love is more pleasantly given to a very good man. Thus they invoke their deity, they supplicate their images, they implore their Genius, that is, their demon; and it is safer to swear falsely by the genius of Jupiter than by that of a king. Crosses, moreover, we neither worship nor wish for.¹⁰⁰ You, indeed, who consecrate gods of wood, adore wooden crosses perhaps as parts of your gods. For your very standards, as well as your banners; and flags of your camp, what else are they but crosses glided and adorned? Your victorious trophies not only imitate the appearance of a simple cross, but also that of a man affixed to it. **We assuredly see the sign of a cross, naturally, in the ship when it is carried along with swelling sails, when it glides forward with expanded oars; and when the military yoke is lifted up, it is the sign of a cross; and when a man adores God with a pure mind, with hands outstretched. Thus the sign of the cross either is sustained by a natural reason, or your own religion is formed with respect to it.**

왜냐하면, 협회는 자살을 옹호 하기 위해서 자주 바인의 사전을 인용한다. 그 바인의 사전은 3 세기 중반무렵까지 그리스도교의 배교가 일어나 십자가의 심볼이 도입되었는지를 같이 적고 있다. 이 논술을 받아들인다면 3 세기 중반까지의 증언에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증언에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라크탄티우스는 「그는 십자가 위에서 손을 뻗었다. 그는 명백하게 그의 날개를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 뻗었다. 이는 세상 모든 백성이 그 아래 모여져 정리되고 평정된다」(The Epitome of the Divine Institutes, Ch. 51, Ante-Nicene Fathers, vol. 7 p. 243)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즉,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동서로 여러 가지 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온 세상의 백성을 모으는 상징적인 모습을 읽어내고 있다.

혹은, 라크탄티우스의 문장안에는 satan이 십자가의 표시에 대해서 도망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곳도 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집의 기둥의 횡단목과 기둥에 피를 발랐다. 그것은 해방의 표시이며, 십자가의 형태였다」(The Divine Institutes, Book 4, ch. 26, Ante-Nicene Fathers, vol. 7)¹⁵⁾이라고 말해 출 이집트 시에 유대인이 횡단목과 기둥에 피를 바른 행위를 「십자

14) Chapter LI.-Of the Death of Christ on the Cross.

I will now speak of the mystery of the cross, lest any one should happen to say, If death must be endured by Him, it should have been not one that was manifestly infamous and dishonourable, but one which had some honour. I know, indeed, that many, while they dislike the name of the cross, shrink from the truth, though there is in it great reasonableness and power, For since He was sent for this purpose, that He might open to the lowest men the way to salvation, He made Himself humble that He might free them. Therefore He underwent that kind of death which is usually inflicted on the humble, that an opportunity of imitation might be given to all. Moreover, since He was about to rise again, it was not allowable that His body should be in any way mutilated, or a bone broken, which happens to those who are beheaded. Therefore the cross was preferred, which reserved the body with the bones uninjured for the resurrection.

To these grounds it was also added, that having undertaken to suffer and to die, it was befitting that He should be lifted up. Thus the cross exalted Him both in fact and in emblem,¹²⁰ so that His majesty and power became known to all, together with His passion. **For in that He extended His hands on the cross, He plainly stretched out His wings towards the east and the west, under which all nations from either side of the world might assemble and repose.** But of what great weight this sign is, and what power it has, is evident, since all the host of demons is expelled and put to flight by this sign. And as He Himself before His passion put to confusion demons by His word and command, so now, by the name and sign of the same passion, unclean spirits, having insinuated themselves into the bodies of men, are driven out, when racked and tormented, and confessing themselves to be demons, they yield themselves to God, who harasses them. What therefore can the Greeks expect from their superstitions and with their wisdom, when they see that their gods, whom they do not deny to be demons also, are subdued by men through the cross?

15) Chapter XXVI.-Of the Cross, and Other Tortures of Jesus, and of the Figure of the Lamb Under the Law.

Nor ought any one to be ignorant of this, that He Himself, speaking before of His passion, also made it known that He had the power, when He willed it, of laying down His life and of taking it again. Therefore, because He had laid down His life while fastened to the cross, His executioners did not think it necessary to break His bones (as was their prevailing custom), but they only pierced His side. Thus His unbroken body was taken down from the cross, and carefully enclosed in a tomb. Now all these things were done lest His body, being injured and broken, should be rendered unsuitable³⁵⁷ for rising again. That also was a principal cause why God chose the cross, because it was necessary that He should be lifted up on it, and the passion of God become known to all nations. For since he who is suspended upon a cross is both conspicuous to all and higher than others, the cross was especially chosen, which might signify that He would be so conspicuous, and so raised on high, that all nations from the whole world should meet together at once to know and worship Him. Lastly, no nation is so uncivilized, no region so remote, to which either His passion or the height of His majesty would be unknown. Therefore in His suffering He stretched forth His hands and measured out the world, that even then He might show that a great multitude, collected together out of all languages and tribes, from the rising of the sun even to his setting, was about to come under His wings, and to receive on their foreheads that great and lofty sign.³⁵⁸ And the Jews even now exhibit a figure of this transaction when they mark their thresholds with the blood of a lamb. For when God was about to smite the Egyptians, to secure the Hebrews from that infliction He had enjoined them to slay a white³⁵⁹ lamb without spot, and to place on their thresholds a mark from its blood. And thus, when the first-born of the Egyptians had perished in one night, the Hebrews alone were saved by the sign of the blood: not that the blood of a sheep had such efficacy in itself as to be the safety of men, but it was an image of things to come. For Christ was the white lamb without spot; that is, He was innocent, and just, and holy, who, being slain **by the same Jews, is the salvation of all who have written on their foreheads the sign of blood—that is, of the cross, on which He shed His blood. For the forehead is the top of the threshold in man, and the wood sprinkled with blood is the emblem³⁶⁰ of the cross.** Lastly, the slaying of the lamb by those very persons who perform it is called the paschal feast, from the word "paschein,"³⁶¹ because it is a figure of the

가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다.

라크탄티우스의 이상과 같은 논술이 예수의 형구는 한 개의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십자가였던 것을 증언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라크탄티우스는 서기 260년경부터 330년 정도까지 산 교부**이다. 그 말은 3 세기 후반부터 4 세기 전반의 인물이라는 것이 된다. 십자가 도입을 콘스탄티누스 시대로 하는 협회의 입장에 서면 라크탄티우스의 이러한 증언은 타격이다. 그러나, 바인의 증언의 입장에 서면 라크탄티우스의 증언은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나서의 발언으로서 거부되어 버릴 것이다.

거기서, 교부의 증언은 이 정도로 해 두기로 하자.

필자는 교회사의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가 십자가와 관계되는 자료로서 모을 수 있던 초대 교회의 문헌은 적은 양에 불과하다. 만약 교부들의 문헌을 주의 깊고 빠짐없이 검증한다면 예수의 형구가 한 개의 봉은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인 것을 시사하는 기술을 그 밖에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회사의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3세기 이후의 십자가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응의 결론을 내려면 이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 편집자의 보충 (4세기 이전의 십자가의 증거)

- (1) Clement of Alexandria (A.D 150-215) - Exhortation to the Greeks, 11
- (2) Firmicus (기록연대 AD 346) - Error of the Pagan Religions, 21,3-6)
- (3) Rufinus (기록연대 AD 404) - Commentary on the Apostles' Creed, 14)
- (4) Jerome (AD 347-420) - Homily,68 Homily,84
- (5) Augustine (기록연대 AD 412-414) - De Doctrina Christiana,2,41
Letters, 26
- (6) Paulinus of Nola (AD 355-431) - Letters,23 Poems,17 Poems 19
- (7) The Odes of Solomon(1세기 말 - 2세기 초) - Ode 27, Ode 37:1, Ode 42:1,2
- (8) Sibylline Oracles (2세기) - SibOr 6,26,-28 SibOr 8,251-253 SibOr 8,302,318-321)
- (9) Acts of Andrew (3세기)
- (10) Pseudo-Titus Epistle (4세기) 등등

passion, which God, foreknowing the future, delivered by Moses to be celebrated by His people. But at that time the figure was efficacious at the present for averting the danger, that it may appear what great efficacy the truth itself is about to have for the protection of God's people in the extreme necessity of the whole world. But in what manner or in what region all will be safe who have marked on the highest part of their body this sign of the true and divine blood,362 I will show in the last book.

제 4 장 고고학의 증거

필자의 수중에 협회가 1969년에 출판한 「그리스어 성서 크룩스 행간 삽입역」이 있다. 거기에는 부록이 있어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를 「고통의 기둥」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APPENDIX

1157

sus died on a simple death-stake: In support of this there speak (a) the then customary usage of this means of execution in the Orient, (b) indirectly the history itself of Jesus' sufferings and (c) many expressions of the early church fathers."—Pages 156, 339.

→ The evidence is, therefore, completely lacking that Jesus Christ was crucified on two pieces of timber placed at a right angle. We refuse to add anything to God's written Word by inserting the pagan cross into the inspired Scriptures, but render *stau-ros'* and *xy'lon* according to the simplest meanings.

Since Jesus used *stau-ros'* to represent the suffering and shame or torture of his followers (Matthew 16: 24), we have translated *stau-ros'* as "torture stake," to distinguish it from *xy'lon*, which we have translated "stake," or, in the footnote, "tree," as at Acts 5:30. This is a revolutionary translation, we admit, but it is the purest one. The passing of time and further archaeological discoveries will be certain to prove its correctness. Even now the burden rests upon all who contend for the religious tradition to prove that Jesus died on more than a simple stake.

「우리는 이것이 혁명적인 번역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순수한 것이다. 때의 경과와 고고학적인 발견은 확실히 그것이 올바른 일을 증명할 것이다. 현재에도 예수가 한 개의 형주가 아닌 것 위에서 죽은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은 종교적 전통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위의 우측 밑줄 부분)

이 문장을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스타우로스를 「고통의 기둥」이라고 번역했던 것은 혁명적인 일로 그야말로 순수한 번역이다. 십자가와 번역하고 싶은 사람은 스타우로스가 전통적인 십자가인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필자의 수중에는 다른 「그리스어 성서 크룩스 행간 삽입역」(1985년판)도 있다. 그 판의 부록은, P·W·슈미트의 연구를 더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앞의 69년판과 기본적으로 모두 같다.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 상기에 인용한 부분만큼은 삭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때의 경과와 고고학적인 발견은 확실히 그것이 올바른 일을 증명할 것이다.)이 삭제된 것은 우연일까? 그렇지 않으면 69년 이후의 고고학적 발견의 실상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필자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다른 부분이 기본적으로 변함없는 것이니까 우연일 수는 없다.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협회도 또 최근의 고고학의

the infliction of punishment upon Jesus, the hanging of the unclad body on a stake, which, by the way, Jesus had to carry or drag to the execution place to intensify the disgraceful punishment. . . . Anything other than a simple hanging is ruled out by the wholesale manner in which this execution was often carried out: 2000 at once by Varus (Jos. Ant. XVII 10. 10), by Quadratus (Jewish Wars II 12. 6), by the Procurator Felix (Jewish Wars II 15. 2), by Titus (Jewish Wars VII. 1)."

발견이 협회의 견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 자신은 그 문장이 삭제 된 배경은 **여기에 소개하는 제 5 번째의 증거(편집자주-좌측그림이며 내용은 근거5를 살펴 주길 바란다.)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협회가 85년판에 대해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고고학상의 발견은 69년판이 기술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편집자주-Archa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Both heals had been pierced by a single large and crude iron nail. His open arms had been nailed in the way shown in the traditional crucifixion paintings...(두 발꿈치는 하나의 큰 못으로 관통되었다. 그의 벌려진 두 팔은 회화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전통적인 십자가형처럼 벌려져서 못박혔다. Gonzalo Baez-Camargo, Archa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Inc., 1984): 211.)"**

이다.

그런데 1 세기 전후의 저술가들은 십자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고학은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문제를 표면화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고고학적 발견은 아직도 얼마에 지나지 않는다. 「신성서 사전」은 이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신성서 사전, 253페이지).

「사형의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의 장소에 의해 여러가지로 차이가 난다. 당시의 세속의 저술가들은 이 가장 잔인한 품위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 같은 사형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에 망설여 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에 있어서의 고고학적인 작업에 의해 이 문제에 새로운 빛을 던질 수 있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는 언제라도 애매한 요소가 있는 것을 인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가 매달린 형구 그 자체가 발견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만, 그러한 일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있어서의 고고학적인 발견을 인내심을 갖고 깊게 탐구함으로써 예수 시대의 십자가에 대해 추측하는 이외 현재 방법은 없다.

그럼 예수가 형주는 아니고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5 개를 보면서 검증하기로 하자.

1. 폼페이의 200년제의 집 (또는 헤르쿨라니움의 십자가-Cross of Herculaneum)

첫째로 AD 79년에 폐허화한 폼페이의 정적의 발굴(1939년 발견)로부터이다. 출토한 집에 서부터 금속의 십자가의 자취가 발견되었다. 이 발견에 대해 폴·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앙심이 Naples의 Bay 근교에 퍼져 있던 것은 이 초기의 회중에 의해서 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후에 헤리쿨라니움(Herculaneum)의 근처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스비우스(Vesuvius)산의 화산폭발의 매장을 당하는 것을 피한 리조트의 마을에 지어진 하나의 집은 분명히 한 금속의 십자가의 자취를 나타내고 있다. 그 십자가는 윗층의 흑늪음이 된 기도대의 안쪽의 벽에 각인 되고 있다. 십자가는 물고기와 같이 옛부터의 그리스도교의 심볼이었던 것이다.」 (First Christians, First Harper &Row, New York, 1976, p140) ¹⁶⁾

마이어는 일세기의 반에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심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이어는 계속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층에는 「200 년의 집」으로 불린 초기의 그리스도인의 예배당이 있었다. 희게 회반죽이 칠해진 패널은 큰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금속으로 되어있었고, 도장을 찍는 그런 기구로 사용된 것이다. 그 전에는 작은 나무의 제단의 잔존물이 있다. 그것은 베스비우스산의 폭발에 의한 용암에 의해 흑늪음이 되어 버렸지만.」 (같은 책, 141페이지) ¹⁷⁾

그 집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당이었던 것이다. 작은 나무의 제단이란 성찬대인가, 설교대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초대 교회의 최초의 무렵부터 현재의 교회당과 같이 십자가를 심볼로서 내걸고 있었다는 것이다.

편집자 보충설명

이 Herculaneum 의 십자가의 발견은 1939년 2월에 발견되었고, 폼페이의 이 지역은 AD 79년 8월 24일에

16) "Christians were already established at Puteoli—[the Apostle] Paul's fame had preceded him there ... It may be from this early congregation that faith expanded around the Bay of Naples, because there were Christians in nearby Herculaneum shortly afterward. One of the houses in that resort town, today liberated from its lava burial by Mt. Vesuvius, shows the clear outlines of a metal cross that had been set in the wall over a charred prie-dieu in an upstairs room. The cross evidently is just as old a Christian symbol as the fish."¹⁵

17) "A primitive Christian oratory in the upper room of the so-called 'House of Bicentenary' at Herculaneum. A whitish stuccoed panel shows the imprint of a large cross, probably metallic, that had been removed or possibly used as a stamping device. Before it are the remains of a small wooden altar, charred by lava from the eruption of Mt. Vesuvius in 79 A.D."¹⁶

화산에 의해 덮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에도 Giv'at ha-Mitvar의 발견과 유사한 점을 Marcel Bri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도대 또는 예배의 단과 같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찬장에 벽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놓여졌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곳에는 십자가의 양팔 (편집자주 - 즉 가로목의 양끝)에 못이 박힌 나무 십자가가 있었고, 신성한 상징으로서의 붓꽃과 그 그림자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벽의 한 부분은 흰 석회로 칠해져 있다. 이 십자가는 이유모를 원인으로 옮겨졌고, 팔의 형상은 닳아져 있다. - Brion, "*Pompeii and Herculaneum*" : "*The Glory and the Grief*", John Rosenberg 역, New York: Crown Publishers, 1960) pp82

AD 79년 그 유명한 베스비우스 화산폭발로 침몰한 Herculaneum이 발견된 그 이후 몇몇 학자는 이 벽화는 초기 그리스도인을 증명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아마도 사도바울 그 자신이 아니었을 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Amedeo Maiuri, "*Herculaneum*" V. Priestley 번역 (Rome: Istituto Plografico Dello Stato, 1962), p 47; Joseph Jay Deiss. *Herculaneum: Italy's Buried Treasure* (New York: Harper & Row, 1985)

위와 같은 사실은 먼저 재 확인해 두고, 이 카페의 한 분이 협회의 글을 인용하시어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해 보자.

*** 개96 9/8 24면 폼페이-시간이 멎어 버린 곳 ***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들인가?

한 빵집의 벽에 미장으로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포함하여 폼페이에서 여러 형태의 십자가가 발견되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기원 79년에 이 도시가 멸망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정당한 추측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안토니오 바로네는 저서 「폼페이 내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존재」(Presenze giudaiche e cristiane a Pompei)에서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 숭배가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4세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가 되어서야 황제와 대규모의 이교도들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의 종교성과 좀더 부합하는 그러한 형태의 숭배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로네는 “심지어 2세기와 3세기에 도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시대까지도, 그리스도교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상징물이 발견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부연한다.

그 십자가들이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없다면, 그러한 상징물들의 기원은 무엇인가? 십자가로 여겨졌던 이 상징물의 정체에 관한 의문점들과 동일한 빵집에서 뱀 모양의 신이 그려진 그림이 발견된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빵집의 거주자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졌다는 가정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극도로 외설적인 열마의 발견물들”이 있다고 바로네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문명의 동이 트면서부터, 십자가가 구속의 상징이 되기 전부터, 십자가 모양은 분명히 주술적이고 의식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이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에 십자가는 사악한 영향력을 막아 주거나 없앨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부적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었다.

위의 언급에 대해 그 마을의 집터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어느 한 빵집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ntonio Vanero의 글을 읽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면서, 지금은 이 깨어라지의 기사만을 살펴보자.

위의 내용은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몇몇의 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먼저 첫 단락에서 언급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증으로 Antonio Varone의 저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즉,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 유적지에서 **십자가를 발견한 것은 모두가 사실이라는 점에 확인**(협회의 글에서는 4세기 전에 십자가를 쓴 유적은 없다고 종종 가르쳐왔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견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용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왜 아닌가**를 Antonio Varone의 책 속에서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즉 다음의 내용이다.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 숭배가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4세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가 되어서야 황제와 대규모의 이교도들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의 종교성과 좀더 부합하는 그러한 형태의 숭배가 생기게 되었다”

“심지어 2세기와 3세기에 도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시대까지도, 그리스도교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상징물이 발견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 빵집의 거주자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졌다는 가정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극도로 외설적인 얼마의 발견물들”이 있다.

“문명의 동이 트면서부터, 십자가가 구속의 상징이 되기 전부터, 십자가 모양은 분명히 주술적이고 의식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안토니오 바로네의 서적 중에 위의 저서의 번역문은 아직 입수할 수 없었고, 인터넷 상에서 바로네의 저서를 살펴면서도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알게 된 것은, 바로네는 이 유적지의 한 집에서 발견되는 물품중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는 폼페이의 유적지에서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남아 있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그 흔적 중에서는 이 빵집에서 발견되는 여러물품 들을 비교해 보면 깨어라지의 말처럼 바네로는 위와 같은 말을 사실상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은 파수대에 빠져 있다.

In his book *Jewish and Christian Presence in Pompeii* Varone does not deny but affirms that sure **it's very strange the fact that Christian symbols were found.** The finding of the cross in Bethsaida does away with any doubt in this regard.

즉, 그는 이 근방에서 발견되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보면서 이곳도 그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치고는 그 모습이 조금 황당하다는 말이다.

협회의 언급은 십자가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를 사용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 고고학적 발견의 핵심을 벗어나려는 듯하다.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갖추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학자들은 이곳의 빵집의 경우 외의 주위의 다른 흩어진 유적들로부터 이 일대에 속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Antonio Varone의 글을 확인하고 싶다.

2. 예루살렘 근교의 납골당

다음에 예루살렘 근교 올리브산의 기슭 근처에서 프랑스의 고고학자 찰스·쿠레아만 간네아(Charles Clermont-Ganneau)가 1873년에 발견한 30의 사체가 매장해진 납골당을 소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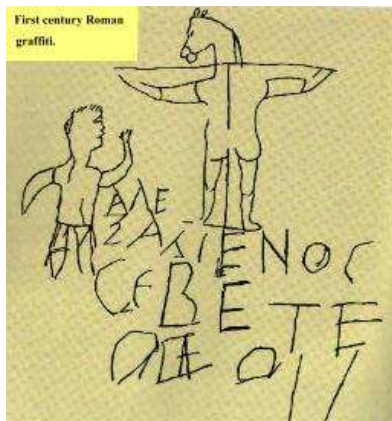
작은 석회의 직사각형의 관에는 몸의 뼈가 매장품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매장해진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고 있었다. 어느 관에는 유다라는 이름 위에 십자가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게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3회 등장해 그 중의 2회는 십자가와 관련하여 얘기하고 있다. 유대인의 제2의 반란 사건 이후 이 지역에 유대인이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매장해진 연대는 서기 135년 이후에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서기 70-135년의 사이와 추정된다(이 발견에 대해서는 Ancient Times Vol 3, No. 1 July 1958 p. 3에 자세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 고고학적 발견도 1세기 후반인가 2세기 초두에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심볼로서 채용되고 있던 것을 증언 하고 있다.

3. 페허의 벽화

3번째는 예수회의 가르치가 1856년에 팔레스타인의 남쪽의 경사면에 있던 건물의 페허로부터 발견한 벽화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비웃는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 벽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사람의 사람이 T형의 십자가에 묶여 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인물의 머리는 당나귀로서 그려져 있다. 십자가의 좌측에는 왼손을 들어 숭배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사람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그 오른쪽 아래에는 「아레크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자가 기록되고 있다.

그 벽화는 현재 로마의 키르체리아노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그것이 작성된 연대는 서기 217년경이라고 생각된다.

이 벽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우리들의 신」으로서 예배하고 있던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그 쪽이 붙여진 형구는 T자형의 십자가였다.

이 벽화에 관계되어 피네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대 문화의 빛」 이와나미 서점, 쇼와 41년, 368페이지).

「파라티누스의 남서쪽 키르크스·마크심스의 근처에 오늘 파이다고기움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건물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 궁전의 관공서의 1개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방안이 있는 것은 감옥에 이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벽에는 지금도 그라피티(graffiti)라고 불리는 조잡하게 써 붙인 그림이나 문장이 가득하게 있다. 그 하나로 가르치가 1856년에 발견해 현재 로마의 교회 박물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십자가의 낙서」(그림 124)이다. 이 엉성한 낙서는 당나귀의 머리를 가진 한사람의 인간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양 다리는 단상에 의지해 편 양팔은 십자가의 가로대에 얽매이고 있다. 왼손에는 아이 혹은 젊은이의 약간 작은 모습이 한 손을 들어 숭배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자는 「아레크사메노스가 그 신을 숭배」라고 적어 있다. 아마 이것은 궁전내 있는 젊은 그리스도 교도로 향해진 조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 낙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보다 아마 150년 정도 뒤의 것 즉 3세기의 처음의 것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되었는지 성서에서도 명료하게 가리키고 있다. (고린도전서1:18).」

덧붙여 이 정보에 대해서는 Buried History vol 9, No. 2 p. 41 혹은 Ancient Times Vol 5, No. 3 Marach 1961 p. 12 등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 벽화는 예수가 T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리고 예수는 신으로서 숭배되고 있던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십자가에 걸린 인물의 머리가 당나귀로 그려져 있는 것은 벽화가 그리스도교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려졌던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2 세기 후반부터 3 세기 초두에 걸친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이 묘사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4. 가족의 무덤

1945년 헤브루 대학의 유대인 고고학 박물관의 E. L. 슈케이닉크 교수는 어느 가족의 무덤을 발견했다. 2개의 납골당에는 그리스어로 예수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두 번째 편에는 4개의 큰 십자가도 그려져 있었다.

Ancient Time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슈케이닉크 교수는 십자가는 「십자가 조람이야」라고 하는 절규에 동일한 괴로움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늦어도 그 각인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20년 이내의 것일 것이다.」 (Ancient Times, vol 3, No. 1 July 1958 pp. 3-5 또, 같은 잡지, vol 5, No. 3 March 1961 p. 13도 참조).

이 무덤은 출토 한 도자기, 램프, 문자의 서체로부터 기원전 일세기부터 서기 후 일세기의 반까지의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 말은 예수 시대보다 바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는 십자가가 심볼로서 사용되고 있던 것이 된다.

5. 못이 박힌 뼈

5번째는 1968년 바시리오·자페리스에 이끌린 팀이 예루살렘 근교의 기바트·하미브탈 (Giv'at ha-Mitvar - 라스·에르마사레후)에서 발견된 유대인의 무덤이다.

그 중의 하나의 납골당으로부터 정척이 된 한사람의 젊은이의 뼈가 나왔다. 그 연대는 거기로부터 출토 한 토기로부터 서기 7년부터 66년간의 것과 추정되고 있다. 거기에는 이에호 하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발견에 대해 「신성서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53페이지)

「그 젊은이의 팔에는 못이 횡단목에 박혀져서 붙여져 있었다. 엉덩이의 근처에는, **횡단목이 붙여져 거기에 따라 체중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리는 가지런히 해서 굽힐 수 있어 못 박혀 있고, 그 한 개의 못이 발뒤꿈치의 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못은 14센치에서 2센치의 부분이 꺾여지고 있었다. 못과 뼈와의 사이에는 1.5-2센치의 아카시아나 피스타치오의 판이 붙여져 있었다. 또 못이 꺾여진 부분에는 작은 올리브의 목편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증거로부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리는 주역봉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그 주역봉에 횡판이 붙여져 그 횡판에 못 박힌 것으로 생각된다. 다리 뼈는 한 개는 심한 손상을 받고 있어 벌써 한 개는 도끼와 같이 날카로운 도구로 열어맞고 꺾여지고 있다. 「꺾어진 뼈」(crura fracta)는 사형수의 임종을 빨리 하게위해 로마에서는 자주 행해졌다(Cicero, Philippicae 13 12). ... 「손목의 뼈는 거의 손상되어 있지 않다. 팔뚝의 뼈는 손상되었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니면 묶여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말은 할 수 없다.」

이 발견에 대해 「파수대」지 1987년 8월 15일호(페이지)는 특별히 2페이지를 할애해 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파수대」지는 그 발견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학문적으로 매우 부정직히 취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무슨 일인지 같은 잡지는 발견 후 곧바로 발표된 하안 교수(Nico Haas of Hebrew University Hadassah Medical School)의 시 보고와 그 15년 후에 발표된 두 명의 학자의 시 보고와의 사이에 의견의 상위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결론을 내 버렸던 것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자. 우선 「파수대」지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18)

18) - 편집자 보충란 -
먼저 파수대 기사를 살펴보자.

*** 파87 8/15 28면 그의 다리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

발뒤꿈치에 박힌 못

1968년에 매장용 동굴 몇개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내부에는 재매장한 유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두 드러진 발견이라 할 만한 것-녹슨 대못이 박혀 있는 발뒤꿈치 뼈-이 있었다. 헤브라이 대학교 하닷사 의과 대학의 해부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니코 하스 박사가 이 유대인 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였다. 권위있는 잡지인 「이스라엘 탐사 저널」(*Israel Exploration Journal*) (1970년, 제 20권, 38-59면)은 그의 결론을 발표하였고, 그로 인해 신문은 얼마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 결론이란 무엇이었던가?

발견된 것은 다름아닌 바로 제 1세기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한 남자의 유해였다고 하스 박사는 보고한다.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그 희생자의 양쪽 발뒤꿈치를 한데 모아 곧은 기둥에 못박았는데, 그 못이 나무의 용이를 치면서 끝이 구부러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유대인 희생자가 죽은 후에, 친척들은 못을 뽑기가 어려워서 발뒤꿈치에 못이 박힌 채로 매장하였다. 못 하나가 양쪽 뒤꿈치 뼈를 관통하였으며 다리 뼈가 각이 지게 부러진 것으로 보아, 그 희생자는 아마도 아래 그림과 같은 자세로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하스 박사는 보고한다. (하스 박사는 팔뼈에 굽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은 그 남자의 팔이 가로 막대에 못박혔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마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그와 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그것이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방법과 관련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지는 무엇인가? 하스박사는 팔뼈의 굽힌 상처를 발견하였고 “요골과 척골 사이의 뼈간극의 간격속에서 못이 침투한 골격학의 증거”라고 언급하였다. 이 증거에 기초하여 하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팔은 벌려져 있고 각각은 그 팔뼈에 못으로 박히게 되었다.”(Nico Haas, - Anthropological Observations on the Skeletal Remains from Giv'at ha-Mitvar, Jerusalem, - 이스라엘 탐사저널 20권(1970) 38-59)

하스는 그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더 이상의 유적의 연구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협회는 깨어라지 1971년에 깨어라지(영문 2월 22일 30면)를 통해 간략한 언급의 기사를 내게 되는데 그러나 곧 의심되는 사실들이 표면화 되었고 그 후 1973년 저명한 고고학자인 Yigael Yadin 은 하스의 증거의 해석을 반대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다.

“발꿈치는 관통되었고 나무의 두 평판에 함께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발꿈치는 고정되었다. 아카시아는 못의 끝과 가깝고, 올리브는 그 지점과 가깝다. 그리고 못은 매달려있게 하기 쉽도록 뒤쪽으로 구부러 박았다.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꼭대기 위로 그의 분리된 다리가 매달림으로서 십자가형으로 고정되었다. 그 다리는 무릎과 함께이지 발꿈치를 포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몸이 미끄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십자가의 꼭대기로부터 줄의 형태로 함께 묶여진다. (Fitzmyer, p 497; Yadin, "Epigraphy and Crucifixion" 이스라엘 탐험 저널 23권 PP18-22) 이 같은 가정은 하스가 제안한 것 보다 낫다고 생각되었고, 나중에는 1985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해석이 되었다.

그해, 고대 이스라엘박물관 관장인 Joseph Zias 와 히브리대학 하사드 의과대학의 Eliezer Sekeles 는 십자형의 유적을 재고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파수대지는 87년 같은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낸다.

*** 파87 8/15 29면 그의 다리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

못의 길이는 하스 박사가 보고한 것보다 짧아서, 양쪽 발뒤꿈치와 나무를 관통할 만한 길이가 되지 않았다. 뾰족각도 잘못 식별하였다. 제 2의 발뒤꿈치 뼈는 없었다. 즉 못은 단지 한 발뒤꿈치만을 관통한 것이다. 어떤 뾰족각들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팔 뼈의 굽힌 상처도 가로 막대에 못박혔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다. 사실상, 두개의 비슷한 상처 자국이 다리 뼈에서도 발견되었다. 다리 뼈의 상처 자국이 십자가 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Zias 와 Sekeles 는 “가장 논리적인 재고는 십자가에서 측면으로 각각의 다리가 위쪽을 향하도록 벌려진 상태에서 처형이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Zias and Sekeles,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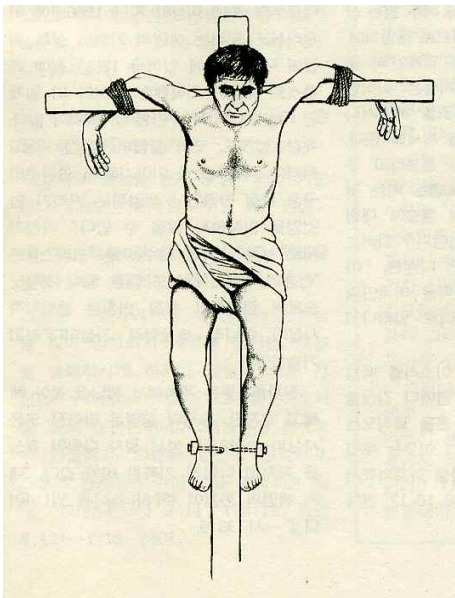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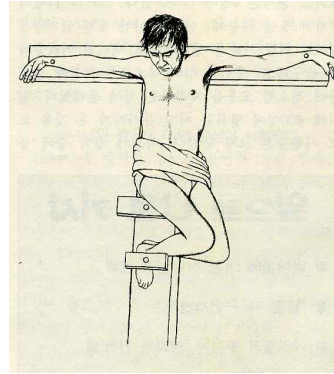
이 두 학자는 또한 Yehohanan 의 팔은 밧줄로 평형축에 묶여진 것으로 밝혔다. 팔뚝의 굽힌 자국의 증거는 “못에 의해 상처난 중

파수대 기사를 아래에서 살핀다.

*** 파87 8/15 29면 그의 다리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

예수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러면 이 점은 예수께서 사형당하신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시사해 주는가? 사실상, 별로 시사해 주는 바가 없다! 예를 들면, 23면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가로 막대가 없는 곧은 기둥에서 사형당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날 예수의 경우에 있어서 몇개나 되는 못이 사용되었는지조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1979년, 제 1권, 826면)은 이렇게 해설한다. “사용된 못의 정확한 수는 … 무수한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십자가 형에 대한 최초의 묘사에서는 예수의 발이 따로따로 못박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기의 것은 발이 엇갈려서 곧은 기둥에 하나의 못으로 박혀 있는 모습이다.”



이 기사는 우선 발굴된 뼈로부터 사형이 된 사람은 다리를 굴절시키는 사형이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1970년에 니코·하스 박사가 발표한 견해를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에, 다리 뼈와 못의 길이나 형상으로부터 양 다리는 기둥을 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못 박혔다라고 하는 1985년에 조셉·지아스와 에리자·세케레스가 발표한 견해를 소개한다. 손에 관해서 말하면 전자는 못 박혔다고 발표했지만, 후자는 줄로 묶여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두 학자는 무엇을 논하고 있는가? **발꿈치에 박힌 뼈속의 못의 위치가 어떠한가? 그리고 두 손은 못 박혔느냐? 로마의 전통 중의 하나인 묶인 상태이나? 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양자 모두 형구가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였던 것에는 이론이 없었다.**

협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신의 교리와 직접적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간접적인 이야기 즉, 위와 같은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 반증의 이론

거”라고 확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많은 왜상없는 굵직한 자국들과 톱니모양처럼 움푹들어가 상처들은 고대의 많은 해골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 사실, 두가지의 유사한 외상없는 것들은 바로 종아리뼈에서도 발견이 된다. 이것은 십자형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팔뼈의 외상의 상처와 손의 종간의 손가락뼈에 있는 그 상처는 십자가에서 목에 박힌 것 보다 는 오히려 묶여져서 처형이 된 것의 상처이다. 라고 말을 한다. (Ibid pp 24,26)

(이상의 내용은 학계의 내용에 대한 정리이다. 학계의 언급에서는 못 박힌 것이냐 묶인것이냐이다. 이하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 이상 편집자 내용 -)

등이 나오게 되면 이를 기사화함으로써 독자들을 잘 어리둥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이상과 같은 2개의 가설을 소개했을 경우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것이 온당할 것일까? 대답은 최초의 견해를 지지하는지, 두번째의 견해를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유보할지 어떨지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의 유보란, 이 사형된 사람의 손이나 다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혹은 줄로 묶여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편집자 주 - 로마의 처형법에 대해 없으나 손을 묶어서 또는 못을 박아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기록과 이야기는 마지막장에서 언급한다.)

그런데 이 「파수대」지의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 2개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연구가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따라서, 소개한 2개의 견해는 틀리고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한 개의 형주라고 하는 견해야말로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파수대를 잘 읽고 그 배경을 잘 이해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의 증인은 예수님의 형구는 십자가라는 증거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기 일수이다.

그러나, 「파수대」지가 소개하고 있는 2개의 견해는 한 개의 형주가 아니라 십자가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다른 논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으로써 이론이 있지만 형구가 십자가였던 것은 학회에서 넓게 인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한번 뒤집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속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게다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리스도교국의 학자는 아니다. 즉, 배교 한 그리스도교국과는 전혀 무관한 진지한 유대교의 고고학자들이다. 그들이 1 세기의 유대에 있어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를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정면으로부터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문의 세계는 성립된다. 이것은 완전한 상식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의 사이에 대립 의견이 존재하므로 결국 자신의 의견이 올바르게 되는 경우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학자의 사이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과거의 주장은 일소된다. 웃으며 끝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후 전혀 상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파수대」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워치타워협회가니까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동료의 목사나 제자가 그러한 논리를 사용한다면 직접 담판해 철회를 요구한다. **그들에게 창피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문제로서는 필자는 그러한 일을 할 필요는 없었다. 과거 30 수년의 사이의 목사 생활로 그러한 친구에게도 학생에게도 선배에게도 만났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만난 것은 다만 하나의 그룹 워치타워의 출판물 뿐이다.

여기서, 필자는 협회의 출판물의 집필자들과 여호와의 증인의 분들을 구별하고 생각하고 싶다. 필자가 지금까지 접해 온 증인의 분들은 결코 사실을 분별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다. 대부분의 분은 논리적이고 판단력도 뛰어나다. 만약,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만 하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일하게 해 협회 출판물을 정확하게 읽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상기의 「파수대」지의 기사를 재차 쿨한 눈으로 읽어 주셨으면 한다.

제 5 장 성서의 증언

지금까지 예수의 형구가 한 개의 형주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인 십자가였는가를 협회의 출판물의 증언, 초대 교부들의 문헌, 한층 더 나아가 고고학적 발견으로부터 검증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 점에 관계되어 성서의 기술이 어떠한 힌트를 주지 않은지 고찰해 보고 싶다.

들어가며 - 비판자에 대한 대응

우선 처음에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성서는 예수의 형구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따라서, 다양한 부수적인 일로부터 형구의 형태를 시사하는 힌트를 찾아내는 것 외에는 없다.

사실은 예수가 사형된 형구의 형태 등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의 죽음에 사용된 도구가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죽으실 때에 이용된 형구가 한 개의 형주이어도,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라도 상관없다.

그럼 왜 예수의 형구의 형태에 관계되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은 성서에서 어떠한 힌트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워치타워협회가 *십자가는 이교에 기원을 가지는 것이며 우상 숭배에 관련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협회에 있어서는 십자가 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적인 귀결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되었을 경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었다고 해도 그 비판자에 대해서 그러한 일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고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 부당한 비판에 지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성실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하다.

이러한 점에 관계되어 워치타워협회의 자세는 어떠한가? 여호와와의 증인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비판자에게 성실에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성실에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다음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살피면서 여기에 속한 경우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태도를 정비하고 생각해 보자.

- 1)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내용의 비판을 일절 듣지도 묻지도 않는다.
- 2) 비판자를 비판해 비판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면 무시한다.
- 3) 비판되고 있는 것으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무시하고 대답할 수 있는 곳만 대답해 끝마친다.
- 4) 논점을 애매하게 해 문제를 살짝 바꾸어, 비판되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것을 대답한다.

- 5) 비판되고 있는 문제와 닮은 문제를 채택해 궤변을 이용해 속인다.
- 6) 비판하는 사람의 동기를 물어 동기를 비판하면서 비판되고 있는 문제에 바로 정면으로부터 직면하지 않는다.
- 7) 비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자설의 찬동자를 찾아 그 권위에 호소해 비판을 봉한다.
- 8) 비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은 무지하다 발뺌을 해 문제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떠한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어떠한 학설이든, 신조든, 그것을 표방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그 의견, 학설, 신조를 가지는 자유에 대해서도 책임이 수반한다. 그것들에 대한 진지한 비판에 성실하게 대답할 책임이다. 이 책임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독단이며 혼잣말이 되어 버린다.

본서의 독자는 현역의 여호와의 증인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리스도교국의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 혹은 종교와는 무연인 사람이라면 편히 생각할지도 모른다. 비판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라고 하는 점에 대해 말하면, 그 사람이 취하는 종교적 입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비판이든 바로 정면으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에게 들어맞는 것만이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그룹에도 학풍을 같이 하는 연구자에게도 동일 신조를 믿는 종교 단체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이 점으로써 워치타워협회의 지도자에게는 필자는 실망을 계속 시켜왔다. 필자는, 지금까지 협회 리더에게 10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내 왔다. 그러나, 단순한 한 통의 대답도 없었다. 30년 이상의 목사 생활 40년 이상의 그리스도인 생활 60년에 가까운 인생 안에서,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다. 필자의 신변에 있는 증인의 분들이 성실하다는 인상과는 달리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만일 의견을 달리해도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 정도는 주시는 것이 예의는 아닐까? (편집자주- 보통의 증인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묻는 사람의 태도가 불손하기 때문이든지, 무언가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보았다.)

워치타워협회의 리더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든 필자 자신은 모든 비판자에게 성실에 대응하길 바라고 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 한다. 그러니까, 본서도 집필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협회가 비판하고 있는 「예수의 형구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다. 물론,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든지, 성서를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 등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십자가에서도 형주에서도, 어디라도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워치타워협회가 필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이상 필자는 거기에 대답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의 형구에 관해서 힌트가 되는 성서의 증언을 검증하자.

1. 못의 수

우선, 요한 20장 25절을 펴 주시길 바란다. 신세계역 성서로 읽어 보자.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

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¹⁹⁾

여기서, 예수의 제자 도마는 부활된 예수에 대해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극히 세세한 일이지만, 도마의 말 안의 「못」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못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헬로스」는 여기에서는 단수형은 아니고 헬론과 복수형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예수의 손은 2개 이상의 못이 박혔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로마의 십자가형의 경우 팔은 못으로 박히는 것보다 속박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는 도마의 상기의 증언으로부터 예수는 못으로 박혔다고 생각한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증언도 또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39 내 손과 발을 보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나를 만지고 또 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여러분이 보다시피 나는 있기 때문입니다.”(신세계역)

여기서, 「못」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어디에라도 있는 작은 못은 아니고, 몹시 큰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못이 복수인 것은, 양쪽 모두의 손에 한 개씩, 2개의 못이 맞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워치타워의 문헌이 게재하고 있는 형주에 매달린 예수의 그림을 잘 관찰해 주시길 바란다. 양손은 합쳐져서 그 양손은, 한 개의 못으로 박혀 있다. 그러나, 토마스가 증언 한 못의 수는 협회가 주장하는 한 개의 형주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십자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편집자주- 이 부분의 원어분석은 확인 못했음. 양해바람)

협회 출판물도 이 비판을 알아 변명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수대」지의 1984년 4월 1일호(31 페이지)이다. (한국어판 확인안됨-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함)

「Some have concluded from John 20:25 that two nails were used, one through each hand. But does Thomas's use of the plural(nails)have to be understood as a precise description indicating that each of Jesus's hands was pierced by a separate nail?

In Luke 24:39 the resurrected Jesus said: "See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This suggests that Christ's feet also were nailed. Since Thomas made no mention of nailprints in Jesus' feet, his use of the plural "nails" could have been a general reference to multiple nails used in impaling Jesus.

Thus, it is just not possible at this point to state with certainty how many nails were used.

요한 20장 25절로부터, 각각의 손을 꿰뚫기 위해서 함께 2개의 못이 사용되었다고 결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못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예수의 양쪽 모두의 손이 별개의 못으로 꿰뚫어진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묘사로서 이해해야 할까요?

누가 24장 39절로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손과 다리를 보세요. 이것은 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다리도 못을 박아 고정시킨 것을 시사하고 있습

19) e[legon ou'n aujt'w/ oi] a[lloi maçtaiv, @Ewrvakamen to'n kuvrion. o]J de: ei'pen aujtou'". !Ea'n mh: i[ðw ejn tai'" cersi:n aujtou' to'n tuvpon tw'n h{lwn} kai: bavl'w to:n davktulov'n mou ejj' to:n tuvpon tw'n h{lwn kai: bavl'w mou th:n cei'ra ejj' th:n pleura:n aujtou', ouj mh: pisteuvs'w.

기본형 : h|lo" (복수형 h{lwn})

발음 : {hay'-los} : 헬로스 품사 : 명사, 남성형 파생어: 없음

니다. 도마는 다리의 못 박힌 자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형의 「못」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형주에 매달 때에 사용된 복수의 못이 형주에 두 개의 못이 박혀 있다는 일반적인 참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히 얼마나 많은 못이 사용되었는지를 진술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자는, 협회 출판물이 자설을 지키기 위해 예상도 하지 못한 논리를 붙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다. 상기의 내용도 그 전형적인 것이다. 「파수대」지는 일부러 누가 24장 39절을 인용해 도마의 복수의 못은 예수의 손과 다리에 박힌 못일 것이다(이것도 애매한 표현이 되어 있지만)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마의 말의 그리스어 원문은 「그의 손(복수)안에 못(복수)의 자국을 보고, 나의 손을 못(복수)의 구멍에 넣지 않으면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의 못의 자취는 어디까지나 예수의 손안에 없으면 안 된다. 다리의 못까지 꺼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협회가 자설의 난처한 변명을 하는 것이다.

「파수대」지 1987년 8월 15일호(29 페이지)도 또한,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뉘앙스를 바꾸고 있다.

***** 파87 8/15 29면 그의 다리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

확실히 예수의 손 또는 팔은 단순히 묶여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도마는 후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 보지 않고는” 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요한 20:25) ‘예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란 말은 양손에 하나의 못을 박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의 “못들”을 박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참조 누가 24:39.) 또한 못이 예수의 손 부위를 관통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다. 성경 기록은 명료하게 정확한 세부점을 알려 주지 않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우기, 1968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뼈를 직접 조사해 본 학자들조차도 그 시체가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예수께서 어떤 자세로 죽으셨는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호는 다리의 못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면서도 「못이 한 개씩 각각의 손을 꿰뚫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양손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 2년전의 설명에 비해 어느 정도 톤 다운하고 있는 것은 앞의 변명이 너무나 이상한 것을 자신도 알고 있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궤도수정을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2. 죄목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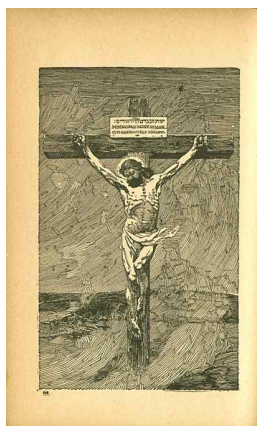
다음에 마태 27장 37절을 읽어 보자.

신세계역 「37 또한 그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라고 쓴 그분의 죄목을 붙였다」

로마의 사형에 대해서는 범죄인의 죄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목을 보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 관습에 근거해 예수의 경우는 「유대인 왕 예수」라고 하는 죄목을 들이대었다.

그런데, 예수의 경우 그 죄목을 예수의 머리 위에 내걸었다는 그 말은 예수의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인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한 개의 형주에 매달린 경우 죄목은 머리 위가 아니고 손 위가 된다. 「예수의 머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를 상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 개의 형주의 경우에서도 예수의 머리 위에 손으로 쓴 글씨가 손위에 위치한 것은 결국 머리 위에 위치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양보해서 받아 들인다면 결정적인 증거보다는 참조를 하기 위한 자료로 한번 생각해도 상관없다. 결국은 모든 자료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3. 손을 뺀다

요한 21장 18절을 살펴본다.

「18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걸어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늙으면 손을 내밀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는지에 대해 예고한 것이다. 또, 「손을 뺀다」의 그리스어 「에크테이노」는 고대의 문헌에서는 십자가형의 문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횡단목 위에 손을 뺀 것 그리고 그 횡단목에 손이 속박되는 것, 그리고 사형장까지 데리고 가지는 것이 예고되었다는 된다(D. A. Carson 저,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p. 679 참조).

덧붙여 그리스어 「에크테이노」는 신약 성서에 있어도 손을 옆에 늘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고(마태8:3,12:13,12:49,14:31,26:51, 마가1:41,3:5, 누가5:13,6:10, 사도4:30,26:1 등 참조), 손을 위에 올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말은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십자가 이해는 한 개의 봉은 아니고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였던 것이 된다.

4. 십자가를 진다

예수는 마태 10장 38절(평행 기사는 누가 14장 27절)과 마태 16장 24절(평행 기사는 마가 8장 34절, 누가 9장 23절)에 대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파수대」도 권위 있는 사전으로서 자주 인용하는(정확하게 말하면, 약인용하지만) 「국제 표준 성서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827페이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명이 제창되고 있지만(TDNT, VII, 578-79페이지), 이 비유는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일부를 사형장에 옮겨 간다고 하는 로마의 습관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의 청중이 이 비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는가는 확실치 않다.」

똑같이 「신성서 사전」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254페이지).

「**범죄자가 횡단목을 옮긴다고 하는 수치스런 모습은 예수의 청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었으므로, 세 번 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말해졌다(마태10:38, 마가 8:34, 누가14:27).**」

이 예수의 비유는 사형수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일부(횡단목)를 사형장까지 옮긴다고 하는 로마에 있어서의 십자가형의 방법을 배경으로 말한 것이다. 그것은, Plutarch가 「**각각의 범죄자는 스스로의 벌의 일부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의 등에 짊어져 옮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Plutarch, *The Divine Vengeance*, 554 A/B). 그 말은 예수는 로마 세계에 있어서의 십자가를 비유에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 십자가가 세로의 곧은 선과 횡단목 이라든지 또는 2 개의 기둥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예수의 십자가

마태 27장 32절, 마가 15장 21절, 누가 23장 26절은,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때 로마의 병사는 예수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구레네인 시몬에게 돕도록 명하고 있다. 통상, 그 십자가(기리샤투 스타우로스)는 십자에 짜여진 십자가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십자가를 구성하고 있는 횡단목(라틴어로 이 횡단목을 patibulum라고 부른다)이다.

요한 19장 16절 후반부터 18절의 내용은 예수가 횡단목을 지고 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신세계역을 열어 주시길 바란다.

「16 그때에 빌라도는 그분을 기둥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맡았다. 17 그분은 **친히** 고통의 기둥을 지고 이른바 ‘해골터’ 곧 히브리어로 골고타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18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았으며, 그분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못 박고 예수는 가운데 두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의 몸을 인수했다.」

「그들」이란 24-25 마디에서 로마의 병사를 가리킨다. 「친히」라고 하는 그리스어 「헤아우트」의 직역은 「그 자신을 위한」이다. 그것은 그 십자가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말은 사형장에 미리 갖춰져 있는 세로의 곧은 선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범죄자가 **사형장까지 떠맡아 가는 횡단목**이다. 「지면서」라고

하는 그리스어 「바스타조」는 짊어진다가 원 의미이지만, 이 말은 「십자가의 횡단목을 짊어져서 온 마을에게 보이고 경계를 하라고 하는 표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당시의 로마 세계에 있어서의 십자가형의 습관을 암시한 말이다. 「형주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에스타우로산」은 예수의 손을 짊어져 온 횡단목에 못 박고, 그 횡단목을 사형장에 있던 세로의 끈은 선과 묶어 올릴 때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상과 같이 요한의 복음서의 이 기록의 하나 하나는 당시의 로마 세계의 십자가형을 배경으로 읽는다면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형태는 형주는 아니고, 십자가였다는 것이 된다.

제 6 장 십자가에 대한 고찰

본서가 취급하고 있는 테마는 예수의 형구가 형주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문제를 협회 출판물, 초대 교회의 교부의 문헌, 고고학적 발견물, 그리고 성서의 기술 등에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어느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주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알려 주기 위해 몇 개의 내용을 추가로 쓴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십자가의 역사적인 고찰을 로마와 유대인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의 이야기를 논한다.

1. 로마 이전의 상황

일반적으로 책형 중에서 사형으로 사용된 것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TDNT, 7, 573페이지). 헤로도토스가 거기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1 128 2, 3 125 3, 132 2, 159 1, 4 43 2 및 7, 6 30 1, 7 194 1 f, 트키디디스 1 110 3이나 참조).

그러나, 그것보다 오래된 보다 야만스러운 민족 아래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그리스나 로마의 역사가도 책형이라고 하는 야만스러운 사형 방법을 미개의 사람들로 부터 계승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고학은 고대 중근동, 특히 압사 리어 제국의 정치가들은 도망자, 적군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 혹은 반역자들을 책형과 관계가 있는 방법으로 사형할 것을 밝히고 있다(ANEP, 362 368 373 참조). 다만 일반적인 사형과 책형의 사형이 달라 나무에 매달아질 때는 이미 시체를 매단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산채로 매단 경우, 사형수를 못 박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줄로 속박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관한 점은 항상 그 구체적인 사형방법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헤로도토스는 살아 있는 사람을 사형하는 경우에는 「아나스코로피조」라고 하는 동사, 시체를 햇볕에 쬐어서 표시를 하여 죽이는 경우에는 「아나스타우로」라고 하는 동사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헤로도토스 이후가 되면 이 2개의 말의 사이에 명확한 구별은 없어져 버린다.

그리스 세계에 있어서의 상황은 어떨까? 사실은 책형이라고 하는 사형 방법은 그리스 제국의 초기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제국의 후기가 되면서 꽤 일반화 된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트로의 사이를 물리쳐 정복 했을 때에는 2,000명을 책형으로 했던 것이 기록되고 있다(Historia Alexandri 4 4 17).

2. 로마 세계의 상황

고대의 문헌에 의하면 카르타고인은 책형의 형을 빈번하게 행해 온 것 같고 로마인은 그 카르타고로부터 책형의 사형 방법을 계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형의 형의 상당수는 최소 한 개의 기둥에 의해 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 위치타워협회도 권위 있는 사전으로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신국제 신약성서 신학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형태의 사형 집행은 로마 사람에 의해 집행되었다. 스타우로스는 십자가의 형태에 대해 횡판이 붙여졌던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의 역사의 자료로부터는 십자가의 정확한 형태가 같은 길이의 봉으로부터 생긴 십자가(crux immisa)였는가, T자의 십자가(crux commissa)였는가는 분명히 할 수 없다. 죄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언제라도 전통적인 십자의 형태(crux immisa)를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역사가는 기원전 2 세기 무렵에는 벌써 횡단목(가로대)이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횡단목이 더해져 오늘의 십자가가 일반적으로 되어 로마인이 십자가에 대해 라틴어의 crux라는 말을 적용시키게 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십자가형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로마의 희극 작가 쟁기 토스이다(기원전 254-184년).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범죄인은 태고의 옛부터 그 반역성의 연고로 십자가의 괴로움을 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Martin Hengel, Crucifixion, Fort Press, p. 52). 그러나, 로마의 풍자 시인 쥬베나르는 자주 *집정자의 변덕의 연고로 십자가를 지게하는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Satires 4 219-223).

로마의 정치적 지도자는 제국 초기의 무렵부터 십자가형을 노예의 범죄에 적용했다. 극히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물론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유민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은 적용되지 않았다(Cicero, In Verrem 1 5 66).

덧붙여 로마에 대해서는 *옛 부터 알몸의 나무(arbor infelix)에 반역죄의 사람이나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을 매단다*, 라고 하는 행태가 있었다. 그 경우에도 십자가형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다.

십자가형은 점차 노예만이 아니고 외국인에게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에 적용되게 되어 갔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강도 등과 같은 상황이 되기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형은 최초 로마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지방에서도 잘 행해지게 되었다. 이유인즉, 로마의 정치적 독재자들은 이 십자가형이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극히 유효한 수단인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다양한 지방에 있어 로마 정부는 이 사형 방법에 따라 권위에 거역하는 운동을 진압해 나간다. 로마 제국의 확립·유지를 위해서는 십자가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Cicero(기원 전106-43년)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로 로마 시민의 몸으로부터 그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중에서도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Pro Rabiro 5). 당시의 저술가들의 상당수는 *이 사형 방법을 너무 잔혹한 것이라고 비난* 하고 있다(Cicero, In Verrem 64 165 그 외 많이 타키투스, Historia 4 3 11, 요세푸스, 유대 전기 7 203). 십자가형은 당시에 있어도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로마의 수사학자 퀴테리안(서기35-95년)은 *십자가형이 범죄자나 선동자를 무서워하게 하는데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 의해 희생이 된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이유로 십자가는 마을의 제일 떠들썩한 큰 길의 중심에 지어져야 한다*, 라고 변호하고 있다(Declamationes minores 274). 로마 세계에 있어 사형수가 자신이 직접 나무 십자가의 일부(횡단목)를 짊어져 동네를 돌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나, 사형이 공개의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단지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던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폭동의 억제 기능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었다.

서기 200년경에 활약한 로마의 법률가에게 율리우스·파우르스는 *십자가형이 화형, 참수와 함께 제일 무거운 형벌(summa supplicia)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률가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도망자, 비밀을 흘린 배반자, 국가 전복의 선동자, 살인자 등에게 적용되었다. 요컨대, 십자가형은 국가에 대한 반역죄와 같은 사회불안을 가져오는 중죄에 대해서만 부과되었다.

3. 사형 방법

고대의 저술가는 십자가형이 어떻게 집행되었지에 대해 아무 것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노예나 극악인의 사형 방법 등 기록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인지도 모르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가는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수께끼가 남겨지고 있을 뿐이다.

십자가형의 사형 방법이 때와 장소, 범죄의 내용이나 사형수에 의해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적군의 장교를 사형하는 것과 평시에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규칙이 있던 것도 또한 틀림없다. 여기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십자가의 처형 과정을 역사적인 자료로부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고 싶다.

우선, 처음의 것은 법적인 중재이다. 전쟁과 같이 특수한 상황 때에는 그 중재는 전쟁의 현장에서 행해져서 사형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실시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법적인 중재는 생략 되었거나 간략하게 행해졌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는 로마 정부의 아래에서 로마법

에 근거해 엄격한 재판을 했다.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병사는 사형수를 고문을 가했다. 사형수를 채찍으로 치는 것은(이것은 카르타고에서 계승된 것이지만) 반 관습적인 모습이었다. 게다가, 병사는 사형수로부터 많은 피가 흐를 만큼 채찍으로 쳤기 때문에, 사형수는 그 죽음을 빨리 할 수 있던 것이 보통이었다. 즉, 고문은 십자가상에서의 괴로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사형수는 병사로부터 고문을 받은 후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일부(횡단목)를 지게 되었다. 그 때 줄로 간단하게 묶여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함으로써 그들도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또한 사형수에게 조소나 매도를 퍼붓는다. 그리고 사형수는 그런 조소를 받으면서 사형장까지의 도정을 걸었다.

사형장에 도착하면 사형수는 짊어져 온 십자가의 횡단목을 미리 지면에 지어져 있는 세로의 곧은 선의 곳까지 옮겼다. 그 후 알몸으로 다시 채찍을 맞았다.

그리고 횡단목이 사형수에게 붙여진다. 예수의 경우 양손은 못으로 박혔지만 못으로 박는 경우는 드물었다 (헤로도토스, 9 120 4, 7 33). 많은 경우 줄로 묶였다. 최근 발굴된 케 이스나 예수의 경우에는 다리도 또 못이 박힌 것을 안다. (누가24:39참조). 그러나 항상 그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십자가를 세우는 방법에는 2개가 있다. 하나는 사형장에 있는 종단목을 지면에 높혀 사형수가 그 위에 십자의 형태로 매달린 후에 그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우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형수를 횡단목에 매단 후 후 이를 끌어서 지면의 세로줄에 묶는 방법이다. 노예가 횡단목(patibulum)을 가지고 사형장까지 오는 로마에서는 두 번째의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십자가의 형태로서는 T자형의 것(crux commissa)이 보다 많았다. 그 십자가의 높이는 3미터 정도로부터 사람의 키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모습을 지니는 여러형태를 갖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둥 가운데에 작은 나무(sedicula)를 붙여서 거기에 허리를 걸쳐해서 몸의 중량감을 지지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손에 못을 박았을 경우 손이 몸의 중량감을 지지하지 못하고 찢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범죄인이 십자가에 고정되면 한사람이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사람은 사형수를 매도하게 되고 매도한 군중은 이제 그 현장을 떠난다. 남은 사형수는 가혹한 기후와 싸움을 해야 한다. 격렬한 고통이 체내를 덮쳐 체력이 소모돼 질식사해 죽어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곤충이나 동물의 먹이가 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시체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많았다. 그 경우 송장 고기를 요구하는 육식 동물이나 길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범죄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시체를 맡아 무덤에 매장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시체가 방치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여기고 있었고 가능하면 방치하지 않게 했다.

(토비트서는 산헤립왕이 사형한 사람들의 시체를 토비트가 매장한 것을 선행으로서 전하고 있다 ; 토비트서 1장18-19절).

4. 유대 세계에 있어

구약 성서에는 책형(磔刑)이라는 형이 나온다. 그 처음은 요셉 시대의 이집트에 있었던 사건이다. 창세기 40장18-22절은 왕 파라오의 요리 관장이 나무에 매달릴 것을 알리고 있다. 그것은 사형되어 시체가 된 후 나무에 매달아졌다고 생각된다. (zzang(닉네임) 님 각주-두산대백

과사전에 의하면 책형은 죄인을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던 형벌이었다고 함. 동양에서는 일본의 책형이 유명하다. 일본의 책형은 기둥에 두 개의 횡목(橫木)을 달고, 죄인을 묶어 팔과 다리를 벌려 '대'자가 되게 횡목에 묶어서, 기둥을 세워 구덩이에 밑 부분을 묻는다. 그런 다음 두 창수(槍手)가 양 거드랑이를 중심으로 20~30번 찌르고, 마지막으로 목을 찌른다. 한국의 경우는 고구려의 기록에서 보이는 기사(棄市:저자에 버린다는 뜻)가 책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죄인을 기둥에 묶고 많은 사람들이 횡목로 지진 다음 목을 쳐서, 며칠씩 저자에 두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죽여 목을 매달았지만 저녁 무렵에 나무에서 내렸다(여호수아 8장 29절). 그 후 5명의 왕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하고 있다(여호수아 10장 26절).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적군에 의해 살해당해 성벽에 보이도록 표지로서 걸쳐졌다. (사무엘상 31장9-10절). 기원전 11 세기의 사건이다.

에스더서는 왕의 명령에 반하는 사람의 목을 매단 것을 적고 있다(에스더 5장 14절, 6장 4절, 7장9-10절, 9장13-14절). 그것은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 세기의 일이다.

기원전 2 세기에는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서가 번역되었다. 그 번역은 스타우로스라는 말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더 7장 9절의 「들인다(히브리어-)」 나, 8장 12절(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없기 때문에 역자가 보충한다.), 게다가 애가 5장 12절에 대해 동사 「스타우로오」를 사용하고 있다. 모두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을 사형한 케이스로서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에스라 6장 11절에 관해서는 조금 애매해서 거기로부터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다. 여호수아서 8장 29절의 그리스어번역은 「목을 매단다」(에크레마센·에피·쿠쉬 루)의 말 뒤에 「디데무」(2개의)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 이것은 2개의 나무라고 보아 십자가를 나타내는 해석도 가능하다.

율법학자의 문헌도 이와 견해를 같이한다. 그들은 신명기 21장22-23절을 기초로 해서 섬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즉, 신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실시 했으나 그 후로 법적인 형식을 정돈하기 위해 목을 매다는 형을 실시했다. 어느 사람을 묶어서 사형을 시키는 등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취했다. (파업 락 빌라 베크 1 1034-35).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언제라도 행해졌다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기원전 1 세기의 반 무렵부터 유대인의 최고 의회 산헤드린에는 사형 집행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한 사형의 집행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로마 정부는 책형에 의한 사형 방법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러한 사형 방법에 대해 미움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로마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책형의 형은 유대교 안에서는 형벌의 모습으로서는 묵인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범죄자가 책형(磔刑)에 의해 사형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우상 숭배자 혹은 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죽인 후 신을 저주한 후 그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던 것 같다. (신명기 21장 23절). 게다가 그 시체는 밤에 그 나무에서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느님이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일대가 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형 방법인 책형이 유대인의 사이에서도 도입되게 되었다. 특히, 헬레니즘 시대의 하스몬 왕조의 시대에는 그것이 실시되었다고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로스 안나이우스(Alexander Jannaeus 기원전 103-76년)는 반역한 바트메의 마을을 공략했을 때 800명의 위선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1 4 6, 「유대 고대사」 13 14 2로 3). 사해사본의 나훔 1장 7절의 주해나 요세푸스의 서적은 이 사형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유대 고대사, 11 261, 266 f, 17 295, 20 102 129 161, 유대 전기 5 449 이하 참조).

헤롯이 대왕으로 있었을 당시 십자가형은 접할 수 없었다. 단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뿐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하스모닌 왕조와 거리를 두려고 십자가형을 의도적으로 치운 결과인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몸에 털이 난 것들은 모두 십자가형으로 집행된 것을 증언 하고 있다(유대 전기, 5 11 1). 그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같은 책, 7 6 4). 덧붙여 요세푸스는 거의 저서에서, 지방에 있었던 다양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십자가형이 극히 많이 이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유대 전기, 2 5 2, 12 6, 13 2, 14 9, 3 7 33, 5 7 5, 7 10 1, 유대 고대사 17 10 10, 20 6 2).

5. 십자가형의 폐지

이 십자가형이 폐지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이다. 그는 십자가형이 그리스도교에 있어 치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마 제국에 있어 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던 것이다.

협회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통찰」은 그 때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통-1 254면 기동에 못 박음 ***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기동에 다는 페니키아인들의 관행을 받아들였으며, 이런 관행은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국 내에서 폐지되었다고 한다. 로마 시민을 기동에 못 박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런 형벌은 대개 노예나 천한 신분의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 기동에 못 박히는 것을 저주받은 자에게 마땅한 모욕과 수치의 상징으로 보았다.—신 21:23; 갈 3:13; 빌 2:8.

협회의 말대로, 그 가혹함의 괴로움의 형주에 의한 사형을 폐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태양숭배를 근거로 십자가를 도입했다고 협회는 가르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협회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협회의 해설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십자가에 의한 사형은 폐지되어 십자가(cruc)라는 말은 성스러운 말이 된다. 법률 문서에서는 십자가 대신에 교수대(furca)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사형수는 십자가의 경우라면 죽을 때까지의 긴 시간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교수대에 대해 한순간에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대가 보다 인간적인 배려가 있는 사형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6. 예수의 죽음

역사상의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는 마태 27장1-2절,11-61절, 마가 15장 1-47절, 누가 23장1-56절, 요한 18장 28절-19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다. 게다가 마태 20장 19절, 26장 2절, 누가 24장 20절, 사도 2장 36절, 4장 10절, 계시록 11장 8절 등에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예수는 유다가 데리고 온 유대인 병사에 의해 체포된다(마가 14장43-46절).
- 2) 유대의 최고 의회 산헤드린이 소집되어 예수를 조사했다(14장53-61절).

3) 의회는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주장할 것을 결정했다(14장62-64절).

4) 유대인들은 예수를 우롱 했다(14장 65절).

5) 의회는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인도했다(15장 1절).

(예수 시대 유대지역에서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만이 행사할 수가 있었다.)

6)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 인지를 심문했다(15장 5절).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 같은 대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었다.)

7) 빌라도는 침묵을 지키는 예수를 사면하려고 시도했다(15장6-12절).

(로마법에 비추었을 경우 예수를 유죄로 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8)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을 요구했다(15장11-14절).

(예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수도 있었다.)

9) 총독은 예수를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형을 시행토록 로마 병사에 인도했다(15장 15절).

(로마법에 의하면 범죄인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게 되어 있었다.)

10)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은 다양한 조롱으로 예수님을 모욕했다. (15장17-19절).

11) 예수는, 십자가의 횡단목을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향했다(15장 20절).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횡단목을 짊어지고 마을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12) 병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시몬에 짊어지게 해 사형장으로 연행했다(15장 21절).

(로마법에서 타인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예수의 육체의 고통과 피로가 막대했고 사형장까지도 갈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걱정한 사형 집행인의 병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13) 예수에게 몰약을 혼합한 포도주가 내밀어졌지만 마시지 않았다(15장 23절).

(몰약을 혼합한 것은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대 독특한 것이었다.)

14)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15장 24절).

(시몬이 짊어진 횡단목 위에 양손이 못으로 박힌 후 미리 수직으로 세워진 가로목으로 끌어 올려 매단 것으로 생각된다.)

15) 「유대인 왕」 이라고 하는 죄목을 내 걸었다. (15장 26절).

(예수는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정치적범으로서 재판받았던 것이다.)

16) 예수는 사람들과 옆의 범죄자로부터 조롱을 당하셨다. (15장 29절, 32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위에 모여 범죄자를 조롱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 관습이었다.)

17) 예수에게 신 포도주가 내밀어졌다(15장 36절).

18)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15장 38절).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으로 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필요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19) 예수는 숨을 거두셨다(15장 39절).

20) 아리마대의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의 인도를 요청했다(15장 43절).

(유대에 있어서는 사체를 안식일에 찢지 않는다고 하는 습관이 있었다. 요한 19장 31절 참조).

21)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백부장에 의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해 예수의 몸을 의회의 의원 요셉에게 주었다(15장 45절).

22) 요셉은 예수의 사체를 옷감으로 싸 그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안치했다(15장 46절).

이상이, 예수의 죽음의 역사적 경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있어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예수의 죽음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속죄의 관점으로부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13개의 편지를 남겼다. 그 중에서 그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일을 남겼다. 그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다만, 한 곳 데살로니가첫째 2 장15-16절에 대해 「유대인들은 심지어 주 예수와 예언자들까지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바울은 역사상의 예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을지라도, 확실히 지금은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고린도 둘째 5 장 16절). 즉, 인간으로서 행동하신 역사상의 예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바울은 예수의 죽음의 역사적 사실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그 진심은 계속되는 고린도 둘째 5 장18-20절에 진술되고 있다. 즉, **예수의 역사상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및 초대 그리스도인인인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예수의 죽음을 중요시했다. 그야말로 그들이 받고 또 전파한 복음의 중심적 사건이었다. 고린도첫째 15장3-4절을 인용해 두자.

「3 나는 첫째 가는 것들 가운데서 나 역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 그분이 묻히셨다는 것, 아니, 그분이 성경대로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것, 5 그리고 그분이 게바에게,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역사의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했다. 예수의 책형의 과정, 그 때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형구의 형태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야말로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예수의 역사적인 죽음을 정확하게 더듬을 수가 있어도 예수에 의한 속죄의 은혜를 알 수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성서는 예수가 책형으로 된 모습을 상세하게는 묘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육체가 경험한 괴로움,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예수의 속죄의 사업이라는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속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애매하게 되거나 희석 되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한 묘사를 피했을지도 모른다.

7. 스타우로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그리스어의 「스타우로스」에 대해 정리해 보자. 전자메일로 받은 편지에 대해 자세히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해 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은, 본서의 내용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때가 되는대로 언급해 왔다. 여기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재차 정리해 둔다.

1) 스타우로스는 원래 한 개의 곧은 봉을 가리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기원전 7세기의 호메로스(Homer-호머)는 펜스라고 하는 고통의 의미로(「오디세이아」 14,11), 기원전 5세기의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기초나 토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7,25,5).(zzang님 각주- 호메로스는 기원전 800?~기원전 750년경의 그리스 시인이며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71-401년경 그리스의 역사가이다.)

2) 동의어로 동사 「스타우로오」는 「아나운서」라고 하는 접두사를 적어 「아나스타우로오」로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내건다」 또는 「다하고 찌른다」를 의미한 「아나크레마니미」(헤로도토스, 3,125,3 f, 7,194,1 f) 혹은 「아나스코로피조」(헤로도토스, 9,78,3)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말이었다.

이것들 일련의 동사는 「찌른다」(헤로도토스, 7,238,1)라는 사형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표시로 「내건다」(헤로도토스, 3,125,3 f), 한층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단다」, 「근심」,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그것들 모두가 공중의 면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사의 엄밀한 의미는 그 말이 사용되고 있는 문헌의 장소나 시대, 그리고 전후의 문맥으로부터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그 논의는 무의미하다.

3) 언어의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말하자면 「스타우로오」(*stauro'o*) 혹은 「아나스타우로오」(*a-na-stau-ro'o*)라는 동사가 명사 「스타우로스」(*stau-ros*)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명사 「스타우로스」도 점차 동사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zzang님 각주-성서필자들은 그리스어 명사 스타우로스를 27회, 동사들인 스타우로오를 46회, 신스타우로오(접두사 신은 “함께”를 의미함)를 5회, 아나스타우로오(아나는 “다시”를 의미함)를 1회 사용하였다.)

책형의 형구에 대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되지만, 기원전 3, 4 세기의 무렵에는 동쪽과 서쪽에서는 그 사용법에 차이를 볼 수 있다. 동쪽에서는 창형으로 된 범죄인이 더욱 수치스러움을 느끼게하고 시체를 보이도록 해서 표시로 되었지만 그 때 이용된 형구를 스타우로스라고 불렀다(포리비우스, 7,21,3). 그러나 서쪽에서는 그러한 일은 용서되지 않고 실시되는 경우도 없었다(헤로도토스, 7,238,1 f, 9,78,3, 9,79,1, Plutarch 「De Pericle, 28,1). 스타우로스는 어디까지나 살아 있는 범죄인을 사형에 대처하는 형구였다.

4) 로마 시대에는 사형수가 십자가의 일부(라틴어로, 이 횡단목을 파티불룸-patibulum이라고 부른다)를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하는 제한 표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 및 카르타고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확인되고 있다. 많은 역사학자는 로마인은 이 방법을 카르타고에서 배웠다고 추측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입증 하는 것은 어렵지만 동방 제국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이 실행된 적은 없었다.

5) 결국 그리스어 「스타우로스」는 죄인을 매달아 내 거는 봉(기원전 1 세기의 데오도시우스·식스, 2,18,2)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고, 십자가의 세로의 곧은 선을 가리키는 경우도, 횡단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십자가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 사

형수를 찌르거나 목 졸라 죽이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봉을 가리키는 일도 있었다.

「스타우로스」의 의미를 결정하려면 그 문헌이 기록되었던 시대 및 장소를 잘 고려해야 한다. 물론 많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않기 위해 전후의 문맥으로부터 추측해야 한다.

말의 의미는 전후의 문맥으로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이다. 알기 쉬운 예를 하나만 살펴보자. 예를 들면, 누가 7장 24절에, 「요한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앙겔로스」이다. 그것은 물론 통상 「천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 앞의 19절부터 요한의 두 명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다. 언어는 문맥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zzang 님 각주-이 그리스어 단어 앙겔로스에서 영어단어 엔젤angel이 유래했다. 계시록1:20에서 신세계역은 “일곱 회중의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다. 개역한글판에는 그 부분이 “일곱 교회의 사자”로 되어있으며 둘 다 그리스어 앙겔로스를 번역한 말이다. 신세계역은 이 성구에서 앙겔로스를 문자적인 의미인 “천사”로 번역하였으나, 출판물에서는 그 의미가 “사자(使者)”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스어 단어 앙겔로스는 실제로 영계에 있는 천사들로 번역하고 이해해야 하는 성구도 있고, 사람들로 된 사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 성구도 있다. 두 가지 번역 모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

결 론

「파수대」지(1971년 2월 1일호 - 한국 71.5.15 p221)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파71 5/15 221면 성서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 *****

성서는 그것의 형태를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가 사용한 희랍어 단어들인 “십자가”보다는 “막대기”, “기둥” 혹은 “나무”이기 때문에 책임은 사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기둥에는 횡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 위에 있다.

입증 책임이 워치타워협회 측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국 측에 있는지 이것은 재미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것은 옆으로 제쳐두자. 어쨌든 필자는 「기둥에는 횡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따라서 협회의 생각에 의하면 필자가 예수의 형구가 십자가였던 일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국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사형된 형구의 형태 등 인류의 속죄의 업에 대해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한 개의 형주든 전통적인 십자가의 형태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죽음 될 수 있던 사실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성서는 예수의 사형의 형구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중요한 것이면 성서 기자는 당연 영감에 의해 예수의 형구의 형태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감을 받은 성서 기자는 그 좋은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어느 증인이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이교를 배경으로 한 십자가에 의해 사형될 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필자는, 그러한 주장을 협회 출판물에 의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자와 이야기한 증인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 출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또는 협회의 내용이 아닌 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협회의 입장이 아니면 그 증인은 협회의 견해로 맞추고 종전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수의 형구가 한 개의 형주이었다고 해도 예수는 로마 정부의 아래에서 사형된 이상 이교도가 집행하고 있던 사형 기구에 의해 사형되었던 것이다. 기구만이 아니고 재판의 법률도 재판관도 사형의 수속도 모든 것은 이교적 배경 안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필자는 본서에 대해 예수를 매단 것은 한 개의 형주가 아니고 십자가였다고 논해 왔다. 통상의 센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납득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절대시 해, 여기에 소개한 자료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제공한 자료의 적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 기준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교부의 증언, 고고학의 자료, 성서의 증언으로부터 앞으로 5개의 증거를 더해도 그 쪽은 납득해 주시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필자 자신은 만약 예수의 형구가 한 개의 형주이었던 일을 여러가지 증거로부터 납득할 수 있다면 기뻐해 즉석에서 형주라고 인정한다. 그 정직함이 필요하다. 필자는 같은 것을 증인의 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싶다. 만약, 예수가 전통적인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을 본서에 준 증거로부터 납득할 수 있다면 형주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 십자가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며 역사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성서의 갈라디아 3장 1절(한글개역)을 읽어 주셨으면 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편집 후기>

항상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마도 단순한 노동의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끝내고 나면 감사함과 경외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작업의 한 귀퉁이에 이런 글을 남기고 싶은가 보다.

우연인지는 모른다. 7월의 토론의 주제가 형상숭배의 문제였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는 마리아와 성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관련은 없지만 결국 논쟁해야 하는 십자가인가 형주인가였다. 나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형주에서 돌아가셨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분들로부터 듣는 본인은 교회에서 십자가 숭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 황당하지만 복음의 관점은 그 의미를 알게 모르게 희석시키는 부분에서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연쟁을 통해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한 기도말고는 이러쿵 저러쿵의 논쟁은 삼가고 싶었다.

그래서, 7월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많이 위로받고 힘이 되어 주시는 증인분(zzang형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이 주제에 대한 기사의 출처와 그 부분도 궁금하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초안을 잡았고, 일은 쉽게 진행되었다. 번역이라는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면서도 일본어가 원서인지라 번역기를 통해 쓰면 편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출처에 대한 한개 한개의 근거를 본인도 직접 확인해야했기 때문에 그 출처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 나갔다. 설마 했던 내용들 특히 이 글의 저자가 차마 쓰지 못한 부분들도 읽으면서 조금은 황당했다.

그리고, 수중에 없는 자료의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도 수 많은 학자들이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게 사실이었다. 물론, 통일교의 자료가 한국에 많은 것 처럼 말이다.

말이 길었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 내가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하나의 틀 속에서 몸부림 치면서 단편적인 면을 바라보고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새삼느꼈다. 입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을 느끼면 아마도 나의 말이 무슨 말이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마음의 태도와 진지함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서의 고통과 외로움을 통한 십자가의 의미에서 오는 위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준비된 일의 감사함. 이런 배려를 받으며 이 작업을 거의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바울의 경우에서도 힘든 와중에도 웃으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다.

그렇다. 십자가든 형주든 전파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사탄은 그 죽음으로 힘들어 하는지를 전파하자...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조금 톤을 낮추고, 왜 죽었는지를 함께 전하자. 그 죽음의 승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심어주자. 사탄에게 스타우로스가 형주인지 십자가인지 우린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그 스타우로스의 승리를 다시 알려주고 사탄을 놀려주자. ^^

항상 그 분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하며, 지금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그

분께 이후의 열매를 맡기며 증인분과 우리 개신교의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스타우로스 아래에서 하나되길 기도한다.

Annajames